

무량심 파도로 밀려

석굴암 본존불
국보 제24호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끝내 희망은 이뤄지리라
– 본생경 –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12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69호 2012년 1월 1일 일요일

새 출발 2012…함께 행복합시다



"중생의 목소리 들리시나요"

2012년 새해가 밝았다. 늘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 햇살에는 희망의 기운이 넘친다. 민중의 서원이 깃든 야외 법당 경주 남산에도 첫 햇살이 드리운다. 신선암마애보살유희좌상(보물 199호)이 그 햇살에 눈을 뜬다. 천년을 넘게 한 곳에서 바라본 햇살도 오늘은 새롭다. 중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주기를….

기사 B10 · 11면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2012년은 간화선풍 진작의 해

경허 스님 열반 ·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1849~1912)와 현대 한국의 대표 선지식이었던 성철 스님(1912~1993)을 기념 · 선양하는 행사가 2012년 한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 · 집행위원장 주경, 이하 사업회)'는 구랍 29일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선사의 업적 등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
> 현대불교 선지식 성철 스님
> 조계종 창종 50주년과 함께
> 선양 사업 통해 비전 제시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을 위해 사업회는 ▷3월 선서화전 · 문화기행을 시작으로 ▷5월 〈경허집〉 재출간 ▷6월 국제선수행체험 ▷6월 13일 열반100주년 기념다례 ▷10월 학술세미나 ▷3~7월 백고좌법회 ▷연중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계획이다.

문화기행 프로그램은 경허 선사가 주석 · 수행했던 해인사 범어사 월정사 수덕사 개심사 천장사 서산 부석사 등을 여행하며 경허 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선찰 답사 형태로 진행된다. 또, 선서화전 및 유물 전시회에서는 경허 선사의 작품뿐만 아니라 선미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스님들의 작품이 초대된다.

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은 "2012년은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조계종 창종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 선양사업을 통해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를 재조명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련불교재단(이사장 원택)은 한국불교사의 거목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스님의 생애 · 사상을 조명해 온데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100년은 20세기 한국 역사와 한국불교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스님의 사상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철 스님이 1981년 1월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며 내린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열반 20여 년인 지금도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관련기사 A3 · 21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사홍서원 알면서도 기복 53%

본지 신년특집 '사홍서원' 설문조사

불자들은 법회 등 의례 때마다 독송하는 사홍서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서원, 보현보살 10행원 등 별원(別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불교가 기복불교라고 오해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많은 불자들이 복을 빌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자기수행에 중심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불자들 대부분은 각자의 서원을 갖고 있고,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대승적인 서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2012년 신년특집 기획 '서원의 종교 불교, 함께 행복합시다'의 일환으로 구랍 10~25일 불자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직접 대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불교가 자기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서원하고 발원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268명이 그렇다(89.3%)고 답했다.

사홍서원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학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86명이 '그렇다(62%)'를, 114명이 '아니다(38%)'라고 밝혀 신도 기초교리 교육을 강화하거나, 한글 의례 보급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서원, 보현보살 10행원 등 불보살의 서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28%인 84명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불보살에 복을 빌고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53%인 159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정진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불보살님께 발원하고 서원을 다짐하느냐는 질문에는 240명(80%)가 '그렇다'고 답했다.

불자들은 대부분(88%) 서원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 대상은 가족(37%)〉자신(30%)〉사회(25.5%)〉친구 등 이웃(7.5%) 순이었다.

김응철 교수는 "불자들이 이미 성숙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공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불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원을 불자 자신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 · 이웃 · 사회로 확장시키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 자신의 공덕을 대중에 회향하는 신행 문화가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이 신앙의 귀의처를 넘어 신행활동의 장으로 더 자리매김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2 B1·2·3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자비광명이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2012년 신년 특집호 52면 발행

A 종합
사홍서원 설문 분석 2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3
다시 듣는 법정 스님 법어-행복의 비결 5
각종단 신년 법어 7·8·9
불교와 정치 11
하나의 삶 12·13
스승과 제자 – 새아침 법담
현성 스님 · 마가 스님 16·17
육조 혜능 발자취를 따라 19
불교계 전망 2012 21

B 특집 · 서원의 종교 불교-함께행복합시다 1·2·3
사홍서원
나의 서원 · 임진년 발원 6·7
서원의 성지 경주 남산 10·11
불교와 용 13
금메달 발원 불자들 19

壬辰年
謹賀新年

자성과 쇄신 결사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종회의장 보 선 호계원장 법 등
교 육 원 장 현 응 포교원장 지 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석굴암 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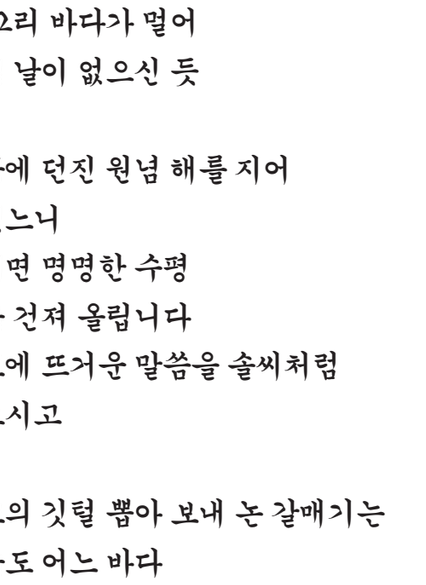
오현 스님

토함이 떠갑니다 동해 푸르름에
편주의 사공인 양 대불은 졸립니다
하 그리 바다가 멀어
깨실 날이 없으신 듯

허공에 던진 원념 해를 지어
밝혔느니
밤이면 명명한 수평
달을 건져 올립니다
진토에 뜨거운 말씀을 솔씨처럼
묻으시고

사모의 깃털 뽑아 보내 논 갈매기는
오늘도 어느 바다
길을 잃고 도는 걸까
무량심 파도로 밀려 무릎까지
오릅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오현 스님은… 경남 밀양 출생.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 시집 〈심우도〉 〈아득한 성자〉 등. 정지용 문학상. 공초 문학상 등 수상. 현재 설악산 신흥사 조실.

“새해 공생의 지혜 모으자”

불교 각종단 종교지도자들 신년사 발표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아 종교 지도자들이 신년 메시지와 법어를 발표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급서로 인한 정세 불안과 2012년 진행예정인 선거를 앞두고 평화와 협력의 지혜 찾기를 강조했다.

불교계에서는 우리 사회가 올해 겪었던 갈등과 분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비와 나눔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회화합에 앞장서기를 기원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여러분의 눈앞에 좋은 날을 만드는 묘용(妙用)이 있으니 버린 자는 얻고 취하는 사람은 잃습니다”며 마음 속 본래 자리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또 “치우치면 일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융통하면 걸림 없는 자재를 얻을 것입니다”라며 임진년 한 해 동안 대중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새해 두 번의 선거와 북녘에서 전해진 세연이진(世緣已盡)의 소식이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들로 기다리고 있다”며 지혜로운 선택과 선업공덕을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들도 “승천하는 용의 기상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자”며 불자들의 활약과 국민 모두의 화합을 발원했다.

이웃종교계에서도 2012년 새해를 맞아 종교화합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눈앞의 이익을 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평화와 기쁨의 삶을 기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는 “북한의 정세변화와 상관없이 화해와 상생,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새해가 갈등과 분열의 골이 메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경산 원불교 종법사도 “각자 각자가 공익의 참 주인, 세상의 큰 주인으로 이정표가 되고, 공익정신은 한층 넓은 길을 개척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7 · 8 · 9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구니 스님들 “참정권 강화” 요구

현행 10석인 의석수 확대 논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정권 강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구랍 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스님들은 현행 10석인 의석수 확대를 위한 방안과 비구니 관련 부서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세간에서는 선거 때마다 여성 의원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여성 할당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의석수 확대 요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비구니 스님들은 중앙종회 의석 중 비구니 스님의 비율이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종헌 기구 중 법규위원회, 초재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전무한 상태다. 종헌에서는 위원회 참여 자격을 ‘비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구니 의석수 확대는 비구 스님들의 반대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비구니 스님들은 1월 중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님들은 앞으로 몇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중앙종회 비구니회 회장 일운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한 비구니의 역할을 먼저 점검한 뒤, 비구니 위상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창원 봉림사 도서관 불서기증식

조계종 문화부 · 불교출판협회

창원 봉림사(주지 시진)에 불교도서읽기 문화 확산을 위한 8번째 사찰도서관이 들어서 구랍 22일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이 열렸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 공동 주관으로 마련돼 불교출판문화협회 기증본 700여 권의 불서 및 기증서가 전달됐다. 봉림사에는 ‘부처님글사랑’ 현판도 부착됐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까지 ㅂㅇ림사를 비롯해 군포 정각사 등 8곳의 불서사랑 사찰 도서관을 선정해 지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학생인권조례 정착이 더 중요

종자연 등 실천지침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불교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 정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작업을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구랍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학생의 종교인권보장을 명문화한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의 강제 종교교육으로 고통 받아 온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도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조례의 정착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불교는 서원의 종교’ 알고 있다 89%

불자 300명 대상 조사…불보살 별원은 28%만 알아

본지는 구랍 10~25일 불자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직접 대면 조사 방법으로 사홍서원 등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 정도를 조사했다. 2012년 신년특집 기획 ‘서원의 종교 불교, 함께 행복합시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서 “불교가 자기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서원하고 발원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268명이 ‘그렇다(89.3%)’고 답했다.

또, 사홍서원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학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86명이 ‘그렇다(62%)’를, 114명이 ‘아니다(38%)’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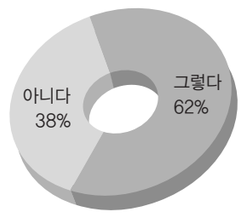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서원, 보현보살 10행원 등 별원(別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인 84명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불보살에 복을 빌고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53%인 159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정진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불보살님께 발원하고 서원을 다짐하느냐는 질문에는 240명(80%)이 ‘그렇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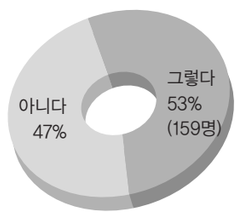
불자들은 대부분(88%) 서원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 대상은 가족(37%)〉자신(30%)〉사회(25.5%)〉친구 등 이웃(7.5%) 순이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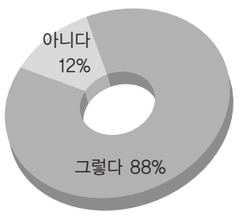
〈사홍서원 이해 및 체계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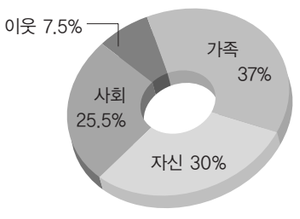
〈기복 기도 여부〉



〈서원의 유무〉



〈기복의 대상〉



대한불교원효종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종 정 벽송
원로원장 창 해

총 무 원 장 향운
원 로 위 원 법성, 혜담, 호성, 해초

중앙종회의장 원봉
총무부원장 · 중앙심의위원장 운오

중앙종회부의장 진혁, 명관
중앙종회법규위원 지상, 상경, 성은

중앙종회법규위원장 지호
중앙종회사무총장 진산

중앙종회의원 옥운, 도명, 운영, 원각, 성원

서울종무원장 진산 부산종무원장 법웅 울산종무원장 운오 충남대전종무원장 일륜 강원종무원장 명운 충북종무원장 석암
전북종무원장 경오 전남종무원장 마명 경북북종무원장 성죽 경북남종무원장 심상 경남종무원장 법승 제주종무원장 법원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전국비구니부회장 자성 고시위원장 태운 교육원장 수혜 문화원장 효산 포교원장 태일
복지원장 인명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 성암 예경실장 법승 의전실장 대련 사서 상일, 상서

총무부장 상묵 사회부장 효달 교육부장 대각 문화부장 대호 재무부장 상기 복지부장 범일 사회국장 상천 교육국장 상오
복지국장 우담 재무국장 능인 문화국장 무해 규정국장 행길 감사국장 남수 포교국장 선법

중앙신도회회장 이웅균 중앙신도회부회장 김용태

전 원효종 종도 일동 합장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601호 전화 02)735-0501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 전화 052)262-6857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

12월 29일 기념사업회 현판식
세미나 · 선체험 등 사상조명

한국 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1849~1912)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선사의 업적 등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 · 집행위원장 주경, 이하 사업회)'는 구랍 29일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수덕사 주지)은 "경허 선사는 불교가 어려운 때 꺼져가는 선맥을 살린 선지식이었다. 불교 중흥을 이룬 당사자임에도 기행에 치우쳐 온전히 평가 받지 못해 열반 10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선양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을 위해 사업회는 ▷열반100주년 기념다례 ▷〈경허집〉 재출간 ▷학술세미나 ▷선서화전 ▷국제선수행체험 ▷백고좌법회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을 밝혔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다례는 6월 13일 경허문도와 전국 수좌스님 등이 모여 경허 선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전국 규모의 다례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 영정



기념사업회 현판식에서 기념사업회장 지운 스님

사업회는 기존의 〈경허집〉 및 〈경허평전〉 출간을 5월 중 기획 중이다. 수덕사에서 발간한 〈경허집〉을 저본으로 월정사본 통도사본 등 기 발간된 것들과 비교해 통합본을 발간한다.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은 "〈경허평전〉은 경허 선사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 선종의 대종장이자 한국불교 중흥조로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현장탐방과 다양한 채록을 통해 새롭게 재조명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경허학술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를 통해서는 경허 선사의 생애와 사상, 문학세계가 학술적으로 재조명된다.

선필로도 유명했던 경허 선사를 기념한 선서화전 및 유물 전시회도 3월 26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경허 선사의 작품뿐만 아니라 선미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스님들의 작품이 초대된다.

서울 화계사에서는 경허 선사의 간화선 정신을 담은 선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수행체험프로그램이 6월 중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경허 선사가 수행했거나 제자들에게 전한 화두를 간택해 외국인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형태로 열린다.

경허 선사의 삶을 영상으로 복원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경허 선사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를 탐방하며 선사의 모습을 그린다.

3~7월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등 선승들이 자신의 주석처에서 경허 선사를 위한 선법문을 여는 경허선 선양 법회가 열린다. 법회에는 각 총림 방장스님과 원로스님 등 50여 선지식이 법사로 나선다.

경허 선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문화기행 프로그램도 마련돼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행사는 경허 스님이 주석 · 수행했던 해인사 범어사 월정사 수덕사 개심사 천장사 서산부석사 등을 여행하며 경허 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선여행 답사 형태로 진행된다.

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은 "2012년은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조계종 창종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 선양사업을 통해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정각원 법당 닫집에 흑룡이 2012년은 흑룡의 해라고 한다. 동국대 정각원에 가면 천장에 조각된 흑룡을 만날 수 있다. 정각원은 경희궁 정전인 숭정전으로 1926년 조계사에 매각돼 동국대 법당인 정각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천장에 조각된 흑룡은 발톱이 7개이다. 칠조룡(七爪龍)은 황제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장식이다. 1899년 경희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병식을 하면서 자주국임을 의미하는 칠조룡으로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국민을 부처님으로"

결사추진본부 시민 무차 대회 계획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불교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산문을 활짝 연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구랍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사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결사 추진의 5대 실천과제와 3대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결사 추진을 위해 제시된 핵심 의제는 수행 운영 교육 전법 사회참여의 다섯 가지다. 종단과 추진본부는 결사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불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실현할 방침이다.

추진본부는 각 의제별 공통 논의 방향도 제시했다. '수행'에서는 청규의 제정과 실천, 종무행정의 수행을 통해 불교관과 수행을 다룬다. '운영'은 중앙 · 교구 · 사찰의 역할 확대, 사부대중 공의와 참여에 의한 운영을 논의한다. 종단운영의 자립과 현실적 대안 모색인 것이다. '교육'에서는 우리시대 불교인의 바람직한 이미지와 역할 및 일반인들의 불교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법'에서는 교구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단위 사찰과 젊은층 전법에 대한 전략을 다룬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대표적 사회참여 분야의 실천적 대안과 불교적 참여 모델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결사추진본부는 또 자성과 쇄신 결사 3대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3대 사업에서는 대중공사, 1000일 기도, 쇄신 전략사업 등이 2년 여의 추진을 목표로 실천된다.

'대중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 · 직할 · 교구 · 지역 사찰의 단계적 대중공사를 추진하며 온라인에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홍보용 핸드북 등을 제작한다. '1000일 기도'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한 1000일 기도 입재와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시민초청 무차대회, 사부대중 야단법석 등이 추진된다. 시민초청 무차대회는 월 1회 노숙자와 장애인 등을 총무원과 조계사로 초청해 기도를 하고 공양과 공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부대중 야단법석은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깨달음의 문제 및 현실적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다. '쇄신 전략사업'을 위해서는 5대 의제 중 사회참여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평화, 생명, 나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결사추진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계층들을 부처님 맞이하듯 환영하고 그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 주성원 기자**

종정 유시, 예경실장 작품 아니냐?

법안 스님 예경실장에 공개편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이 종정 예경실장에게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에 관한 종정스님의 유시와 관련한 진위를 묻는 편지를 발송했다.

법안 스님은 12월 28일 공개한 '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에서 "지난달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 유보되는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종단의 장래를 엄중하게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태의 본질을 확연하게 밝히고자 펜을 들었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의 종교평화선언과 관련해 종정 예하를 찾아 뵙겠다는 청에 예경실장은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도법 스님에 '불경 · 무례' 운운했다"며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궁금하고 답답한 것을 물으면 잘 물었다고 칭찬했지, 묻는 것 자체를 불경 · 불충 · 무례하다고 나무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더 이상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 예경실장은 더 늦기 전에 본인을 위해, 결사를 위해, 예하를 위해, 해인사를 위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발로참회 하라"고 당부했다.

또, 도법 스님에게는 "결사본부장 스님이 공개편지에서 짚었던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쾌한 해결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조동섭 기자**

제9기 교육위원회 구성

덕문·용학·일진·탁연 스님 등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최근 제9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덕문 스님(선본사), 용학 스님(범어사승가대학), 일진 스님(운문사), 탁연 스님(봉녕사승가대학), 김호성 교수(동국대) 등을 새로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8기 위원을 하다 유임된 종호 스님(동국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금강 스님(미황사), 주경 스님(부석사)와 함께 9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교 무	정 수
학 장	덕 민	재 무	종 천
선원장	종 우	사 회	종 민
총 무	종 천	포 교	성 요
기 획	정 문	호 법	각 천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불교잡지 '불광' 제2창간

판형 키우고 올컬러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

38년간 불교계 잡지를 대표해 온 월간 〈불광〉이 제2의 창간을 선언하며 새롭게 바뀌었다.

불광출판사(주간 류지호)는 구랍 26일 수송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신년호부터 판형을 키우고 올컬러로 발행하는 등 디자인을 바꾸고 문화 콘텐츠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월간 〈불광〉은 리뉴얼에 따라, 판형은 기존 150*210mm 크기에서 올컬러 171*248mm 크기로 더 커졌다. 7년 만의 판형 변경이다. 2005년 이전 판형은 1974년 창간 이후 22년간 4*6판(130*190)을 유지했다.

커진 외형 만큼 내용도 충실해졌다. 신년호부터는 ▷사회 저명인사들의 인연 이야기 '내가 만난 불교'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특집'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재미난 일상이야기를 다룬 '강원일기' ▷하지권 사진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지구촌 불교 성지' ▷차 전문가 지허스님이 전하는 '한국인의 차' ▷불교 예술가를 만나는 'ART & HEART'와 '명장의 고집불통(佛通)' ▷사회 이슈를 통찰해 보는 '사색의 뜰'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



제2창간 선언한 '불광' 신년호

보는 세상이야기 '법인 스님의 병 주고 약 주기' ▷전문가를 통한 고전의 재해석 '고전산책' ▷부처님 핵심 가르침을 꿰뚫어보는 '불교, 정확하고 명쾌하고 자유롭게 등 새로운 콘텐츠가 담긴다.

월간 〈불광〉 2012년 1월호에는 리뉴얼에 맞춰 특집 '불교, 옷고름을 고쳐 매다'가 기획됐다. 특집에서는 '화보-상도선원의 리뉴얼'과 미황사 불광사 보원사 등 사찰의 리뉴얼 기사, '도법 스님이 말하는 불교와 조계종의 리뉴얼' '대장경의 리뉴얼' '불교용품의 리뉴얼' 등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만난 불교' 코너에서는 최재천 변호사가 자신의 불교 인연담을 소개했다. 'ART & HEART'에는 패션디자이너 이기향 교수가 창조적인 패션 디자인 스토리를, '명장의 고집불통(佛通)'에는 누비장 김해자 선생이 인생과 누비 이야기를 전했다.

리뉴얼에 앞선 9월에는 아이패드 전용 버전을 출시해 어플 'Magazine Plus'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불광〉은 아이패드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콘텐츠 제공을 준비 중이다.

월간 〈불광〉 양동민 편집부장은 "〈불광〉은 불교전문대중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며 "불자는 물론 일반 독자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간 〈불광〉 제작비 상승 등을 고려해 구독료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독자 needs 모두 담았다

월간 '불광' 류지호 주간



"디지털 시대 시각화된 독자 구미에 맞춰 판형과 콘텐츠들을 개편했다."

월간 〈불광〉 류지호 주간은 구랍 26일 수송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불광〉이 '제2의 창간'이라 밝힐 만큼 외형·내용 모두 변화하기까지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컸다. 류지호 주간을 비롯해 양동민 편집부장, 유철주 취재팀장 등은 수백여 종의 국내외 잡지를 분석했다. 개편이 있기까지 주2회 3~4시간 이상씩 회의를 열었다.

3개월 동안의 회의 결과, 보여줄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디지털 시대에 시각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해 사진 등 화보를 강화키로 했다. 제작비 상승을 감안하면서까지 판형을 키우고 올컬러 발행을 결정했다.

류지호 주간은 "이번 개편은 대내외적으로 역사성과 전문성, 내용성을 인정받는 〈불광〉이 급변하는 디지털문명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경제문제 정통한 정치인 없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경기호전위한 불자 역할 주문



"경제 문제는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가 주최한 제35차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구랍 27일 강연했다. 템플스테이회관 문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선 소장은 저금리 고환율 감세 법인세 인하 등을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했다.

선 소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율 3%는 완전 고용상태에 가깝다. 대졸 미취업자와 파산한 자영업자가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된다. 한국은 2000년대 내내 실업율이 3%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증가한 일자리 50만개 중 49만개가 자영업 증가다. 직장에서 쫓겨난 베이비붐 세대가 생계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에 나선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고용대박이라고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선대인 소장은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세금혁명당을 발족하고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고 강조하는 이유다.

선 소장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결국 나라 살림살이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유능한 개인이나 지인 네트워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 풀뿌리 대중 동력이 결합될 때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자승 스님, 故김근태 고문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구랍 3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스님은 故김근태 고문의 부인 인제근 여사에게 "이시대 민주주의는 김 고문님 덕분이다. 종단도 슬픔을 같이 하겠다"고 위로했다. 박기범 기자

100자 뉴스

불국사 대웅전 등 3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경주 불국사 대웅전(慶州 佛國寺 大雄殿)',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慶州 佛國寺 架構式 石築)'과 '논산 노강서원 강당(論山 魯岡書院 講堂)'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구랍 30일 지정했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불교문화재 기초조사 사업의 하나로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금동불 자료를 모아 〈신라의 금동불〉을 발간했다. 책에는 황룡사지 등 경주 지역 내 신라의 옛 사찰 등에서 발굴된 86점에 관한 연구 자료가 수록돼 있다.(054)777-8853 조동섭 기자

조계종, 태국에 3차 구호대 파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태국 홍수피해 구호를 위한 제3차 구호대를 파견한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3차 구호대는 의료구호를 중심으로 1월 4~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을 단장으로 18명의 복구팀이 아유타야, 돈무앙, 나꼼파톰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와 지역사찰 구호활동을 펼친다.

한편, 태국 현지에서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본부 협조로 현지인 50명과 한마음선원 봉사대 10명, 재 태국 한인회 등 다양한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박기범 기자

광주전남불교전법단, 남북평화 위해 한마음 기도

광주전남불교전법단(공동대표 도제·원광)은 구랍 28일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행법스님(前 선덕사 주지), 법선·도제·원광·범능스님을 비롯해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길 위원장(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등 사회단체, 불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정기 전북포교사단장 취임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구랍 25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제6대 주정기 지역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과 금산사 포교국장 제환 스님, 전북지역 활동포교사,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등 200여 불자가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가연대, 이수덕 직무대행 체제로

김동건 상임대표가 사퇴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수장을 이수덕 공동대표가 한시적으로 맡게 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구랍 21일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수덕 상임대표가 정기총회 전까지 직무대행을 맡아 재가연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출가자 보험 가입시 수익자는 사찰로 지정을

종단 소속 승려의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귀속을 시행 중인 조계종이 지난 6월 입적한 현종 스님의 유증 내용 집행결과를 발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랍 27일 현종 스님(前 삼성암 주지)의 유언장 집행 내용을 밝히며 "종단의 유언장 제도는 스님들의 출가 수행생활 동안 형성된 삼보정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계종은 현종 스님의 입적 이후 금융기관 금융조회,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 스님의 예금 등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예금 1000만원은 조계종 유지재단에 귀속시키고, 스님 명의로 관리되던 삼성암 기금은 삼성암에 양도했다. 그러나 보험(공제)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공제보험 5000만원은 속가 상속인이 상속케 했다.

조계종 총무부는 "종단은 스님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사찰 또는 종단으로 지정토록 안내홍보와 행정지침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개인명의 통장이라해도 사찰 관련 재정인 것이 확인되면 후임 주지에게 정확히 인수인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다시 듣는 법정 스님 법어 – 행복의 비결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 피어난다

옛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했듯이, 도(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해야 한다. 지닌 것이 많으면 도에 대한 뜻을 잃어버린다. 가난해야만 도에 가까이 할 수 있다. 소유를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신활동을 자유롭게 한다. 소유에 눈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로써 족할 뿐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활을 최소한으로 단순화하라.

그리고 마음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라. 투명한 마음의 작용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과잉소비사회와 포식사회가 인간을 멍들게 하고 우리 시대를 얼룩지게 만든다.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지적했듯이, 인간은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모든 사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는 말한다. '신으로부터 조차도 자유로워져야 할 만큼 자유롭게 해방된 상태를 참으로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속과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 완전한 자유 '라고 그는 말한다.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얽히거나 매이지 않고 안팎으로 홀가분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전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개체에서 전체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있다.

요 근래 여러 곳의 선원에서 해제비(解制費)로써 막대한 돈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물량으로 넘치는 선원의 분위기와 이 땅의 선풍(禪風)이 우울하게 묻어온다. 명심하라. 수행자가 진리를 실현하려는 구도자로서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세속적인 사찰제도에서 벗어나 그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려보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종교가 아닌지를 냉정히 가려보라. 이것을 가려 볼 수 있다면, 승려나 사제 혹은 목사나 책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교회에 종교가 있다고 잘못 알지 말아라. 어떤 종교든지 일단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 종교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그때 그 종교는 더 이상 신이나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에 대한 변명이 되어버린다. 종교의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상징을 종교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신은, 부처와 진리는 이런 곳에는 없다.

지켜보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다.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지켜보는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짝을 내려다보듯이 거기서 초월해 있다.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니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켜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어느 것 하나 거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도 그 받아들인 안에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 삶은 영원한 현재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무슨 일이고 이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만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임을 잊지 말라.

행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깨닫는다고 했는가? 깨닫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굳이 말을 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 그러니 깨닫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옛 부처님과 조사(祖師)들은 한결같이 말한 바 있다. 본래 성불(成佛)이라고, 본래부터 다 이루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다. 본래 성불이라면 어째서 다시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닦지 않으면 때묻으니까. 마치 거울처럼. 닦아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럼 깨달음이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이 비어 있을 때, 이때 문득 눈부신 햇살이 내 안에서 비쳐 나온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닌 줄 알아라. 대오선(待悟禪)은 선이 아니란 말을 기억하라. 종교적인 여행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그저 늘 새롭게 출발할 뿐이다. 그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은 피어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 안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득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함께 지니고 있는 신비로운 세계다. 홀로 있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고독한 존재다. 그 고독과 신비로운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거듭거듭 안으로 살피라.

무엇이든지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성인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론은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진정한 앎이 될 수 없다. 남한테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차린 것이 아니다. 남이 겪어 말해놓은 것을 내가 아는 체할 뿐이다. 진정한 앎이란 내가 몸소 직접 체험한 것, 이것만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형성한다. 공부가 됐건 일이 됐건 전적으로 하라. 어중간한 것은 사람을 퇴보시킨다.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 안 한 것만 못하다.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기울여하라. 그때 자기 안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난다. 그 변혁의 과정에서 참된 자기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규칙적인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 우리가 아무 잡념 없이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곧 부처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드러난 것이다. 깊은 명상 속에 있을수록 의문이 가라앉는다. 안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에게 물을 일이 하나도 없다. 의문이란 마음이 명상하지 않고 들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진정한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밖에 있는 스승은 다만 우리 내면의 스승을 만나도록 그 길을 가리켜 줄 뿐이다. 받아들이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어 있으면 놓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말수가 적어야 한다. 말은 생각을 어지럽힌다. 낙엽으로 뒹구는 후박나뭇잎 치다꺼리에 수고가 많겠다. 늘어나는 빈가지에서 새봄의 싹을 찾아보아라. 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글은 제자에게 쓴 '수행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에 수록돼 있다



생각을 지켜보라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 가듯이
그렇게 지켜보라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라
삶은 영원한 현재다

누가 깨닫는다고 했는가
깨달음은 굳이 말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고
꽃향기처럼 풍겨 오는 것



맑고 향기로운 차향과 연꽃을 좋아하신 생전의 법정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1995년)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역경원장 :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사서실장 : 대산 혜산법종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정대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천산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남산
교육원장: 원광
교육부원장: 광덕
의식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규정국장: 영암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국장: 수산
감찰1국장: 무아
감찰2국장: 인산
감찰3국장: 봉산
비구니부장: 지성
총무: 묘현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홍산
강원: 덕산, 원산
복지: 정해, 보현
감찰: 본각, 련성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영산, 지해,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보덕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남종무원장: 혜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경남종무원장: 도홍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원광
부산중부종무원장: 정오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일봉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인권식 박국서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일 주 문



명정 장학재단설립

부산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구랍 22일 '꿈나무가꾸기 명정(明正)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공부방 장학사업 등을 진행한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성도절 법요식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 법혜 스님은 구랍 27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부처님 성도절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다.



쌍계사 어린이 겨울 문화체험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1월 13~15일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 문화캠프를 개최한다. (055)883-1901



자비의 쌀 전달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12월 22~23 논산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쌀 20포대를 전달했다.



조계사 임진년 정초 오복 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월 25일 임진년 정초 오복 기도에 입재한다. (02)732-2115



한국투명성기구 특강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은 구랍 30일 광주YMCA 백제홀에서 개최된 한국투명성기구 송년모임에서 '무소유와 공직자의 청념'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인각사 극락전 상량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12월 22일 인각사 극락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극락전 불사는 임진왜란에 불타 전소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중수다.



나눔실천승가회 사랑실은 봉사

나눔실천승가회 회장 성보 스님은 마산 사랑실은교통봉사대(지대장 홍의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백혈병 아동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금강대 2012 정기인사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교학지원처장 서문성 △불교학부장 최기표 △사회과학부장 고수현 △경영학부장 이운영 △글로벌인재학부장 장민호

"월정사 말사중심 운영 지속 강화"

정념 스님 3번째 주지
오대산 불교 발전 강조



"본사 주지로서 교구 안정과 말사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교구자치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 문명에 향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념 스님이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월정사 주지에 임명됐다. 스님은 구랍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자승 스님은 강원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념 스님은 "동계 올림픽의 문화 올림픽 승화, 의궤 제자리 찾기 등을 완성해 달라는 뜻에서 대중·산중 스님들이 힘을 모아주신 것 같다. 오대산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이 제23대 월정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강조한 주요사업은 말사중심의 교구 운영, 대중 공의에 입각한 원융·화합 교구 구현, 오대산 불교의 위상 확립과 승가오칙의 수행풍토 확산, 강원불교 위상 강화 및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 확립 등 크게 4가지다.

'말사 중심의 교구 운영'은 종단과 교구의 기반이 사찰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념 스님은 "종단과 교구, 지역사회에서의 지도력과 포교 강화를 위해서는 사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찰의 재정 안정을 높이고, 포교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말사 업무 및 종무 행정 지원, 1사찰 1프로그램 개발 등 사찰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 봉축행사가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중 공의에 입각한 원융·화합 교구 구현'과 관련해서는 공의 수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우선 추진한다. 교구 발전을 위해 경륜과 식견을 가진 대중 스님들의 참여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구종회 활성화, 교구 발전위원회 구성, 참여와 열린 종무회의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도제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수행 진작 체계 등이 마련된다.

정념 스님은 "오대산의 역사, 전통문화, 생태 자원들을 활용해 이를 추진하겠다. 한암가풍 확립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오대산 명상치유센터를 조성하고 명상중심의 불교수행관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문화, 교류 사업의 전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강원불교방송국 설립과 강원지역 전법단 창립, 학교 내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발족 지원 등 다양한 복지·문화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환수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조계종 신년 맞아 조직 재정비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원담 스님,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임명

조계종이 신년을 맞아 총무원장 특별보좌관과 교역직 종무원을 비롯해 공석이었던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재정비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랍 30일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단장'에 원담 스님을 임명하는 등 특별보좌단 개편 인사를 시행했다.

새롭게 임명받은 스님들은 '정무담당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정념 스님, '국제담당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도원 스님, '종책담당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대오 진화 덕문 스님, '수익사업 총괄담당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각운 스님이다.

자승 스님은 "종책특보들이 형식이 아닌 전문적 내용을 갖고 활동해 종단 발전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며 의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원담 스님



일감 스님

총무원장 특별보좌단은 유임된 미디어홍보담당 장적 스님, 사회담당 월공 스님, 전산담당 정범 스님, 신도시담당 허운 스님, 문화콘텐츠담당 법해 스님과 박기련 종책특보를 포함해 총 13명이다.

또 조계종은 이날 국장급 교역직 종무원의 인사도 단행했다. 총무원 재무국장에 현담 스님, 사서국장에 광전 스님, 전통문화원 사무국장에 탄공 스님이 임명됐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구랍 26일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결사추진본부는 중요한 기관이다. 각 부서와의 소통과 교감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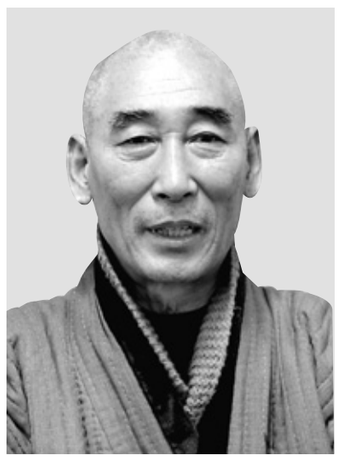
결사추진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은 "템플스테이 분야에서 보인 생각과 열정이 충분해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0년 해인사에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 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수행하고, 금산사 수련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보리사 주지이다. **박기범·노덕현 기자**

선암사 화합과 내실 역점

순천 선암사 제29대 주지에 설운 스님 당선



최근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를 인계받아 조계종과 태고종의 공동재산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 순천 선암사의 태고종 주지에 설운 스님(양주 기원정사)이 당선됐다.

순천 선암사는 구랍 28일 적묵당에서 열린 전산총회에서 제적인원 178명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22표를 얻은 설운 스님을 제29대 주지로 선출했다.

설운 스님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짐을 맡게 됐다. 대중들과 함께 화합해 선암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사모 모임 활성화와 지역별 신도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로한 스님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전 종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설운 스님은 주지 공식 업무는 1월 4일부터로 취임법회는 2~3월 경 열릴 예정이다.

설운 스님은 1946년 12월 6일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나 1961년 선암사에서 이지우 선곡대선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0년 선암사 전통강원 대교과 졸업, 1973년 선암사에서 묵담 스님으로부터 보살계 수지, 1974년 봉원사 옥천법음대학 3·4회 수료, 1975년 봉원사에서 묵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 수지, 1976년 봉원사에서 도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스님은 1998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제77·78회), 2000년 태고종 종무위원 사회부장, 동방불교대학 교수, 2002년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장, 2007년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전통의식대학 학장이며, 양주 기원정사 주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타 스님 세계평화상 수상 축하 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은관문화훈장과 세계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는 법회가 12월 28일경북 영천 거조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정기택 영천시의회 의장 등 불교계 안팎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법타 스님의 수상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법회에 이어 전통 사찰 음식 시식회를 갖기도 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타 스님은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최근 은관문화훈장과 세계평화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 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두 원로원원장 석법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무송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암두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서울중앙종무원장 석설정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원응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구미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보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봉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1부장 석금정 중앙포교2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보성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성원 연수국장 석함월 수행국장 석보각
수행특보 석성민 비구니국장 석지현 예능국장 석성암 의료봉사국장 석법천
포교국장 석성우

(사)생활불교조계종

창 종 주 석 도 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원
포교국장 석태룡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명보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국제국장 지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사천국장 여랑
대전부장 정대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포교국장 성견 창원국장 세현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버린 자 얻고 취하는 자 잃는다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위광(威光)이 얽매임에서 벗어나 만물을 비추니 귀천(貴賤)은 사라지고 만유는 존귀(尊貴)함을 얻습니다.

시방(十方)은 텅 비어 높고 낮은 벽락(碧落)이 없고 곳곳에서 막히고 걸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푸른 용(龍)은 대천세계 밖으로 뛰쳐 나아가고 사자(獅子)는 만길 봉우리 위에서 소리칩니다.

하늘과 땅은 황금빛을 이루어 눈앞에서 만 섬의 구슬을 쏟아내며 물이 대밭으로 흐르니 푸른빛이 우러나오고 바람이 꽃 속을 스치면 향기를 실어 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좋은 날을 만드는 묘용(妙用)이 있으니 버린 자는 얻고 취하는 사람은 잃습니다.

화복(禍福)을 다스리는 기용(機用)을 지닌 사람은 일기일경(一機一境) 속에 무생법락(無生法樂)을 나툴 것이요. 본분(本分)의 철추(鐵鎚)로 원통(圓通)의 문(門)을 여는 이는 마음 하나 가지고 새 우주를 지을 것이니 비우지 않고는 일체를 포용(包容)하는 기략(機略)을 얻을 수 없으며 낮추지 않고는 바다 밑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치우치면 일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융통하면 걸림 없는 자재를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날의 기틀이 눈앞에 있으니 만물은 옹색함이 없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있네.

지혜의 눈으로 참된 지도자 알아보아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임진년 새해가 성도(成道)의 새벽으로 밝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빛을 밝히신 날로 새해를 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가 스스로 가득하라는 심심상인(心心相印)의 뜻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두 번의 선거와 북녘에서 전해진 세연이진(世緣已盡)의 소식이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공존과 번영, 평화와 행복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공존과 상생의 날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을 분별하는 밝은 지혜의 눈으로, 국민이 찾으면 일궤십기(一饋十起)하는 참된 지도자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밝은 미래를 향해 진력하고, 시간의 한 편을 담당한 우리로서는 정확한 선택과 판단을 도리로 삼아야 합니다.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큰 미덕이지만 바르고 확실한 결단이 가시적인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오늘의 안개를 헤쳐가야 합니다.

민족 미래에 불자들 힘 하나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희망이 가득한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스러운 기운과 용기를 상징하는 용의 해에 이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국민생활이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를 향한 쉬지 않은 발걸음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더욱 단결해온 저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00만 불자 여러분!

금년 임진년은 힘차게 승천하는 용의 기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무심도인 돼 영원한 자유를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임진년(壬辰年) 벽두에 산문을 여니 유정무정(有情無情)과 산하초목(山河草木)이 전진(全眞)의 법체(法體)로 일불지경계(一佛智境界)를 삼습니다.

제법의 공상(空相)은 생(生)도 아니고 멸(滅)도 아니며 세간상(世間上)에 상주하며 모든 법위(法位)에 머문다 하였으니, 본디 범부와 성인, 정(情)과 비정(非情)이 따로 없습니다.

무릇 법계는 원적(圓寂)한지라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매, 다만 정이 있고 헤아림을 두기 때문에 일체중생이 거짓으로 그 이름을 기탁(寄託)합니다. 정이 망하고 헤아림이 끊기면 무슨 이름을 능히 세울 것입니까?

소리를 듣다가 문득 도임을 깨닫지만 도에 어찌 소리가 있으며, 색 빛을 보다가 문득 마음임을 밝히지만 마음에 어찌 색 빛이 있으리요.

고인이 이르시되, 유심하면서 평등함이 무심하면서 평등치 아니함만 못하니라 하였으니 올 한해는 사바세계의 일체중생이 낱낱 한분도 빠짐없이 무심도인(無心道人)이 되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祝願)합니다.

三界熱惱 猶如火宅 (삼계는 뜨거워서 화택과 같나니)
其忍淹留 甘受長苦 (무엇을 애착하여 미련을 둘까)
欲免輪廻 莫若求佛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若欲求佛 佛即是心 (불성을 찾는 것만 같지 못하리)
心何遠覓 不離身中 (불성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
色身是假 有生有滅 (육신은 거짓이어서 생멸이 따르지만)
眞心虛空 不斷不變(진심은 허공처럼 영원한 존재일세)

평등한 그 자리 그대로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평등한 그 자리 가고 옴이 없어라
信心不二 不二信心 (신심불이불이신심)
眞如法界 無他無自 (진여법계무타무자)
平等本際 非去非來 (평등본제비거비래)
一心妙圓 自照靈然 (일심묘원자조영연)

믿음은 가르는 것이 아니요, 가르지 않음이 믿음이니 참스러운 세계는 남도 없고 나도 없음이라. 본래 평등 그 자리에는 가고 옴이 없으니 둥글고 묘한 이 마음의 신령스런 비춤을 보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구름 위에 늘 빛나는 태양을 보아라. 마음의 끄트머리에 휘둘려 한탄하지 말라. 풍운조화 그 속에는 여의주가 있느니라.

희망의 반야용선 띄우는 한 해를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민족 · 문화 · 세대 · 종교간의 갈등은 더욱 폐쇄적이고 정치상황은 오리무중인 듯 혼란스럽지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우리를 보듬고 지혜광명이 길을 비춰주어 우리 사부대중의 슬기가 나날이 성장하여 흥법호국(興法護國)의 대원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예지가 지난 반세기간에 이곳 본산 구인사에 다 실현된 바, 임진년에는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쉼없이 이어나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천태종이 대조사탄신백주년을 통해 욱일승천을 점검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천태일화(天台一華)가 더욱 만개하여 임진년 새해는 앞으로의 새로운 백년을 기약하는 도약의 해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반야용선을 띄우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길러주는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갈등과 불화를 잠재우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 희망의 서원을 세웁시다.

부족함 더하고 넘침은 나누길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지난 한해, 우리는 인(因)지어서 과(果)받는 법계(法界)의 가르침에 물질과 정신의 이기(利己), 자만(自慢)으로 어리석은 진에(嗔恚)의 혼탁(混濁)을 더하였는지 돌이켜 참회하고, 이를 경계로 부족함은 수행으로 더하고 넘침은 자비로 나누는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의 나날은 안주하지 않는 진언행자(불자)의 정진이 되어 가족과 이웃, 국가사회의 신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에 전해질 불교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아 이기와 자만, 어리석음은 수행으로 다스리고, 수행의 덕(德)과 복(福)은 희사(喜捨)로 나누는 불교수행의 실천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 참회와 서원, 수행으로 복과 지혜 가득하시고 건강하시며, 부족함은 더하고 넘침은 나누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정토 구현하는 정진 쉼 없길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신대일(法身大日)의 서광(瑞光)이 사바세계에 충만하고 진각행자와 모든 불자들에게 서상(瑞相)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동해 진각성지의 서기(瑞氣)가 용트림하여 하늘을 오르고 동쪽 대한(大韓)의 정기(精氣)가 한강의 불가사의를 이루고 있으니 불법(佛法)의 수지(受持)와 육자진언 염송의 공능(功能)입니다.

탐욕으로 진심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이 이를 부추겨서 괴로움이 따르는 예토(穢土)라 하더라도

불법(佛法)을 체(體)로 삼아 세간을 다스리면 본래 안락의 정토(淨土)가 그 곳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지(心地)를 두텁게 하여 종지(宗旨)를 지키고 공(公)을 앞세우며 정도(正道)로 걸어가면

이웃 대중도 그 길을 따라서 종교 정치 사회 등의 갈등과 부조리를 극복하면 세속의 사사(私邪)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희망찬 임진년의 햇살이 밝고 따사롭게 세상의 만상을 평화롭게 살려가듯이 심인정법이 뭇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더 넓은 세상에 안온처가 되도록 정진합시다.

대비행으로 주변을 밝게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탐욕과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 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대립, 국가간의 분쟁은 더 큰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이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국가간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과의 부조화와 대립은 더욱 큰 재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한 결과로써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재앙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과 대립이 빚어낸 결과이며,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고(病苦)를 치유하는 길은 부처님의 대비정신(大悲情神)을 널리 펼쳐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므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고통없는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세계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한 해의 실천은 하루생활의 온전한 수행에 있습니다.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이요, 人人是好人(인인시호인)이며, 事事是好事(사사시호사)로다. 새해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벌어지는 일마다 좋은 일입니다.

'법화경' 영약으로 새 생명을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汝等有智者(여등유지자) 勿於此生疑(물어차생의)
當斷令永盡(당단영영진) 佛語實不虛(불어실불허)

지혜 있는 너희들은 어떤 의심도 품지마라. 마땅히 의심을 끊어 영원히 없앨 것이니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고 헛됨이 없느니라.

미혹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생들이 번뇌로 혼란에 빠지고 병에 들어 헤맬 때 부처님께서는 이를 낳게 하는 약을 지어 주어도 중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겨 유언으로 방편을 쓰고 중생들로 하여금 이 영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을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마음의 병,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병으로 우리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들어 준 〈법화경〉의 영약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임진년을 시작합시다.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해입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이며 당분간 그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참된 행복의 지혜를 갈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자신을 잃지 말고 슬기로써 헤쳐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정도를 받들어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을 펼쳐 나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덕이 충만하고 지혜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정직에 바탕한 소통 늘리자

법진 스님
선학원 이사장



지난해도 우리 교계는 애환이 교차하고 곡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대중과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병폐와 부작용이 따릅니다. 반면 지구촌 작은 생명 숨결 하나마저 소중히 여길 때 대승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은 중연소생(衆緣所生)이므로 여럿의 인연이 하나로 계합할 때 비로소 만물이 큰 힘을 얻고 군생(群生)이 축복의 삶을 삽니다.

조비천제부지천(鳥飛天際不知天)하고 어약상수미식수(魚若上水未識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구만리장천을 이리 저리 날지만 하늘을 알지 못하고, 고기가 물위를 뛰놀지만 물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중연소생의 이치를 모르므로 세상에 갈등과 대립을 키웁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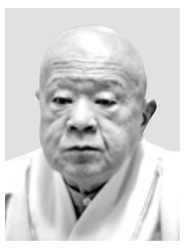
이러한 때 불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르면 정도가 솟아나고 생각이 삿되면 그르침이 따릅니다.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 건설은 바른 생각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대중과 사회와의 소통은 이러한 정직함에 기인해야 합니다.

언구(言句)가 따스하고 지행(知行)이 합일하는 순일함을 보여야 대중이 감동하고 사회가 따스하게 변화합니다.

만 가지 생명이 모두 개개의 부처님입니다. 임진년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남(指南)을 우뚝 세워 희망찬 내일을 열어 나갑시다.

융화해 평화사회가 될 것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일공



2556년 임진년 희망찬 햇살이 온누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국가 내지 전세계에 이르기 까지 圓通融和 되어야 한다.

圓通은 조금도 간격이 없이 둥글게 통한다는 뜻이다.

한기점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간격이 있으면 파탄이 올것이며 부모자식에게 간격이 있으면 天倫之親이 끊어지며 도와주는 人道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게 둥글게 통하는 곳에 만복이 따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모략 중상하는 곳에 백가지 재앙이 뒤쫓는다.

融和는 서로 단합하고 친선하며 서로 도와서 共存 供與하는 共同生活의 規範이다.

政治에 있어서 治者, 被治者가 서로 간격이 없이 融和하며 教育者, 被教育者가 서로 간격이 없이 融和하면 모든 공동생활체가 서로 융화하며 이 사회는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것이니 서로가 믿고 융화하여 새해 날마다 아침을 맞이함이 좋은 나날이 되기를…

집착 없는 이 근심 없으니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임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은 세상사에 다반사지만, 집착 없는 이에겐 근심 걱정도 생길일 없다오.

큰집이 천간이어도 밤에 누워 잘적에는 한평이요. 좋은 밭이 만이랑이 돼도 하루 돼면 족하다는데 육체는 무상하고 업보는 끝이 없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곁으로 부터 살아질 날 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네,

밤낮으로 부귀 공명의 집착으로 무상한 세월을 보내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사 되지말고 아침에 솟아 오르는 태양이 지난 밤 어둠움을 몰아내듯 욕망과 아집으로 그릇된 망상에 얼룩진 지난날들의 허물들을 제반사가 내탓인걸 참회 하면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복짓는일 많이하여 보람있는 한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온 인류가 화평 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에 행운의 빛이

율종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戒律(계율)이 淸淨(청정)하니
萬民(만민)이 우러러 보는구나
모든 修行者(수행자)는 청정하고
精進(정진)은 뭇세를 달구듯 하니

國家(국가)와 民族(민족)의 어려움이 가고
새해에는 만민이 正義(정의)로운 社會(사회)에서
평화롭게 살수있구나.
청정한 수행력 강화를 통해
세계 1등 국민, 더 큰 大韓民國(대한민국)을 만드는데
佛子(불자)들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幸運(행운)의 빛이 비추니
학이 한가롭게 놀고 한강은 유유히 흐르는구나.
밤낮으로 希望(희망)의 찬가가 울려 퍼지니
국가가 굳건하고 한 민족이 융창하도다.

어둠 몰아내는 지혜 밝히세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인간의 마음이란 그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부터 맑고 깨끗하고 때가 끼지 않은 진여의 理體와 한량없는 德用까지도 갖추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생. 불멸하고 고요하니 이를 自性 淸淨 涅槃이라 합니다.

붓다께서는 인간 무명의 장벽을 뚫고 위없이 바르고 큰 깨달음을 이루는 놀라움을 사바세계 만 중생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불제자를 자처하는 사부대중 모두가 제각기 갖추어 있는 자기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佛向上(부처로 가는 길)임을 자각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가의 화합과 평등사상으로 아상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쉼 없는 자기 향상(佛向上)을 통해 이제 어둠은 사라졌네. 어둠의 흐름도 사라졌네. 밝은 저 광명 저 빛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된다면 누구나 만끽하게 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 나의 빛이 될 것이기에 모두가 초발심으로 돌아가 정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용처럼 승천하는 한 해 되길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정각



法潭呼吸 新淸朝 噴出鼻端 翠霧煙
법담호흡 신청조 분출비단 취무연

願此霧煙 履三界 變成法雨 灑人天
원차무연 역삼계 변성법우 쇄인천

청명한 새해아침에 法潭이 호흡하니
코끝에선 푸른 안개가 연기처럼 뿜어낸다.

이 자욱한 안개 삼계를 덮어 놓았으니
甘露의 法雨를 人間에게 자욱이 내려주소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듯이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신묘년을 보내고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불자들은 용처럼 웅비와 비상,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안개를 박차고 승천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성불 합시다.

모두가 하나 되는 한해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새로운 한해의 새벽이 열린다 합니다.

날과 날이 이어지는 것 뿐 인데도 우리는 셈의 기준을 만들고 새해니 묵은해니 합니다.

기실은 매일 매일이 새날이요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을 어디에 새해 헌 해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 봅시다.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해 집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은 더 윤택해지고 서로의 아픔까지도 한품에 보듬어 안는, 그리하여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에게 감동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삶이 되게 합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우리가 있는 곳에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 짓는 국민, 그리고 올곧은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모두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의해 희망이 넘치는구나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雲歸峰翠屹 石立水聲虛 相與逍遙日 淸緣自有餘
운귀봉취흘 석입수성허 상여소요일 청연자유여

구름 걷히자 푸른 봉우리 우뚝 솟네
바위와 바위 사이로 물소리 허허롭고
서로 어울려 소요(逍遙)하던 날
청연(淸緣)이 저절로 남아 돌아 가더라.

임진년을 맞이 하며 힘들고 어려운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는 모든 중생이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이 솟아 오르는 태양은 모든 이들과 갈등과 경쟁심을 멈추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노력하는 것 마다 순탄하길 기원합니다. 즐거움만 넘쳐나서 룡해(壬辰)년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입을 지키라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불자님들 가정에 희망차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취하시여 임진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렵고 힘겨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는 본 종단의 사부대중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대원불교조계종의 발전이 상당히 향상된 한해 였습니다.

주리반특존자의 말씀에 "수구섭의신막범(守口攝意身莫犯)"

입을 지키고 뜻을 조심하며 몸으로는 계를 범하지 말라.

항상 입을 조심하여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열 번 생각하고 말하고, 몸도 생각하고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신구의를 잘 다스리고 덕을 많이 베푸는 한해가 되시고 새해 임진년에도 본 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함께 동참해 준다면 본 종의 발전은 나날이 향상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2012년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유덕(有德)하고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부터 바로서고 나서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나부터 청정한 마음과 몸을 지니고 수행할 때 온 세상은 모두 청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다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민족은 단일민족 국가로써 예로부터 하늘을 경배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슬기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조국의 발전과 숭고한 민족 평화통일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기도 정진합시다. 2012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누리에 고루 퍼지고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빌며 새 희망과 화합을 여는 해가 되길 발원합니다.

탐욕심을 버려 극락세계로

한국불교원융교단 법주 마정



작금의 세계는 도처에서 살생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독재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재스민 혁명으로 평등한 권리와 인권을 찾고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절대 권력자도 노병사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정권의 불확실성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블랙홀이 될까 세계는 노심초사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日日是好日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아는 자기만을 위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암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니 항상 좋은 날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한 생각 탐욕심이 끝없는 욕망의 세계를 만들고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이 악을 조성하며 한 생각 어리석음이 이기심을 키워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을 깨뜨리는 것이니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이웃과 사회와 세계가 모두 극락세계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한평생 허공에서 놀았구나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청련



法去亦無來　衣止空遊戱
處處因緣法　一切夢中夢
出生能不解　能悉業所得
處處亦不知　開示夢中夢
一生世間事　成悉隨因緣

南無阿彌陀佛

가고 오는일 모두 없는데
가는 곳 마다 인연법이라
태어남도 능히 알지 못하고
한평생 세상살이
허공에서 놀았구나
모든 것이 꿈속에 꿈이로다
모두 다 업으로 받은 바이라
꿈 가운데 꿈을 깨고보니
인연타라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나무아미타불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충만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온누리에 극심한 경제력 고통을 겪는 이러할 때 일수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며 중생들이 다 같이 잘 해쳐 나가야 합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마음을 비우시고 참회의 구현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 항상 나투시고 사랑 비원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와 더불어 중생들을 구제가호하여 줄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비로서 나의 행복과 가정 안위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常放大光明 크신광명항상 나투시고
慈悲愍衆生 사랑비원으로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照耀大千界 온 우주를 밝게 비추시는도다
喜捨濟含識 기쁨평등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도다

따뜻한 훈풍불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空山瑞雪? (공산서설비)
天氣?來春(천기선래춘)
朝日雪松照(조일설송조)
靑葉尤靑靑(청엽우청청)

빈산에 상서로운 눈 내리니
하늘은 새로운 봄기운 돌고
아침 햇살 눈 덮인 솔 비추니
푸른 잎은 더욱 푸르러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묵은 때를 벗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슴을 열어 따뜻한 훈풍을 끌어 안읍시다. 적당함을 지키는 중용(中庸)의 묘(妙)를 살려 지혜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은이 충만 하기를 기원합니다.

흑룡의 해 불자가 부인공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정허 신풍



萬山雪中紅日梅(만산설중홍일매)
諸人冬色不須足(제인동색불수족)

온산 가득한 눈 속 붉은 매화 한 점
겨울을 느끼기엔 모든 사람 그 것으로 족하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연이 오렸이 담긴 흑룡의 해 임진년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신념처럼 항시 자기를 낮추고 용의 기상과 같이 살아가시길 앙축하나이다. 불자여러분 임진년에는 누구에게나 함께하는 해이므로 잘잘못을 떠나 각하고조하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에 소원성불 합장 기원합니다.

용해는 귀 불자님이 주인공입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善 即言即行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법구경-

마음을 향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남이니 극락과 지옥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없는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 마음아닌 마음 한생각 일어남 없는 마음

이것을 도라 합니다. 도라는 것은 마음에서 찾지 못하고 몸에 있으나 몸에서 찾지 못하며 또한 마음 밖에서 찾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壬辰년 한해를 맞이하여 수행 정진으로 우리의 삶을 열고 그 공덕으로 이웃과 사회 모두가 복과 지혜로 넘치는 세상이 되길 합장 서원합니다.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임진년 새해에는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축복해 줍시다.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한마음이 되어 광명의 나날을 살아갑시다. 온 세계가 불난집에서 소꿉질하는 것 같은 삶이 중생들의 삶이라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나오는 길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나"라고 생각하는 이 질긴 밧줄로부터 놓여나는 길입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울 때 안보이던 것이 보이고 거짓된 내가 사라집니다. 참으로 밝은 세상, 우리들은 극락에 살면서도 어떤 이는 "나"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들어가고 어떤 이는 "나" 때문에 축생이 되어갑니다. 부처님은 거짓된 "나"로부터 깨어나 참나를 찾아 대자유인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모두 자유인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법륜의 수레에 다함께 타고가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선



보고도 못 본체 들어도 못 들은 척
법륜의 수레에 타고 그곳으로 가보자
거기에 가면 눈 귀 먼 동업중생이
그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기다리네
서로가 동체대비심을 전하는 진정한
법사가 되어 고통의 중생을 보살펴
따뜻한 세상의 훈풍을 다함께
느끼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음 없음이 참된 공부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萬里風來 하여도 山은 不動 이며,
千年水積 이라도 海無量 이니라.

만천하에 재난이 닥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성이요,
천년을 흐르듯이 염불을 하여도,
남음이 없는 것이 참다운 공부다.

부처는 항상 그자리

(사)대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청해



부처님 신묘년 가시는 길마다 중생들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짐 고이접어 들고 가시옵소서. 임진년 오시는 길마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고 오시옵소서. 가시고 오시는길 항상 그 자리에 있건만 중생들은 가고 오심을 그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비스러운 부처님 행복하신 부처님 즐거우신 부처님

중생들에게 고루 나누워 주시옵소서 부처님 가고 오시는길 행복하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다시 맑고 청청한 빛 비추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心月獨圓
光呑萬象
光非照境
光境俱亡
復是光明
외로이 빛을 발하는 마음의 달
광명이 온누리를 삼키니
광명이 비춤이 없고
경계도 사라진다
광명과 경제가 사라진 뒤
다시 맑고 청정한 빛 비추는 구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마음이 맑아 항상 명경지수와 같으면 천하에 혐오할 일은 저절로 사라지며, 자신의 의지와 기운이 화평하여 항상 좋은 날씨와 같으면 천하에 미워할 사람은 저절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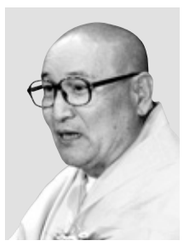
옛 성현들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결국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죽이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기에,

임진년 한 해에도 마음자리를 잘 공부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비분별 놓으면 부처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회암



目無所見 無分別
耳聽無音 絶是非
是非分別 都放下
但看心佛 自歸依
눈은, 보는 바 없어 분별심을 여의었고
귀는, 듣는 바 없어 시비심을 끊었네
시비분별 모두를 놓아 버리고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 본심으로 가라

정신차려 허튼길 벗어나자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임진년 동녘에 새해 다시 솟아나니
희망과 기대에 부푼 가슴 세인들게
새 귀인 출현해 이 백성에 용기주고
한민족 진운을 다시한번 발휘하세!
허튼소리 하다보니 사자소리 다 놓치고
몸 씨름 하다보니 좋은 기운 다 버리니
내 정신 내차려서 허튼길을 벗어나서
불핵의 진동소리 가슴으로 맞이하리!

연꽃세상 만듭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왔다갔다 왔다갔다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삼독(三毒)의 환자되었으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심으로 빨리 회복하여

오고감이 없는 세상 극락정토 모두가 다함께 갑시다.

새해에는 더욱더 삼학(三學)을 갈고 닦는 염불(나무아미타불)

행자되어 시시비비(是是非非)없는 세상 연꽃을 피웁시다.

우리 모두 베풀며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심곡



임진년 새해에는 서로 베풀고 또한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새해에는 용처럼 위풍당당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이 임제 바다 넘쳐

해동불교임제종 종정 지암



임진년 새해에는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기도합시다.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의 한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르네. 임제종의 할은 후학을 살리고자 힘이었다. 할은 당대 후학들을 깨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임제종 가풍)

임진년 한 해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과 몸이 선한 가운데

대한불교선종 종정 효담



生前不持 十八殃
살아 생전에 열여덟 가지의 재앙을 가지지 않을 것이면
死後十獄 不持苦
사후에 열지옥의 괴로움을 면하여 가지지 않을 것이니라
生前死後福樂期
생전과 사후에 복과락을 바라 영생불멸의 자리에 가려거든
心身在善慈佛他
마음과 몸이 선한 가운데 부처와 다를 바 없더라

마음비워 사물 바라봐야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블스님



佛谷 何寬闢(불곡 하관벽)
幽清 自劫前(유청 자겁전)
虛心 看物處(허심 간물처)
那箇 是平常(나개 시평상)

부처골 어찌 이리 넓게 열려
영겁의 이전부터 그윽하고 맑아
마음 비워 사물 바라 보는 곳
그것이 나로 평상의 마음

자비감로수를 베푸소서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세간적인 명성과 이익에서 벗어나 크나큰 불도의 위 없는 무상의 공덕을 깨닫고 일체중생의 반목과 탐욕의 갈증을 씻어 내는 부처님의 자비감로수를 베푸소서.

자성청정을 깨닫길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아무런 동요가 없으며 능히 일체 만법을 만들어 내거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단지 나의 분수를 알고 세상이 화평하기를 바랄 뿐..

염불 생활화로 복된 한해를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염불하는 마음은 밝은 마음이여 밝은 마음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매일 십념(나무아미타불 10번 이상) 염불을 생활화하여 어두운 마음 밝히고 베푸는 마음을 써나감으로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과 복된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고통과 어려움은 잠시잠깐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어둠이 지나면 여명의 아침이 밝아 오듯이 고통과 어려움도 잠시잠깐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 자취를 감춥니다.

임진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 할 것을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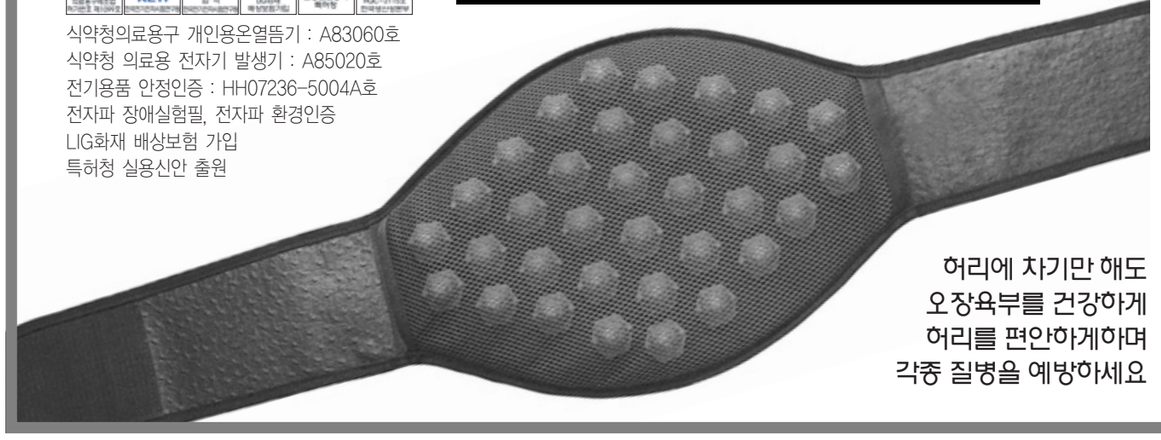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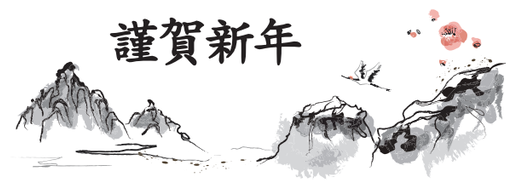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謹賀新年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 외
직원일동

우) 641-84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38번지 덕산빌딩 301호
전화 055-285-9383
http://www.ripl.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慧草**

宗正禮敬室長 淸光

僧正院 院長 南坡
副院長 寶峰
副院長 法藏

總務院長 印空
副院長 靑峰
總務部長 能解
教務部長 道珍
財務部長 慧山
文社部長 智虛
糾正部長 端峯

元老會議 議員一同

中央宗會 議長 島山
副議長 慧空
副議長 祥河

護法院長 芸谷
副院長 一雲

종도일동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총무원
총무원장 직무대행 김무원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교육부장 김세운
재무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오안산
규정부장 김영제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산
종의회부의장 정명구
최인규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조용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부이사장 전운덕
참의원장 권영철
중앙신도회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정병조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己亥新年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진언향기 가득한 참 세상 구현되길 서원합니다.

총인 성초

사서실장 덕정

통리원장 혜정
총무부장 무외
총무국장 일상
기획국장 재수
전산국장 대원
재무/전설부장 상수
관재국장 덕정
건설국장 원법
포교부장 정주
포교국장 각정
문화사회부장/국제불교연구소장 명당
문화사회국장 성원
전승원건립추진 팀장 혜제
전승원건립추진 건설담당

교육원장 경정
교법부장 지담
교법국장 혜천
교육부장 관경
교육국장 법

종의회의장 혜명
부의장 일석
부의장 경일
사무처장 관명

사감원장 증광
사감부장 혜언

진각대학원장 수성
교학처장 혜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대도

불교총지종

임진년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새해 더욱 발전하는 정통 밀교 종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지성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사감원장 법상인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성

총무부장 인선
재무부장 시정
교정부장 수현
사회부장 우인
법장원 일동
밀교연구소 일동
사회복지재단 일동
통리원 임직원 일동

서울경인 교구장 시정
부산경남 교구장 지광
대구경북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 교구장 법우
각 사원주교 일동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만덕장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신인록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권오남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총지종보
종보통신원
미타회
장기요양센터
바라밀 공부방
효사랑 상조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02)552-1080~3 전송 02)552-1082
http://chongji.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종정예경실장 대천

원로원장 성인
원로원 선명. 신수. 정각. 법성
승정원원장 평신
중앙종의회
종의회 의장 송운 종의회 부의장 보운
의원 보각 태상 도현 진월 진조 혜은 법성 의성 지문
총무원부원장 승덕 총무부장 정안

교육원장 해안 규정원장 도현 문화원장 혜광 포교원장 담원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진월 사업부장 태상 중앙비구니회총무 체진
국제포교부장 도우 체상

부산종무원장 해주 전라종무원장 각우 충청종무원장 의성 경남종무원장 우담
경북종무원장 도경 경기종무원장 정안 강원종무원장 보원 제주종무원장 원각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奉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더욱 뜻 깊은 「임진년」을 맞이하겠습니다. 祝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178-3 / T :02)763-0054 / F : 02)763-5851 www.kwanum.kr

총선과 대선의 해 – 정치 발전 위한 불교의 역할

“패거리 만들지 말라”…공정 선거 앞장서자

2012년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두 번의 큰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불교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에 대구에서 개최된 범불교도 대회에 참여한 스님들이 정치권의 종교편향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불교는 언론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전통문화보존을 이유로 산문을 폐쇄하면서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었고, 불교인 종교평화선언 추진이 많은 내부 갈등과 논란을 겪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실시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총무원을 예방하고 다양한 불교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연말에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과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발언이 세간에 화제를 모으면서 두 스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언론에 보도됐다.

산중 사찰의 이미지가 먼저 연상될 만큼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불교와 스님들이 정치적 사건과 연계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모은 것이다. 그만큼 불교의 사회적 활동이 다양해졌고, 세간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사회 현상에 무관심 했던 불교가 적극적인 발언을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의 대형 선거가 예고된 올해, 불교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치 발전을 위한 불교적 역할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성철 스님도 간접적 사회 참여

불교는 세속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 성철 스님은 세속과 거리를 둔 채 혹독한 수행과 계율을 지키며 살았다. 불자들과 국민들은 그런 스님의 모습을 존경하며 가슴 속 깊이 선사적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사회 현실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간화선사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4차 학술 포럼이 열렸다. 발제에 나선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은둔자적 모습과 달리 스님은 현대 학문을 섭렵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순 우리말 법어를 발표하는 등 항상 세간을 예의주시했다”고 밝혔다.

성철 스님은 해외 신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익혔는데,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사회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 하고, 각 종 사회적 의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실이다. 불교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종단과 스님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님들 중에는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지만 아직까지 불교계 안팎에서는 스님들의 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해 11월 1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은 한국 불교가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전통문화 계승’(49.3%)이라고 답했다.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은 각각 1.4%와 4.7%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종교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응답은 1% 이하로 더욱 낮았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70.7%는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스님의 역할로 ‘수행에 전념’을 꼽아 사회지도자보다는 수행자로서의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전 속 부처님의 정치 의식

해마다 선거철이면 불교계는 후보자들의 불교 관련 공약을 검증하고, 불교 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을 요구해 왔다. 특히 현 정권에서 사찰 땅 밟기와 각종 훼불 사건 등 종교편향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불자 정치인, 불자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갈증은 더욱 심화됐다.

그러나 후보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다는 불교 공약에 집중하다보니 불교계는 선거철이면 정치에 쉽게 영향을 받는 ‘표밭’으로 인식돼 왔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는 여당의 노태우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까지 일어난 ‘봉은사 사태’가 발생했다.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는 상무대 80억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종단 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탁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선거철이면 스님들과 정치계와의 결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달리 정치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는 한국 대표 종교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치 발전이 중생 제도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의 정치 인식은 〈최초자경〉 〈전륜왕사자후경〉 〈구라단두경〉 〈육방예경〉 등 다양한 경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장아함경〉은 부처님의 정치 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은 〈장아함〉 2권 제2경 〈유행경〉에서 칠불쇠법을 설하면서 나라와 불법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칠불쇠법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약하는 일곱 가지 법이다. 칠불쇠법에서는 ‘패거리를 만들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 ‘아무 덕이 없으면서 자랑하지 말라’, ‘악한 사람과 짝하지 말라’ 등을 설하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무리를 지으면 국가적으로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덕이 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악한 사람과 짝을 지으면 구렁텅이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의미다.

부처님은 “아난다여, 칠불쇠법 가운데 한 가지만 잘 지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일곱 가지를 다 지킨다면 그 나라는 더욱 안온하고 강성해 누구의 침략을 받아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했다.

또한 국왕이 지녀야할 10가지의 덕을 제시한 〈증일아함〉 제42권 ‘결금품(結禁品)’은 통치자의 품격과 자세, 정책의 원리에 관해 말하고 있다.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전에 담긴 교훈 속에서 정치 발전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혁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2006년 불교평론에 기고한 ‘17대 대선 불교계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서 불교가 불국 정토를 구현한다는 교리에 따른 불교의 역할을 주문했다.

손혁재 교수는 “불자들은 불자 후보라든가, 불교 공약을 따져보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종교가 사회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정치도 살아 있는 중생으로 봐야한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장 법응 스님



“이번 선거에 앞서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때 불교가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장 법응 스님(사진)은 올해 불교가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로서의 본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혼란한 사회를 살고 있는 국민과 불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응 스님은 또 최근 일부 스님들의 발언이 정파적으로 치우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스님은 “정파와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종교적 입장에서 치우침 없는 내용이라면 정치 현실에 대해 스님들도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교 분리가 종교가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무관심한 영역에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와 정부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보고 중생 제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응 스님은 “정치 발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베푸는 정치가 중요하다면 불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불교적 언어와 방법론 ‘중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사진)은 스님들의 정치적 발언에 반대하지 않지만 ‘불교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현 스님은 “교단이나 승려가 정당의 당원의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승려라도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은 가능하다”며 “문제는 불교적 언어와 방법론에 기반한 철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율상 정치 개입은 명백한 파계 사유지만 불교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정치 발전을 위해 종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법현 스님은 “수행자는 수행자의 길을 가야한다”며 “그러나 현실적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시민사회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할 것”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올해 격동의 시기가 될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올해 치러질 두 차례의 선거에서 불교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사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존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집행위원장과 불교시민사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집행위원장은 불교의 세속화와 권력화를 경계하면서 잘못된 정치 현상에 대한 꾸짖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과거에는 후보자들의 불교 공약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불교가 특정 정치 권력과 밀착해 이익을 추구하는 일 없이 세상을 걱정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종정실 경호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윤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지혜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석법오
석혜명 석연하 석대명
석종률 석법인 석법륜
석경민 석정진 석청진
석효인 석여일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교육위원장 능오 김원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범패, 육효, 학인모집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내가 다름없다면 '날마다 좋은 날'

'하나의 삶(Live As One)'을 위하여

2012 런던올림픽 슬로건

7월 27일 세계가 런던에서 하나가 된다. 2012런던올림픽으로 한마음이 된다.

근대 올림픽을 부활케 한 쿠베르텡은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데 있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강령만 봐도 오늘날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만이 중시되는 세태에서 올림픽 정신만큼 아름다운 것도 보기 드물다. 때문에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문화활동이다. 다섯 대륙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올림픽의 좋은 개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올림픽 경기를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다. 세계대전 중 독일은 나치 사상 전파에 올림픽을 악용했는가 하면, 냉전시대 이념 대립을 더 첨예하게 촉발시키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을 나누며 세계를 차별화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아름다운 것은 스포츠를 통해 인류를 하나로 묶어왔기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기간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동안에도 인류는 화합과 평화를 쉼 없이 되뇌였다.

공존과 상생 · 화합 메시지
자타불이 동체대비와 상통
불교계 이웃종교와 교류 지속

2012런던올림픽 슬로건인 '하나의 삶(Live As One)'은 전세계에 만연한 갈등과 분규에 전하는 공존과 상생, 화합의 메시지이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인 자타불이(自他不二) 동체대비(同體大悲)와도 다르지 않다. 동체대비는 나 외에 모든 존재도 내 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해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동체대비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난다. 여기에서 공은 텅빈 상태가 아니라, 번뇌 망상을 모두 정화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처님은 연기(緣起)를 강조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이는 오늘날 세계가 서로 별개로 존재하면서도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최근 태국의 대홍수가 발생했으나 그 피해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이 함께 입었다. 컴퓨터 핵심부품인 하드디스크를 제조하는 주요 메이커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한 까닭에 수해로 생산이 중단됐고, 결국 컴퓨터 사용자들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구 반대편 아랍의 정세 불안은 곧장 유가상승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수년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가 오늘날까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 봐도 전세계 국가들은 절대 서로 상관없지 않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갈등의 봉합과 화해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갈 길은 멀다.

종교간 하나의 삶이 필요하다. 불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스님들이 이웃종교인들과 교류해 오고 있다. 생명평화결사 도법 스님, 종교위원장 김경일 신부, 부운영위원장 김민해 목사의 종교를 초월한 우정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도 수유1동 성당 정무웅 주임신부, 송암교회 김정곤 담임목사 등 강북지역 종교지도자간 종교평화 실천도 눈에 띈다.

부처님 자비 실천의 방법으로 다문화활동을 하는 불자들도 많다. 그 예가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 스님과 천태종 서울 명락사 무원 스님, 다문화가정 자립 음식점 설립한 성원 스님, 다문화모자가족 돕기 등 펼치고 있는 진오 스님 등이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하나의 삶 또한 강조된다. 고소득과 저소득, 사업자와 근로자, 남과 여 등 계층별 갈등 해소에 필요한 지혜 · 나눔이 절실한 때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100일 법문으로 세상과 소통한 정토회 법륜 스님, 트위터로 세상과 소통하는 혜민 스님, 선재지역아동센터장 상덕 스님 등 다수의 스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의 삶'은 학문간에도 필요하다. 최근 독자적인 영역을 허문 '통섭'이 학문의 경향이다.

'하나의 삶'을 사는 지혜, 부처님 가르침을 나와 내 주변에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은 정토가 돼 있을 것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대화협력에 불교나서

종교평화

2011 신묘년(辛卯年)은 유독 종교계에서 잡음이 많았던 해다. 종교간 갈등과 종교 내부의 다툼으로 '성(聖)이 속(俗)을 걱정해야 하는데 속이 성을 걱정하는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간 대화와 협력, 평화 공존에 대한 노력도 적지 않았다.

불교계, 타 종교계에 먼저 손 내밀다

수년 전부터 진행된 종교간 갈등 원인에는 개신교의 공격적인 포교방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조계종이 먼저 종교화합에 손을 내밀었다.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본부장인 도법 스님은 8월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우리 불교인은 이웃 종교를 진정으로 이웃으로 생각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 선언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런 와중에도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국내 7대 종단 대표는 9월 사상 첫 북한을 동시에 방문해 남북 화해와 단합을 위해 북한 종교인들과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화해의 노력을 이어나갔다.

사랑과 자비 전달에는 종교 구분 없어

종교간 화합에는 서울 한 성당과 교회, 사찰이 함께 진행한 소외된 이웃들 돕기가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바로 11년째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함께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화계사와 수유1동성당과 송암교회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정무웅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유1동 성당 주임신부, 김정곤 한국기독교장로회 송암교회 목사는 매년 12월이면 3개 기관을 돌아가며 '난치병 어린이 돕기'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들 3개 종교기관이 지역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손잡고 나선 것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그동안 연합바자회 등을 번갈아가며 주관, 해마다 20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

평화와 자비, 사랑을 전한다는 대의 앞에 종교 벽은 없다
MB조찬기도 등 종교편향 정국에서도 화합의 노력은 계속돼
제주도 평화섬 정착, 북한돕기, 세계 구호 등 연대 기대

해마다 여는 바자회에는 각 종교기관의 신앙인들과 기업들이 내놓은 물품들이 값싸게 판매되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도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연합바자회가 진행될 당시에는 타 종교와의 연합행사라는 이유로 각 종교 내부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 뜻과 취지 앞에 종교의 벽은 허물어졌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불교에서의 극락도 모든 존재의 가슴속에 사랑이 넘쳐날 때 구현되는 것"이라며 "사랑은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이웃에 퍼져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종교인평화회의' 창립대회 기념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여주 신륵사, 동수원교회, 원불교 수원교당 합창단의 종교 간 벽을 허무는 화합의 하모니에 종교 앞에 너와 나가 따로 없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사실 이런 종교간 화합의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평화결사 운동이다. 도법 스님과 김경일 신부(운영위원장) 등이 주축이 된 생명평화결사단(단장 권순용)은 2011년 3월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해 다시 100일 전국 도보순례길에 올랐다. 지난 2001년 지리산 댐 반대, 2004년 제주 평화의섬 기원에 이은 것이다.

2012 종교평화지수, 종교평화법 제정될까? 학계 연구 지속돼

종교계의 노력과 함께 종교평화를 위한 정부, 시민사회계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이중 한국종교연합(URI Korea)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종교평화지수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2012년 발표될 종교평화지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종교 간 평화, 갈등, 분쟁 등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한 해 동안 종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수치화한 것이다.

종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종교에만 맡겨놓지 않고 시민사회가 직접 챙기겠다는 시도다.

이찬수 강남대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연구자(종교학자, 철학자, 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종교평화지수 프로젝트는 2011년 5월에 첫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총 4회 학술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정부 또한 국내서도 날로 심화되는 종교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0일 '종교 간 이해 증진 및 평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가칭)'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결과 "종교차별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보다 쉽게 신고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종교 간 존중과 배려를 위한 제도, 또는 보충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보고됐다.

종교평화법 제정은 사법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2012년의 화두로 자리할 전망이다.

2012년 용의 해, 한반도 평화와 우리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는 일에 종교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다"는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큉(Hans Kng)의 말처럼 2012년 각 종단의 평화선언과 함께 종교화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 제 포 교 사 (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24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신청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서류마감 : 2012년 1월 20일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동 참 금 : 210만원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사회통합



2012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교수의 가장 큰 장점은 소통이다. 안교수가 진행하는 청춘토크쇼.

올해의 화두는 소통으로 사회통합

2011년은 계층간 대립과 갈등이 유난히도 심했던 해다. 무상복지 찬반론,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등은 여·야간 당파싸움의 좋은 논쟁거리가 됐으며, 보수·진보의 이념대립과 고소득·저소득, 노·조 등 계층·세대간 대립과 갈등은 언론매체들의 좋은 1면 기사거리를 만들어줬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2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다음 대통령의 과업으로 사회통

법륜 스님은 대중강연으로
혜민 스님 트위터로 신세대 소통
도법 스님 사회 소외계층 돌봄

합을 꼽은 비율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최고경영자 가운데 거의 절반(43.9%)이 '성장'을 꼽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를 갈라놓기는 했나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구랍 30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모두가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불교계에는 계층간 갈등을 좁히고 소통과 나눔으로 화합하려는 활동가들이 있다.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정토회 지도법사)은 2009년 가을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100회에 걸쳐 대중강연회를 개최했다. 법륜 스님은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등지에서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의 해답을 제시하는 즉문즉설 법회를 진행해왔다. 스님이 이끄는 평화재단은 지난 여름 100일 간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원장을 청춘콘서트의 진행자로 초청해 20·30대들에게 희망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 세상과 소통케 하고 국가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도 했다.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은 트위터로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한다. 팔로워만 8만명이 넘는 스님은 트위터에 짤막한 불경 구절이나 법문을 남겨 팔로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스님의 트위터 공간은 종교와 세대를 초월하는 곳이다. 가수 루시드폴과 연예인 홍석천·윤복희 씨를 비롯해 신경숙 작가, 홍정욱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시도한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2011년 8월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찾아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만 해결을 촉구하며 108배를 올렸다. 또한 전경련과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태해결을 촉구한 스님은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며 "이 문제를 이웃과 동반자 정신으로 풀어낼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성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재지역아동센터장 상덕 스님은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방임될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상덕 스님은 복지를 표방한 종교행위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상덕 스님은 문수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해 교계 지역아동센터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 스님은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 어린이들을 보호, 교육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다문화



봉은사에서 진행된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 다문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다름을 인정할 때 '세계일화'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직면해 불교계에서도 외국이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외국 유학생, 탈북 새터민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010년 11월 열린 서울G20정상회의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어린이합창단'이 갈라 디너(gala dinner)쇼 공연을 펼쳐 화제가 됐다. 한국

불교계 주축 한국다문화센터 설립
각 사찰 맞춤형 다문화 복지전개
타종교 비교 미흡, 선교 우려

다문화센터(대표 보선)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합창단은 초·중학교 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자 여러 종교단체와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2008년 12월 4일 설립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 등을 주축으로 설립초기부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대학 특례입학, 국회 다문화포럼 설립, 레인보우 합창단 창단, 이중(二重)언어 경진대회, 중도입국자녀 예비학교, 온라인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원 스님(명락사 주지)은 다문화 가정 돌봄에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 서울 천태종 명락사는 일명 '다문화 사찰'로 유명하다.

스님은 '만 가구 한 등(燈) 달기'를 통해 세계음식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펴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명락빌리지' 쉼터를 개설해 11명의 이주여성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밖에 거제 금강사는 아시아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문화 음식점 '실크로드'를 개소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나서고 있으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동남아 결혼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4년간 진행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을 통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과 한국어 및 한국예절, 음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진오 스님(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은 다문화 모자 가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비용 5억원 모금을 위해 '2011 한반도 횡단308㎞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문화 활동은 타종교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불자 이주민이 수가 최소 23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타종교 지원 단체들이 선교를 병행한 활동이 활발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다문화 변모 시점에서 정부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철학적 정리가 시급하다"며 "활동가들의 열악한 여건 개선과, 사업의 지속성 담보되는 운영구조 등의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학문 통섭



2011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개최한 간화선세미나에 참여한 해외석학들

응용불교 발전이 기대되는 2012년

최근 불교계에서는 '응용불교'라는 말이 화두이다. 불교적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시키려는 현대 불교학의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불교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응용불교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본다.

경제학과 불교 사상을 융합해 연구하고 있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현대 사회는

불교+사회학문 융합 활발
불교의 사회 기여 요구 반증
불교학은 어떤 분야와도 접목가능

경제의 시대이다. 경제는 지구촌의 핵심이 됐으며 이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를 접목시켜 불교 경제학, 불교 경영학에 관한 초석을 다지는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도 불교도 생활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논의 될 수 없다. 이제는 불교도 참여불교, 민간불교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또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불교학은 어떤 분야와도 응용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들어 불교를 응용한 상담학 및 심리학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미 동국대에서는 불교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됐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아동학도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불교응용학이 보다 다양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불교와 생물학, 불교와 뇌과학 등을 접목시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을 접목시킨 불교적 시각으로 우리 몸의 비밀을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대 석길암 교수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는 자기내적인 정체성만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외적 자기정체성을 고민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불교학 연구의 사회적 적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단계에 있다"고 지금의 응용불교 현황을 진단했다.

현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불교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문제를 당시 불교계 전체의 틀에서 조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석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불교가 자연스럽게 현대 한국사회,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20여 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들로 볼 때,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이지만 전체 속의 불교, 불교 속의 전체를 의식하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이상적 수행자상이다. 제도할 중생들은 무명에 싸인 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교를 활용해 그것이 사회화되고,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의 응용불교 연구가 2012년 새해에는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성원 기자

월간「불광」 제2의 창간!

불교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지혜? 행복? 대자유? 아름다운 삶?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상? 그리고 또 무엇?
2012년 새해, 창간 38주년을 맞는 월간「불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확대된 판형(올컬러)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아
현대적인 감성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팍팍한 삶에 불교가 필요하시다면 든든한 마음의 벗, 「불광」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불광」의 행복입니다.

특집 / 불교, 옷고름을 고쳐 매다 ● 강원일기 / 구름을 닮고 싶었던 소녀/진광 스님 ● 우리 절에 안기다 / 낙산사-잃어버린 파랑새를 찾아서 ● 한국인의 차(茶) / 불교와 함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차 문화/지허 스님 ● Art & Heart / 패션 디자이너 이기향 ● 명장의 고집불통(佛通) / 누비장 김해자 ● 고전 산책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 이미령 ● 사색의 뜰 / 2012년 한국사회와 불교의 역할 / 이진경 ● 법인 스님의 병 주고 약 주기 / 그것은 이상이고 이것은 현실이라고? ● 지구촌 불교성지 / 구법과 전법의 길, 실크로드 ● 불교, 정확하고 명쾌하고 자유롭게 / 무아(無我) / 김성철

월간「불광」 구독 문의 Tel.(02)420-3200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월 할인혜택 ▸ 1월까지 신청해주신 분께 이전의 구독료(1년 45,000원)로 적용해 드립니다.





표지: 이기향 作, <피안을 향하여>展 'joy'.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원로원장 양지은

사서실장 보인
기획실장 보광

총무원장 보공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문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법장. 보월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상벌위원장 법안 호계위원장 범일 경 호 국 장 정목

총무부장 보아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포교부장 무진 사회부장 지일
총무국장 정향 재무국장 자운 교무국장 보선 포교국장 보정 사회국장 지향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팩스 292-4586
■ 총본산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팩스 883-7796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정각 총무원장 화 엄

재단이사장 경원
상임이사 혜광 원로의장 지공 종회의장 삼주 호계원장 용암 총무부장 광은
이 사 화엄 원로부의장 명종 사무처장 고봉 교육원장 도광 재무부장 지운
도기 원로의원 무찰 종회의원 덕봉 감사원장 해동 규정부장 석경
일명 청송 재성 정일 자명 선거관리위원장 보월 포교부장 지현
경담 수암 경담 도정 만성 교무부장 법광
자명 원각 혜일 자견 지연 고시위원장 덕봉 포교국장 동해
혜운 도기 대각 도허 경담 자비나눔실천회장 광명심
감 사 혜천 간 사 법운 법경 일운 대성
제법 현암 자각

서울교구 직할 부산교구 삼주 대전교구 현담 대구교구 고봉
울산교구 지운 인천교구 용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일성 경기북부 지성 경남교구 승원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지현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상원 제주교구 경운

www.ilbung.org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02)998-8161~ 2 / 전송 (02)998-8384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보성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선률 포교부장 명진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대원

■ 總本山 : 忠北 堤川市 鳳陽邑 옥전길 125 松華寺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總務院 : 忠北 堤川市 의림대로 30 안길 4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아미타사상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토종

이사장 지산 종정 월호 부종정 해심. 각호

원로의장 법보 원로의원 보덕. 만공

총무원장 무각 종회의장 설정 교육원장 초암

경기교구원장 법천 경남교구원장 설봉 전남교구원장 정조
총무부장 설진 감찰부장 학조 재무부장 법성
포교부장 해조 법사단장 도암 법사부단장 대암, 혜월, 법해

저희 종단과 함께 하실 종도 모집합니다

■ 총무원 : 인천 남구 학익동 25-12 석목빌딩 701호 전화 032)867-2694, 543-2693 팩스 032)868-2694
http://www.jungtojong.org

대 한 불 교 삼 론 종

종 정 이혜공 사서 강지영
부 종 정 김 혜 승
승 정 향운. 은곡. 인봉. 해불

총무원장 진봉
종회의장 지경 부의장 혜송
사정원장 지운 부원장 지법

교육원장 명산 포교원장 명재 문화원장 지향 수선원장 지심

총무부장 보명 재무부장 일선 교무부장 혜송 규정부장 혜산 사회부장 지허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충주시 교현 2동 539-21 우암정사 內 2층 전화 0502)321-3333 / 팩스 043)847-0118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장 법준
위 원 정화. 고산. 경호. 보장. 동원. 수운
종 정 혜봉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중앙종회의원 청산. 지선. 연각. 백파. 이타. 수진. 지성. 혜광. 혜언. 정암. 삼자

중앙사정원원장 동원 부 원 장 옥용 사 정 부 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정화 부 원 장 보담 포 교 부 장 혜일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부 원 장 현법 교 육 부 장 혜일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청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북(대구)종무원장 수진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전북교구종무원장 광호 전남교구종무원장 정암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혜련

사단법인해동자비원원장 덕광 국제교화원원장 공덕 중앙법사단단장 혜일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법 사 단 부 단 장 혜일 법 사 단 총 무 혜련
전국비구니회회장 법인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전화 031)262-1577, 265-8386 / 팩스 031)263-1353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새해새날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종 정 **청연 월정** 사서실장 **노정혜**

재단이사장, 법인원장 **권성우** 원로원 **엄혜우.이혜봉.하청암.김대산**

총무원

총무원장 권성우
총무부장 하동산
사회부장 주만석
문화부장 최혜원
교육부장 장법정

감찰원

감찰원장 나석진
감찰부장 한지관
조사부장 전법하

법인원

총무국장 양재언
재무국장 이지법
사회국장 우해암
문화국장 김보광
포교국장 노연화
비구니부장 박혜명

교육원

교육원장 남석진
교육부장 한영각

포교원

포교원장 김진표
포교부장 조명각

부산울산종무원장 전도광
광주종무원장 허대성
인천종무원장 지해무
대전충남종무원장 최법화
경기남부종무원장 허지월
강원종무원장 허금성
충북종무원장 고월공
전북종무원장 김태산
전남종무원장 유진법
경북종무원장 문도성
경남동부종무원장 김신진
비구니회장 강지명
벽암문도회장 나석대진
월공문도회장 김혜봉운
자비회회장 이병익근
경기북부지부장 최민성
경기중부지부장 전한주
경북지부장 주

국제불교정법대
교 수 장 정 태

연합종교신문사
편집부국장 이 해 균

미타종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종 정 **범해당 대화**
부종정 **동광. 법용**

총무원장 만혁
원로원장 대원
원 로 원 관곤. 보명. 대봉. 대심. 대월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현담**
문화원장 **송담** 복지원장 **대천** 염불원장 **대황**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혜공. 지명**
종회의원 **법훈. 자광. 원각. 감로. 용담. 정광. 광덕. 부용. 지선. 진묘. 자관 혜은. 지호. 성각. 중정. 지명. 혜원. 용우. 법천. 지현. 관공. 현공**

전국신도회장 **대광** 부회장 **성덕화. 청연행**

총무부장 **경산** 기획실장 **법성** 재무부장 **성문** 교무부장 **혜원** 감찰부장 **만공**
조직부장 **도광** 사회부장 **정오** 포교부장 **자관** 복지부장 **지연**

부산경남종무원장 **동광** 경북종무원장 **자광** 충남대전종무원장 **지천** 충북종무원장 **대월** 강원종무원장 **진묘**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화쟁평화중앙교원
현 대 불 교 조 계 종

종 정 **덕현 벽운**
부종정 **성주 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성**

◇ **총무원 임원, 각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해 성문 법진 연담 법인 지밀 천봉 도선 금산 고암 성광 혜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덕행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혜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성수 진광 현공 진산 해인 이착 무산 성일 현광 보현행 보리심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 · 주지 동화 전화 042)283-5896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종 포교사 대학(원)

본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건교(建校)이념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인격완성(人格完成)과 전법도생(傳法度生)의 사명을 완수하여 불교의 세계화를 실현한다. 특히, 본교 포교사대학(원)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애국(愛國)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모 집 과 정**

1. **포교사 대 학** : 1년 (수료 후 2급 포교사 자격증 취득)
2. **포교사 대학원** : 2년 (수료 후 1급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모 집 요 강**

1. 본교 학생 모집기간 :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2.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3매
3. 대학(원) 입학식 : 2012년 3월 12일(월) 오후 7시. 대림정사
4. 대학(원) : 대전 중구 중촌동 99-9번지 대림정사
   전화 042)221-0228. 524-2149 / 010-5406-8538. 019-407-8404
   팩스 042)526-2149

(사)대한불교금강종 포교사 대학(원) 원장 무학 합장

종무법인 禪農教團
우 리 불 교 曺 溪 宗

종 정 **弘 山 玄佛** (현블)

종 도 일 동

■ 총본산 : 수월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사무국 063)584-4153

대 한 불 교 대 승 종

종 정 **법천 천광**
부 종 정 **법일 지신** 원로원장 **법해 도림**

총무원장 법진 도일

종회의장 **법암 혜심** 감찰원장 **법성 정산** 종회부의장 **법인 운남**
고시원장 **법전 법현** 교육원장 **여여 무여** 연수원장 **법신 노정**
포교원장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서울종무원장 **지공** 경기종무원장 **무상**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북종무원장 **덕운** 전남종무원장 **진덕**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경북종무원장 **탄영**

총무부장 **성각** 총무국장 **경 신** 교무부장 **무 상** 사회부장 **유한**
연화부장 **정혜** 기획부장 **대원**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 흥도사
■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APT B-303 상원사

수행은 하심에서 시작되고 포교는 눈높이 맞춰야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 (사)자비명상 마가 스님



27년전 청담 스님의 상좌와 손상좌로 스승과 제자가 된 현성 스님(좌)과 마가 스님. 서울 현성정사에서 새 아침 법담을 나누며 불자들이 '새해에 다짐한 진심' 이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했다.

"큰스님 계십니까?"

마가(摩迦, 자비명상이사장) 스님이 은사 현성(玄惺, 75)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현성정사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은사께서는 외출 중이시다. 종무소에서 "안양교도소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추운 날씨에….' 생각해 보니, 은사께서 안양교도소를 다니신 세월이 35년이다. 출가하여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기 전부터의 일이 아닌가? 새삼 가슴이 뭉클했다. 포교와 교화를 향한 은사의 행보를 반이나마 닮을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 서울 남산에서 열고 있는 걷기명상을 35년 이상 지속할 수 있을까? 염주를 굴리듯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는데 은사께서 오셨다는 기별이 왔다.

"추운데 뭣 하러 왔나? 설에나 다녀가면 되지."

삼배를 드리는 제자를 바라보는 은사의 눈길은 그윽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

그렇게 마주 앉은 스승과 제자는 잠시 묵언으로 존경과 자애의 마음을 교감 하는 듯 했다. 제자가 여쭈었다.

–임진년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웃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가? (하하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의 씨를 뿌려야 하는 법. 행복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새해는 흑룡의 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봐. 용은 선행과 공덕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니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길운이 깃드는 해가 되길 바라. 모두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도리를 잊지 말고 복 짓고 공덕 쌓는 한 해가 되시길…."

–네, 불교계도 더욱 안정되고 더 많은 일로 사회를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지. 은사 스님 청담 대종사 께서는 늘 '동국대 발전이 불교 발전' 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종도들이 화합하고 총무원이든 종립대학이든 모든 관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그게 곧 불교발전이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이야."

–(기자) 마가 스님께서도 불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새로운 희망을 심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행복을 가져오는가? 불행을 초래하는가? 늘 깨어 있으면서 매순간 자문(自問)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의 행동, 말, 생각이 자신의 미래입니다. 인생은 자신만이 주인공이니까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국민과 위정자들의 생각이 따로 겉돈다는 느낌도 듭니다. 국가와 국민은 둘이 아닐 텐데, 원융화합을 위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나라 때의 도림선사는 고을 태수로 부임한 백락천에게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을 여든 살 먹은 어른이 행하기는 어렵다' 고 일갈했지.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나는 늘 한 가지를 주문해. 싸우지 말라고. 정치란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러나 대립과 싸움은 달라. 대립에서 화합과 상생의 묘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지.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도 가능하고. 그런데 대립에서 묘수를 찾는 게 아니라, 대결로 몰고 가 싸움판을 만들어 국론과 민심을 분열시키는 일이 허다해. 그러니 정치인 좋아하는 국민도 줄어드는 거야. 스스로 빠져 나오지도 못할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움질을 해대면서 그게 국민을 위한 거라고 떠들면 누가 믿겠어? 언젠가 대통령 후보들이 다 참석한 법회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부처님이 당선시켜 주느냐? 하나님이 당선시켜 주느냐?' 하고 물었어. 그리고 말했지. '당신들을 당선 시키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요즘 국민들은 여러분 보다 훨씬 앞선 생각을 한다' 라고. 후보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도 한참이나 이어졌어. 정치인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은 투표라는 주권행사를 분명하게 해야 해.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 '스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몇 백층짜리 빌딩 많이 지으면 잘 한 겁니까? 국민을 화합시키고 원융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들이 적지 않으니 잘 하신 것' 이라고 대답했어. 국민을 통합하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야. 국민이 분열되면 나라도 사라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해."

–오늘도 안양교도소에 다녀오셨는데….

"소장이 영전해서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송별 공양을 하고 왔지. 오랜 시간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아. 무엇보다 교도소 교화사업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승단에도 마찬가지야. 안양교도소의 경우 재소자와 직원을 합하면 2500명이 넘어. 그들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불사(佛事)야. 그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법문하고 명절(부처님오신날 설날 추석날 등)에 대중공양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수행이 아닐 수 없지. 나는 대중공양에서 종교를 차별하지 않아. 차별하면 불교가 아니잖아. 전국의 모든 교도소에 일생을 두고 드나들면서 불사하는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족 같지만, 다른 종교는 우리와 많이 달라. 현장에서 일 해 보면 알아."

–군포교 분야에서도 '대부' 라는 호칭을 들으시는데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은사스님을 따라 전방 철책선을 간 적이 있었지. 그때 은사스님께서 '통일도 좋지만 그보다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이라도 있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단박에 알아들었지. 통일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장병들에게 널리 전해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대마다 법당도 있고 법사도 있어야 한다는 뜻임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도 알았어. 도선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군법당 건립과 후원에 나서게 된 거야."

–(기자) 스님께서 주관하여 지으신 군법당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뭐,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도선사 불자들과 힘을 모아 지은 군법당이 13개입니다."

–(기자) 도선사 주지를 12년 하셨으니 한 해에 군법당을 하나씩은 세우신 셈입니다. 군포교를 하시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협조를 잘 해 주었고 불자들이 호응이 컸던 겁니다. 군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법당만 지어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찾아가서 위문품을 전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종단에 군종교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단위 사찰의 지속적인 후원과 원력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에피소드야 많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군포교의 기복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부대에서 법당 불사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군법사가 도선사로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스님께서 오셔서 기공식 한 것이 넉 달 전의 일인데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 할 인부들이 부대 밖에 잠자리를 구해두고 일하려고 하는데 사단장님이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 출입을 안 시킵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 사단장님이 다른 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군단급에서 주최하는 종교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군단장님이 저와 잘 아는 분이었어요. 마침 아까 말한 그 사단의 사단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나를 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아,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단 법당 준공식 날짜를 받아 왔거든요' 라 했더니 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공사도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준공식 날짜를 받아 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 말투가 좀 퉁명스러웠던지 옆에 있던 군단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여기 사단장님에게 들어 보시라' 고 하고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로 법당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어느 부대 사단장님이 찾아와서 자신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소개한 뒤에 '부대에 법당을 좀 큼직하게 지어야겠는데 도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묻더군요. 내심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까닭을 물었더니 '사실 최근 부대 안에 커다란 교회가 신축되었는데 그 옆의 법당이 작고 초라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신도들이 화장실인줄 알고 들어가

선인선과의 가르침 잊지 말고
복 짓고 공덕 쌓는 한 해가 되길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새해 맞아 세운 계획과 발원
진심 흔들리지 않으면 이뤄져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삼광사의 풍경소리로 세상은 자비로워집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주 지 류화산 스님

총무 유대명 스님 교무 허자룡 스님 재무 김도진 스님 노전 김탄성 스님

고 문 김길두 김동필 홍영표 이종화 전무수 김형대 장석근
신도회장 김석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총무위원 이천경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김상준, 부학자, 김영숙
사업위원 주우현 기획위원 윤태용 복지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최주덕
문화위원 이봉영 부녀위원 정옥순
사부대중일동 합장

■ 정 기 법 회 - 매월1, 2일 오전 10시
■ 학생회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청년회법회 - 매월 1일 , 3주 일요일
■ 어 린 이 회 - 1,3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삼광사 산하교육기관
부산금강불교대학 • 삼광한글학교 • 삼광한문학교 • 삼광다도대학 • 광명유치원 • 삼광 서예교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노력 없이 얻어지는 행복 없다

는 일까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맘이 편하지 않아 스님을 찾아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두 말 않고 법당 건립을 약속했고 '커다란 교회' 가 잘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법당을 지었습니다. 허허허."

–무슨 일이든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군포교는 군인들에게, 어린이포교는 어린이에게, 노년층 포교는 어르신들에게 어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해 봐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 강의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 눈높이 포교가 아니면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야.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라는 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이듯이. 너의 강의가 어렵고 싫증나는데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 많이 듣게 하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야지."

–(기자) 마가 스님 강의는 인기가 대단합니다.

"눈높이가 맞았다는 얘기겠지."



1999년 현성 스님의 환갑때 논총 발행을 기념해 찍은 사진. 가운데가 현성 스님, 맨 왼쪽이 마가 스님

화합과 상생의 묘 찾는 것이 정치
국민들 주권행사 제대로 행사해야
이기려는 마음에는 탐욕 들어차
지려는 사람은 '텅 빈 충만' 누려
청담 스님 뜻 따라 군포교 시작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교화에 일생

–이야기가 나 온 김에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포교를 하시면서 겪으신 일들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듣지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막상 말하려면 할 것이 없어. 도선사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당시 유아원)이 도봉동에 있잖아? 주지할 때 매월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그날은 나도 꼭 가서 아이들을 만났어. 이 유아원이 인기가 있어서 정원이 120명인데 170명이 입원신청을 하곤 했지. 그 동네가 그다지 부유한 곳이 아니라서 저소득 부모들에게는 원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먼저 교육비를 들고 와서 낸다는 거야. 아이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절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시주하는 마음으로.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이 출산을 하면 쌀을 한 포대씩 주었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도선사 유아원이 일류유아원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야. 청소년교화연합회의 경우 파라미타가 생기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160개가 넘는 청소년 단체 가운데 유일한 불교청소년 단체였어.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모든 일에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지. 일을 하다보면 오해도 생기고 화도 나지만 진심을 믿고 인욕 하는 가운데 다 풀어지는 법이야."

–노스님 청담 대종사 께서 '인욕보살' 로 통하셨잖습니까?

"그렇지. 가까이서 모셔 본 사람은 그 별호가 헛말이 아님을 알지. 나도 젊어서부터 늘 '지고 살아라' 하는 가르침을 받았어. 내가 성격이 좀 불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돌이켜 보면 '지고 산 것' 이 '이기고 산 것' 임을 절감해. 이기려는 마음에 쌓이는 탐욕과 분노와 거짓과 기만의 무게는 태산보다 더하겠지. 하지만 지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쌓일 것이 없어. 늘 비어 있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텅 빈 충만' 의 열락이겠지. 그러니 결국에는 이기는 삶이 되는 거야."

–큰 스님께서는 새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는 일 계속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큰 복이지. 새로운 일 만들 생각은 없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족해."

–저 역시 그간 해 온 일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마음 치유사'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또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명상순례 여행' 제안도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래,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이 전법의 기본이지. 잘 하고 있지만, 항상 밝은 기운을 전해주도록 해라."

찻잔의 차가 다 식는 줄도 모르고 이어지던 스승과 제자의 정담(情談)은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끝났다. 현성 스님이 길까지 나와 일행을 배웅하고 들어간 뒤, 마가 스님은 "오늘따라 큰스님 흰 눈썹이 더 빛나 보인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글=임연태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성 스님은… 경남 고성 출생.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 이듬해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부산 선암사에서 10하안거를 성만했고, 대율사 석암 스님의 법맥을 전수했다. 1980년부터 12년 동안 도선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진행, 천년고찰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불교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스리랑카 국립 프리베나대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의 감찰국장, 교육국장을 지내고 중앙종회의원(4선)과 청담학원 이사장, 동국학원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종정 표창을 4회 받았으며, 교정교화사업과 사회봉사, 교육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동백장, 모란장 등 3종의 훈장을 받았다. 現 도선사 부조실, 현성정사 주지,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혜명불교양로원 원장, 안양교도소불교위원회장,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회장 등.

마가 스님은… 1985년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중앙승가대 복지학과 졸업. 1990년 복천암 선원을 시작으로 5안거 성만. 미얀마 마하시 국제선원, 프랑스 플럼빌리지 등에서 수행, 2002~2006년 마곡사 템플스테이 진행. 현재 중앙대 겸임교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남산에서 걷기명상 진행. 마음치유사 과정 개설 운영.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백척간두에서 걸어보라



동국대 선학과 교수

아련한 추억이 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운동장에 늑목(肋木)이 놓였다. 많은 어린이들이 처음 보는 운동기구라 운동 보다는 신기함이 발동하여 앞 다투어 오르내리곤 하였다. 늑목은 체조에 쓰는 기구로 기둥이 되는 튼튼한 나무 사이에 많은 가로장 나무를 고정시킨 것으로 몸을 바르게 하는 운동에 썼다.

지금 돌이켜 보면 위험천만한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로장 나무를 오르려면 반드시 한 손을 놓아야 만이 오를 수 있는 일이다. 수중에 꼭 잡고 있던 가로장의 한 손을 과감하게 놓아야 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딱히 가르쳐 주지 않았건만 놓을 줄 알았다. 참 위대한 별견이랄 것도 없이 그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반복하였다. 수영을 할 때도 그렇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손은 뒤로 제쳐야 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버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더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와각지쟁(蝸角之爭)이라는 말이 있다.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서 싸운다는 말이다. 하찮은 일로 승강이 하는 짓이나 혹은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을 이르는 말이다. 달팽이의 두 더듬이 가운데 한 더듬이를 촉(觸)이라 하고 옆의 더듬이를 만(蠻)이라고 한다. 달팽이 자체를 놓고 보아도 미미하기 그지없는데 연약하기 그지없는 더듬이로 제 몸에 붙어 있는 더듬이를 상대로 싸우다니 우직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이라고 치부할 밖에 별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달팽이의 분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늑목에 오를 때를 회상해 보면 과감하게 한 손을 놓았으련만 성인이 되어갈 수록 놓기보다 쥐는 것에 더욱 익숙해져 버렸다.

무문관 제46칙에서 석상 스님은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걸어 나아갈까(百尺竿頭如何進步)' 라고 말하고 있다.

한 두 척도 아닌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걸어 나간다는 말일까. 무지몽매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백 척 이란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생각이 멈추고 만다. 고저장단이나 시비곡직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선의 입장이다. 석상 스님이 말한 백 척 이란 비단 길이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범부중생은 언구에 집착한 나머지 고개를 설레설레 젓기 일 수이다. 다수의 공안은 언구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일생을 허비해도 공안의 노예가 되어 살 뿐이다. 그 속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오고간 나그네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실로 언구를 벗어나기란 말 같이 쉽지 않다.

절 앞에 개울이 흐르고 있어 행인이 징검다리를 건너기에 불편하여 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공사를 마친 후 다리 이름을 불도교(不渡橋)라고 붙였다. 하루는 객승이 절을 찾아오다가 다리에 불도교라는 글을 보고 다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스님은 "이 바보야, 왜 서성거리고 있느냐. 냉큼 건너오지 못하고." 객승은 "건너가지 못하는 다리라는 데요. 어떻게 건너라는 겁니까." 하더라는 일화가 있다. 이 경우야 말로 객승이 언구에 걸려 꼼짝 못한 사례가 된다.

선은 지식이나 학문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객승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만일 글을 몰랐더라면 거리낌 없이 다리를 건넜을 것이다. 버리지 않는 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 선이다. 비단 선에서 만도 아니다. 일상에서의 삶도 그렇다. 버려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고 그저 비어 있는 것은 공허한 것쯤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비어 있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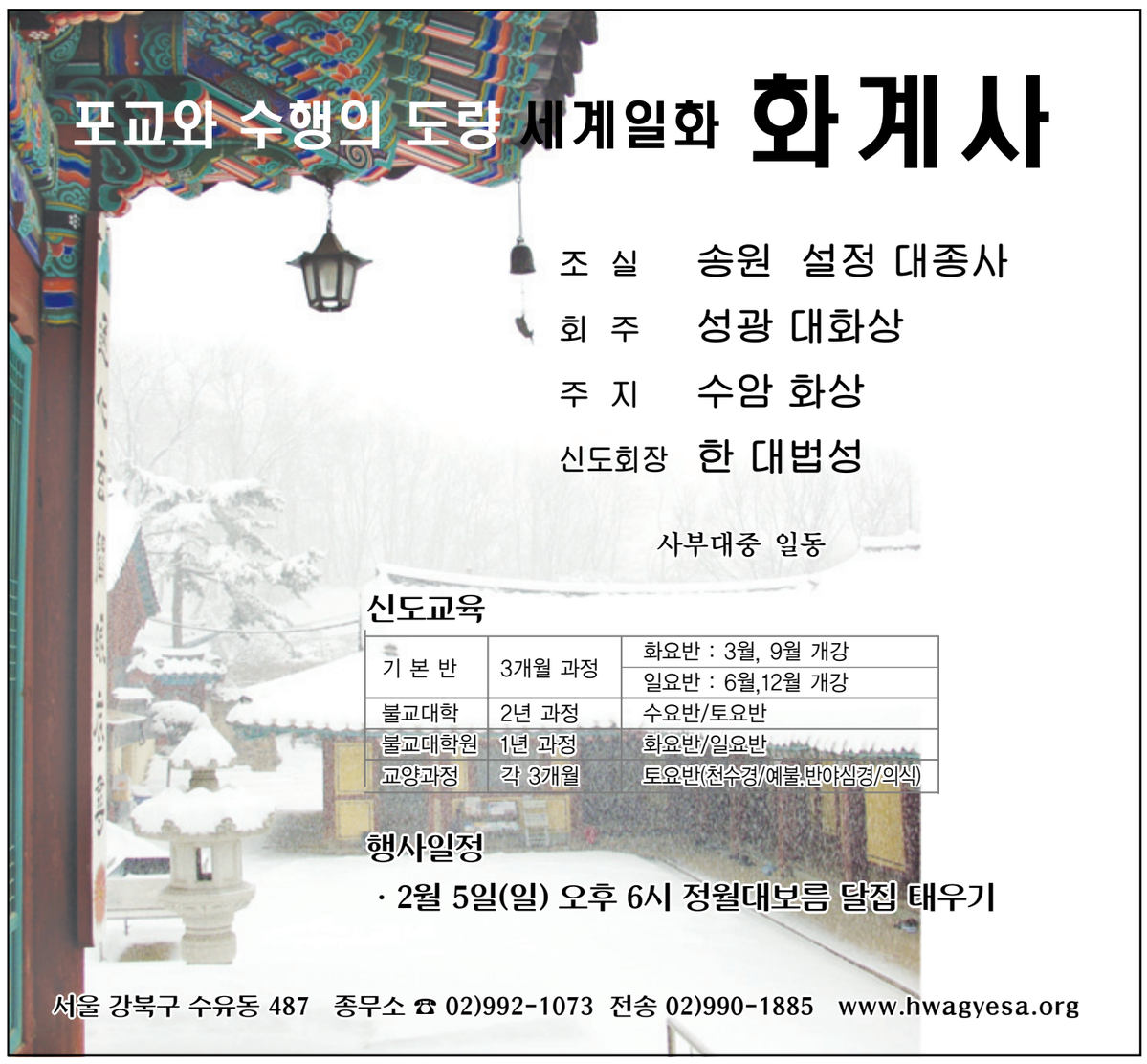
지녀서 겪는 고통은 그칠 줄 모르나
놓아서 누리는 만족은 어디서나 충만

말로 현자의 소유다. 놓여 있고 채워진 것들은 범부의 소견에서 나온 어리석음의 산물이다. '모르는 것이 부처' 란 말이 있는데 도리어 무식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식을 부인하는 것은 단연 아니다. 지식이 두루 갖추어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 분수를 안다면 백척간두에서 활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으면 집안 청소도 말끔히 하고 거실에 화분 하나라도 놓고 장식을 한다. 벽도 새 벽지로 도배를 한다. 장식할 때야 경비도 들고 육체도 피로하지만 이내 정신이 맑아진다. 집치장 못지않게 새해에 장식할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놓는 것이다. 놓으면 허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 마련인데 그건 일순간의 일이다. 영원히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조건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다. 자리도 놓고 권세도 놓고 가진 것도 놓기가 말 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녀서 겪는 고통은 그칠 줄 모르지만 놓아서 누리는 만족은 어디서나 충만하다.

우리는 들숨과 날숨에서 위대함을 배운다. 깊은 산 속에서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만 같다. 이 상태가 좋다고 계속 유지하려는 어리석음을 지닌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바로 비워야 만이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범 속에는 항상 비범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놓고 비우기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넉넉한 한 해가 될 것이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맑고 향기롭게 !! 불국정토 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한국불교 원융교단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법주 **원 명** 개산법주 **마 정** 부 법 주 **정 림**

본산중앙협의회 회 장 석장운 부회장 석보당. 석법인

사무총장 석원돈

조계선림 제1본산 관음사 법주 **마정** 조계선림 제2본산 보국사 법주 **보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타사 법주 **법인**
조동선림 본 산 영평사 법주 **정림** 임제선림 본 산 벽천사 법주 **혜조** 정토선림 본 산 쌍용사 법주 **법천**
화엄선림 본 산 금화사 법주 **금화**

금 오 선 원 원장 **석도일** 용 봉 학 림 강주 **석마정** 영 산 율 원 율주 **석혜안**
중앙불교대학원 재가불자 교육원장 **이홍표**

〈 동참할 종단과 사암을 모십니다 〉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7 / 전화 031)676-0908. 676-3960 / FAX 031)676-2960
■종단본산협의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0

사단법인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원로의원 **석보. 해우. 무상**

종 회 의 장	**오봉**	총무부장	**향천**	서울서부종무원장	**무상**
종회부의장	**미산**	재무부장	**담교**	인천남부종무원장	**태은**
교 육 원 장	**진성**	교무부장	**천호**	경기남부종무원장	**청허**
포 교 원 장	**산능**	사회부장	**혜안**	경기서부종무원장	**진각**
사 정 원 장	**문도**	조직부장	**태은**	대전중부종무원장	**고산**
호 계 원 장	**진석**	감찰부장	**무공**	대전동부종무원장	**보성**
문화예술원장	**해탄**	조사부장	**대원**	대전서부종무원장	**진산**
중 앙 선 원 장	**원광**	봉사부장	**향천**	충남서부종무원장	**혜안**
강원원장(불교대학장)	**혜진**	포교부장	**묘광**	충남남부종무원장	**진우**
홍 법 원 장	**성현**	경북지역 법사원장	**능각**	충 북 종 무 원 장	**오봉**
사회복지원장	**허산**			광주전남종무원장	**성산**
비 구 니 원 장	**진각**			전 북 종 무 원 장	**진성**
비구니부원장	**진산**			경 북 종 무 원 장	**해능**
법 사 원 장				강 원 종 무 원 장	**고경**
대 체 의 학 장				부 산 종 무 원 장	**로도**
염 불 원 장					
사 서 실 장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 전화 : 041-551-5537 팩스 : 041-621-5537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 50 만경사

삼탑회 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예 하 은 파

원 로 원 장 **대호** 원로부원장 **만송. 경월**

중앙종회의장 **무애** 부의장 **명현** 사무처장 **현담**
중앙종회의원 **만송. 혜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선산. 지운. 정혜. 법공. 법인. 유초.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혜광**

총무원장 **한파** 부 원 장 **혜암**

총 무 부 장	**현담**	재 무 부 장	**법우**	교 무 부 장	**무적**	감 찰 부 장	**법인**
규 정 부 장	**인각**	교 육 부 장	**성각**	포 교 부 장	**도일**	사 회 부 장	**혜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유초**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 월**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근 파** 중부교구종무원장 **정 암**

◇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 1장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찰 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23-16번지 301호 전화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부산교구종무원 051)527-7733 휴대폰 010-4133-0333 경남서부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경남동부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중 부 종 무 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허가번호 08-1-56-호. 등록번호 13467-000292호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사단법인 중앙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향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법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일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정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대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본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덕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지고 (대한불교법사종 종회의장)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회장 031)262-0606
사무총장 051)335-2210 / 011-9330-6210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 봉

총무원장 **본 자**

종정사서실장 **도현**

승 정 원 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승 정 위 원 **대현**
종 회 의 장 **승법** 종회부의장 **홍운** **법신** 종 회 의 원 **도암**

감 사 원 장 **법안** 교 육 원 장 **혜초** 호 법 원 장 **원광** 수 선 원 장 **서연**
의 전 원 장 **동선** 기 획 원 장 **법장** 비구니원장 **효상**

경남교구원장 **제법** 울산교구원장 **갑태**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감사부원장 **현공**

총 무 부 장 **불현** 교 무 부 장 **도문** 재 무 부 장 **혜진** 문화사회부장 **현공**
사 업 부 장 **혜명** 규 정 부 장 **도영**

종도모집 안내
종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으로 함께 하실 종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

해동불교 임제종

종 정 적진당 지 암

원로위원 **석보현. 지륜. 법성. 법공. 제후**
총무원장 **석법산**

감사원장 **월산** 문화원장 **혜룡** 조직원장 **동일** 사회복지원장 **무애**
사회부장 **보원** 호법부장 **혜인** 조직부장 **묘화**

서울종무원장 **제현** 대구종무원장 **법인** 경기종무원장 **보우**
경북종무원장 **법철** 충청남종무원장 **혜명** 경남종무원장 **자범**
충청북종무원장 **혜주** 전북종무원장 **법원** 부산종무원장 **혜일**
전남종무원장 **혜관**

종 도 일 동

■ 총무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71번지 심곡사 / 전화 : 054)335-7157, 휴대폰 011-537-2311



한마음선원소식

〈월 1회 발행〉

이 지면은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과 전국 및 해외 지원의 신도들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독자들에게 배송됩니다. '한마음선원 소식' 이 실린 신문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거부하실 경우 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04-8200, 8212

한마음음악제 수익금 '나눔 실천'

'더 프라미스' 와 '뷰티풀 마인드' 2억원 전달…"소중히 사용"



11월 성료된 '한마음음악제' 의 수익금 전액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전달됐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구랍 26일, 견지동에 위치한 국제개발구호단체인 더 프라미스(이사장 법등) 사무실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더 프라미스는 미얀마와 동티모르 등에서 종교와 문화, 인종과 정치의 다양성을 넘어서 편견 없고 차별 없는 나눔을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의 교육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된 국제개발구호단체이다.

본원 주지 혜원 스님과 총무 혜목 스님, 박종수 신도회장 등은 이날 더 프라미스의 국제구호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며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한마음선원이 전달한 후원금은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한마음음악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더 프라미스 이사장 법등 스님은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한마음선원과 더 프라미스의 좋은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명로 더 프라미스 공동대표도 한마음선원 후원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에 주지 혜원 스님은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정성 어린 보시금을 부처님 가르침을 펴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좋은 일에 회향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선 11월 18일에는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매월 개최되는 정기법문을 마친 자리에서 자선음악 공연단체 '뷰티풀마인드' 에도 1억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배일환 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큰 무대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 후원금을 전달해 준 한마음선원의 정성을 잊지 않고 장애인과 소외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뷰티풀마인드의 배일환 이사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한마음음악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한마음음악제에 재능기부 형태로 동참했다.

박기범 기자

"국제구호활동 관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더프라미스 이사장 법등 스님



"한마음선원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더 프라미스 이사장 법등 스님(사진)은 구랍 26일 한마음선원이 국제개발구호기금 1억원을 전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불교계에는 더 프라미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개발구호단체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등 스님은 "많은 불교계 해외 구호 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이번 후원이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등 스님은 또 한마음음악제를 직접 관람한 소회를 전하며 한마음선원의 불교문화 기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스님은 "한마음음악제를 감명 깊게 관람했다. 준비하기까지 선원 대중의 어려움이 컸을 텐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제구호활동을 비롯한 불교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다짐

혜원 주지 스님 신년인사



혜원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밝은 내일 위해 새 결심하는 신년
습관 한 가지씩을 녹이는 새해 되길
근본 마음에 내려놓음이 수행

불자님들께서는 새해에 어떤 다짐들을 하시는지요? 해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즈음에는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일에 대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올해는 꼭 성취하리라 다짐을 더하기도 합니다.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한 번씩은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 때입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던지는 질문에 대선사들이 하신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네가 곧 부처니라, 먹고 자고 똥 누는 일이 도(道)이니라. 이 말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애쓰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있는 자신이 바로 부처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부처의 세계를 까마득한 곳에 멀리 두지 말고 지금 그걸 느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억 수조의 세포들은 무수히 윤회하는 삶을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에 굴복하여 살아남는 데 익숙해져 있던 이 의식들은 두렵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식들을 다 없애버려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들 또한 한마음 속에서 모두 나온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의식들이 미망의 어두움을 벗어나 하나하나 밝은 깨우침 속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세상 만물이 본래로 하나이며 그 하나조차도 내세울 게 없이 공(空)하다는 진리를 일상 속에서 맛보아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할 수행입니다.

새해에는 습관 한 가지씩을 녹이는 결심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부처를 찾아 어떤 완성된 세계를 향해 가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의 습관 하나를 재료로 삼아 자기 근본 마음에 진실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리와 하나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 속에서 자기 안의 부처를 발견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마음 깊이 발원합니다.

'생활 곧 수행' 큰스님 가르침의 실천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공생의 삶' 생명 · 마음의 가치와 인생 의미 되새겨

2011년 한 해에도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인성교육과 사회교육프로그램들이 큰스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구랍 10일에는 제1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이 3개월간의 교육일정을 마치며 졸업발표회를 가졌다.

혜원 주지스님을 모신 자리에서 공생 18기 졸업생들은 8개 팀으로 나뉘어 그동안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마음의 도리를 개그 · 율동 · 상황극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 자리에는 공생과정 졸업생들만의 신행회인 공생회(지도법사 혜찬) 선배들과 졸업생 가족들이 동참해 함께 웃고 공감하며 졸업을 축하했다.

인성교육부문도 지난해에 이어 2012년 1월 9~13일 '교실의 행복-한나무인성교육 교사직무연수' 가 실시된다. 우리 모두가 생명공동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교사직무연수는 진정한 교육이란 교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됨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사회교육부문으로는 '한마음아버지마당' 이 2012년 3월 10일~4월 14일 준비된다. 한 가족의 기둥인 아버지들부터 마음을 닦아야 가정과 사회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취지를 살려 가족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마음공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제1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졸업생들이 졸업발표회를 가졌다.

한편 여러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한마음과학원 활동들은 불교방송(BBS) IPTV, '마음, 인생을 바꾸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랍 13일과 27일에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공생과정을 비롯한 여러 교육과정 참가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삶과 생활이 큰스님 가르침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 진솔한 마음들을 감동스럽게 풀어냈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야기들은 불교방송 IPTV나 BBS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통해 반복 시청할 수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선원 및 지원 단신

부산지원 청년회 겨울 수련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청년회 겨울 수련회를 실시한다. 이번 수련회는 1월 7~8일 이틀간 경주 일대에서 '초심' 을 주제로 실시된다. 수련회에는 19세 이상 청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뉴욕지원 개원 22주년 기념 법회

뉴욕지원이 개원 22주년을 맞아 기념 법회를 열고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구랍 4일 대웅전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 법회에는 뉴욕 지원 원공 스님의 법문과 선법가 발표회, 놀이마당 등이 이어졌다.

본원 청년회 겨울 수련회

본원 청년회가 울산지원에서 겨울 수련회를 가진다.

'우리 천년 고도를 가다-삼세심이 일심'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1월 6~8일 양 일 동안 개최된다.

무명을 밝히는 촛불재

새해맞이 촛불재 정진법회

한마음선원 본원(주지 혜원)은 1월 23~25일 불기 2556년 새해맞이 촛불재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한마음선원은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새해맞이 촛불재를 지내고 있다. 촛불재는 새해를 맞이해 모두의 마음이 한층 더 밝아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더해져 자기 근본을 발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는 한마음선원의 전통적인 새해 의식이다.

3일 동안 오전 10시 30분 사시 예불 시간에는 모든 조상님들의 마음 또한 한마음의 밝은 부처님 자리에서 후손들과 둘 아니게 밝아지시기를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가 봉행된다.

촛불재는 3일 동안 오후 5시30분 저녁 예불 시간에 맞춰 시작된다. 본원 종무소에서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031)470-3100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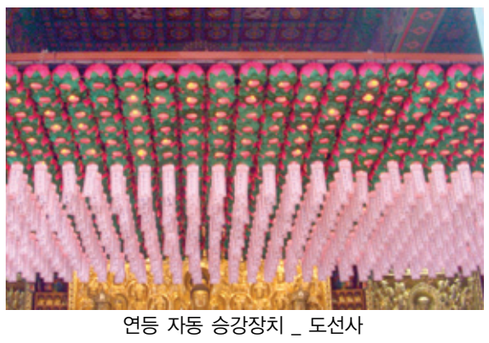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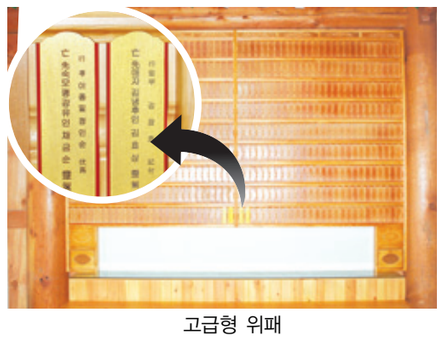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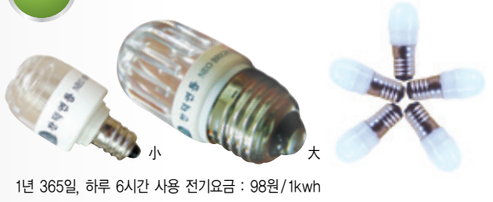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 정 법성 혜암

원로원장 무성 고제

총무원장 청송 청파
감찰원장 학봉 동일
복지원장 무관 도원
사회원장 덕진 도광
사서실장 백천 동담

기획실장 원효 동암
총무부장 대월 동산

종회의장 대공 동곡
종회부의장 도진
사무국장 동만 동조

종회의원 동성 혜각. 동우 영산. 동진 설송. 동판. 대영. 동봉. 혜경. 우석. 동석. 보현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3장,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 팩스 055)336-7070 / 핸드폰 011-595-6522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혜 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
수 석 이 사 혜 성 (대한불교구화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향 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준 석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해 월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중 식 (법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감 사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진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상 심곡

부 종 정 법호 서호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천 청화
종회의장 법수 인곡 감찰원장 법관 일월
교육원장 혜진 기획실장 정관
총무부장 법웅 정관 교육부장 청운 교육국장 민규
부산종무원장 청운 경북종무원장 원도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 총본산 : (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 부산시 남구 우암1동 174-32 총무원
■ 전 화 : 051)638-4088 / 010-4540-4088. 총무부장 055)532-4414 / 011-507-2837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달오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정봉 부원장 대월
감찰원장 정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대오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혜도 부의장 경덕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사무처장 소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법수 소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충남교구종무원장 대오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인천교구종무원장 혜도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용안(정원수)법사, 부회장 신우연 법사
신풍사신도회장 청암(이정민)법사

총무부장 대광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연아 사회부장 대오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경덕 범수 법조 혜인 혜도 대오 도하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숙식제공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번지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9 사무장 010-8548-8608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평생전화 1577-0408
한글홈페이지 네이버 대원종 또는 DW108.com / E메일 asp8990@hanmail.net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國禪佛敎 조계종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體唯心造"

종 정 원각 지우

원로원장 학천 유송

원로위원 선원장 대광 혜암 원로위원 포교원장 무하 법장
총 무 원 장 혜각 지우 교 육 원 장 진암 무위
총무부장 법운 보경 교육국장 진송 비구니부장 원각 교무국장 마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 입종문의 -

총무원 전화 053)985-8745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E-mail : jpnmyung@hanmail.net)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134번지 전화 053)985-8745 / 010-8564-6669
팩스 053)981-5373 총무부장 010-9275-5600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 담

총무원장 정 관

총무부장 인 성 재무부장 행 우 포교부장 효 은 사회부장 인 호
홍보부장 행 수 호계부장 심 인 감 사 무 구 사서실장 인 우
예경실장 효 웅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법운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인성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인성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종무원장 무초
총무국장 인우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 전화 054)748-0462 팩스 054)771-6606

성철·경허스님 기념사업 전개…선풍 진작 기대

2012년은 한국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며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불교계에서도 2012년은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이 겹치는 해이다. 불교계 각 분야에서도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삽화 · 박구원

큰스님 뜻 계승할 사업 준비 중

수행 한국 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1849~1912)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선사의 업적 재조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을 위해 사업회는 ▷열반100주년 기념다례 ▷〈경허집〉 재출간 ▷학술세미나 ▷선서화전 ▷국제선수행체험 ▷백고좌법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계획 중이다.

6월 13일에는 경허문도와 전국 수좌스님 등이 모여 경허 선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전국 규모 다례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한다. 사업회는 또 기존 〈경허집〉 및 〈경허평전〉을 5월 경 출간 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경허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선필로도 유명했던 경허 선사를 기념한 선서화전 및 유물 전시회도 3월 26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서울 화계사에서는 경허 선사의 간화선 정신을 담은 선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수행체험프로그램이 6월 중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경허 선사가 수행했거나 제자들에게 전한 화두를 간택해 외국인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형태로 열린다.

경허 선사의 삶을 영상으로 복원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경허 선사의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를 탐방하며 선사의 생전의 모습을 되새기고 추적한다.

3~7월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등 선승들이 자신의 주석처에서 경허 선사를 위한 선법문을 여는 경허선 선양 법회가 열린다.

경허 선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문화기행 프로그램도 마련돼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행사는 경허 스님이 주석 · 수행했던 해인사 범어사 월정사 수덕사 개심사 천장사 서산 부석사 등을 여행하며 경허 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선여행 답사 형태로 진행된다.

퇴옹 성철 스님(1912~1993)도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는다. 성철 스님은 올곧은 수행자의 표본을 보여준 불교계 대표적 큰스님이다. 조계종 종정을 지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우리말 법어로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과 퇴옹 성철 대종사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이런 성철 스님의 뜻을 되살리기 위한 서적 발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과 기념사업회는 100주년 사업을 '20세기 인물 성철', '한국의 사상가 성철', '문화아이콘 성철' 이라는 주제 속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근대 한국 불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모색하는 학술 포럼이 진행 중이다. 이 포럼은 지난 해 3월 시작돼 연 4회씩 3년 간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도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강좌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영원한 행복을' 이란 주제로 2월까지 전법회관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또한 원택 스님이 집필한 '성철스님의 시봉이야기' 독후감 공모전이 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은 중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분량은 자유다.

해인사 백련암 동계수련회 '4일간의 약속' 도 마련된다. 중 · 고등부는 1월 5~8일, 초등부는 11~14일 백련암에서 열린다. 동계수련회에서는 108배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애와 연민의 기도로 평소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수련회비의 10%는 군법당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통합과 화합의 반세기

종단 올해는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총무원은 지난 해 10월 종무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2012년은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되는 해이다. 국민과 함께 하며 이웃의 의지처가 되지 못했던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조계종은 1925년 중앙 종무기구로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이 정식 출범한 뒤, 1928년 종헌(宗憲)을 비롯한 각종 법규와 의결기구를 갖췄다. 1941년에는 북한산 태고사를 현재 조계사 위치로 옮기고 총본삼으로 삼았다. 조계종은 이후 종단명칭도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태고사법' 으로 인가를 받은 뒤 1945년 광복 후 '대한불교 조계종' 으로 재출범했다. 통합종단은 불교재산관리법에 근거해 1962년 불교단체 '대한불교 조계종' 으로 행정당국에 등록, 합법적 종단으로 인정받았다.

종범 前 중앙승가대 총장은 2002년 열린 통합종단 출범 40주년 학술대회에서 "통합종단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도제양성, 포교, 역경 등의 방향성을 설정해 발전적 성과를 이루어 왔다. 특히 1994년 공포한 종헌에서는 총무원장 선출기구 확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제 시행, 각 본사의 교구종회 구성, 산중종회 운영 등의 조항을 명기해 종단 제도의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고 평한 바 있다.

조계종은 특히 지난해 한국불교 중흥을위한 토론회를 매월 개최했다. 11번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조계종이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됐다. 각 토론마다 참석자들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도 종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기획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중앙종무기관 사업에 반영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들 의석수 확대 등 모색

종회 비구니 스님들이 참정권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현행 조계종 종헌종법은 종헌 기구 중 위원 자격에 대해 '비구' 라고 명시해 비구니 스님들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현행 중앙종회 의석수는 81명이며 이 중 비구니 스님들은 10명으로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하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의석수 확대를 요구해 왔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은 구랍 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비구니 의석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 날 의석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스님들은 1월 초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종회 비구니회 회장 일운 스님은 "지속적 논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구니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포교원, SNS 활용 등 미디어 포교 집중

포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012년도에는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포교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NS 활용은 제6대 포교원장 지원스님이 취임 고불법회에서도 강조한 사항이다.

포교원은 구랍 28일 '포교원 단체 실무자 워크숍' 을 열고 2012년 포교원 사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2012년 포교원 사업기조는 '지속가능한 포교사업 계승 발전' '선택 집중의 포교사업 수립시행' 이다. 제5대 포교원의 주요 사업을 계승하면서 발전적인 포교 종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

포교사업 기조에 맞춰 제시된 2012년 주요 사업은 ▷미디어 등 문화포교 기반 구축 ▷수도권 등 신도시 포교거점 확대 ▷공감과 감동을 주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종단 포교역량 확대 등 4가지다.

각 부서들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포교팀은 포교 종책 개발 활성화, 포교단체 지원강화, 포교사업 운영에 주력한다. 전법팀은 전법단 운영의 분야와 지역을 확대하고 계층 포교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신도팀은 신도조직화를 통한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과 신도단체 재정비 및 활동역량 강화에 나선다. 포교연구실은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콘텐츠 확보, 포교종책 생산, 신도 교재 연구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또 올해부터 신도교육을 새롭게 개편한다. 기본교육교재인 〈불교입문〉을 신도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위한 〈불교개론〉을 출간한다. 포교원은 또 기본교육 여건이 부족한 신도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도 준비 중이다.

〈불교입문〉은 분량을 줄이고 초심자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신행 교육에 집중했다.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량도 축소했다. 심화과정을 위한 전문 교재 〈불교개론〉은 전문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한 권에 담았다.

새롭게 개편된 〈불교입문〉과 〈불교개론〉은 올해 전국 사찰에 도입될 예정이며 조계종 디지털 대학을 통해 동영상 강의도 마련된다. 동영상 강의는 〈불교입문〉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불교문화진흥법 제 역할 기대

문화 지난 해 11월 불교문화진흥법이 공포 되면서 전통불교문화 계승과 현대적 창조 및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올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가 지적 재산권 조항을 강화해 이와 관련된 불교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교문화진흥법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종단의 기본적인 종책 방향과 업무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진흥법은 불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불교문화콘텐츠의 종단 공동 활용방안 마련, 불교문화진흥기금,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불교문화 현황 조사와 정책 수립, 대외협력,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불교문화진흥법' 은 또 불교문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종단과 교구 본 · 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 전문기관 등이 유 · 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과 사용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종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도 구랍 5일 〈불교문화지적재산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사찰 및 관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대처방법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과 법률적 대처방법을 정리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전에 사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홍련암
조실 무산 오현
회주 금곡 정념
주지 무문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 산 사 (양양포교당)
■ 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낙산사 복지재단
· 낙산유치원
· 상락원
· 낙산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양양시니어클럽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낙산무료급식소
· 낙산모자원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55번지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767-3100
팩스 : 053)765-1600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龍 珠 寺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 무 성 무
교 무 덕 현
호 법 법 진
연 수 대 현

기 획 환 적
포 교 덕 만
박물관장 보 승
신도회장 해 인 화

재 무 응 진
사 회 본 각
청소년 성 유

■ 부설 ■
효 행 교 육
템 플 스 테 이
효행박물관원
경기불교대학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wyongjoo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 제 법 원
주지 삼 호 성 문
사 부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 Fax (053)985-4405 / www.donghwasa.net

한 문 불 전 승 가 대 학 원
[2012학년도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

1학기 : 3월 6일 개강 ~ 7월 4일 중강 / 매주 화,수요일 저녁 6시 ~9시까지 / 반월당 보현사 3층 천불전

과 목	교 수 사	요 일	강의시간
법 화 경	무비스님	화 요 일	16강
서 장	고우스님	1, 3째주 수요일	8강
직 지	통광스님	2,4째주 수요일	8강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 대학원에서는 2012학년도 청강생을 모집 합니다 문의전화: 사무처 053)252-3445, 010-7166-5459

노인전문요양원 **동화사 자비원** 치매, 중풍, 전문노인요양
☎ 053)985-2115 Fax 053)986-2115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銀 海 寺

주 지 돈 관
총무국장 정 덕
교무국장 혜 신
재무국장 혜 안
호법국장 덕 조
포교국장 원 오
사회국장 성 담
연수국장 진 성
사서실장 정 수
원 주 석 담

문도대표 혜 인
관 장 돈 명

신도회장 김제용(금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노성현(법광)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이대웅

♣ 노인장기요양 지정기관
은해사 포근한집 054)335-3314
♣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해사 수림장 054)335-0566

사 부 대 중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FAX 054)335-0293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대종사
주 지 정 여

선 원 장	인 각	박물관장	경 선
강 주	용 학	부 주 지	정 만
총무국장	정 산	교무국장	법 귀
재무국장	정 현	사회국장	정 오
호법국장	보 운	교육국장	도 경
연 수	효 성	상 도 감	도 우
하 도 감	효 원	신도회장	이윤희



범어사에는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TEL 508-3122~5 원주실 508-3636
범어사 템플스테이 508-5726
범어사불교대학 불교회관 4층 TEL 866-7277
(사복) 범어사 · (재)범어청소년동네 TEL 508-8822
성보박물관 TEL 508-6139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불지종가 국지대찰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 명 지 종
주 지 원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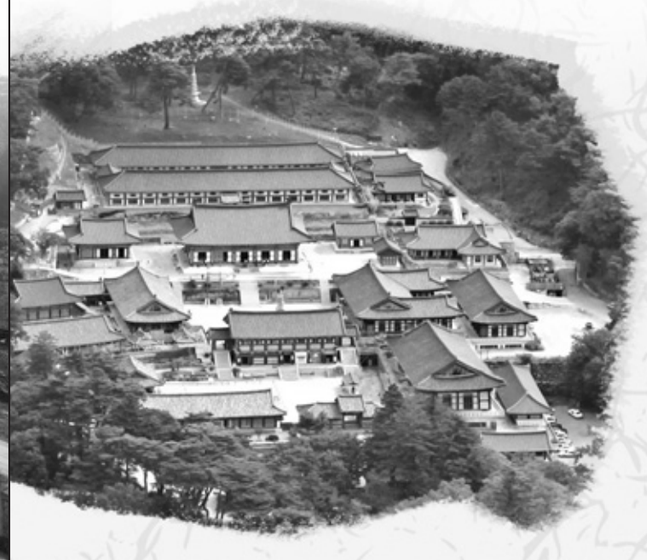
총 림 대 중 일 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法寶宗刹海印寺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海印叢林 方丈
道林 法傳 大宗師

東堂 道 堅 西堂 智 冠
首座 圓 融 維那 圓 覺

住持 善覺
總務 尋 牛 教務 學 庵 財務 圓 直
布教 如 海 護法 香 綠 院主 大 安
會計 宗 印 爐殿 昌 善

月刊 海印 編輯局長 宗 玄 大藏經 保存局長 性安
海印寺 聖寶 博物館長 觀 庵

海印叢林
禪院 律院 講院

해인사수련동문회, 화림회, 1029일 천도법회

총 림 대 중 일 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TEL 055)934-3000 / FAX 055)934-3010 / www.haeinsa.or.kr

교계 인사들이 추천하는 책

새해에는 이 책을 꼭 읽읍시다



새아침이 밝았다. 새해 새날이 되면 모두 새로운 각오 한가지씩은 한다. 그 가운데에는 "올해 어떤 책을 읽겠다"는 바람도 있다. 불자들은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할까? 최근 불교계 출판 도서 가운데 불자들이 선택한 책들을 모아봤다. 임진년 새해에는 이 책만큼은 꼭 읽어보자.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도서 선정에 도움 주신 분=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군법사 실원 스님, 통도사 정도 스님, 금강대 석길암 HK교수, 동국대 김호귀 연구교수, 이미령 역경위원, 홍성란 유심아카데미 원장 등)

받았어도 잘 모르는 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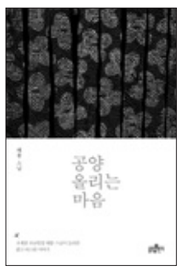


꽃향기도 훔치지 말라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책 〈꽃향기도 훔치지 말라〉는 계율에 관한 생활법문서이다. 책은 일생을 율사로 정진해 온 스님이 불자들에게 자신이 받는 보살계(10중대계 및 48경구계)의 의미와 내용, 이를 어떻게 지키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쉽고 친절하게 담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소승의 율장과 〈범망경〉에서 말하는 보살계가 어떻게 다른지, 왜 보살계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 누구나 참된 보살의 실천행을 바르게 알고 더욱 열심히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혜남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값1만3000원

수십 년 법문 책으로 공양



공양올리는마음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포교원력이 말과 글로 오롯이 담긴 책, 법문집 〈공양 올리는 마음〉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대기설법 하듯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근기에 맞춘 주옥 같은 말씀들이 풍부한 예화와 함께 실려 있다.

대중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혜총 스님의 밝고 따스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을 읽다보면 혜총 스님이 조근 조근 바로 곁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생생한 법문은 매우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혜총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000원

인간은 이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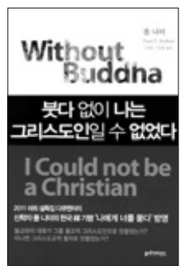


이기적 유전자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저술가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를 연장한 개념인 '밈'(문화 유전) 이론과 후속작 '확장된 표현형'의 선구적인 개념도 제시한다.

30년 동안 이어진 학계와 언론의 수많은 찬사와 흑평 속에 이 책은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할 과학계의 고전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리처드 도킨스 지음 | 을유문화사 펴냄 | 1만 8000원

불교에서 찾은 그리스도교 해답



붓다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종교다원주의신학의 세계적 석학 폴 니터 교수의 저서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는 몇 년 전 미국에서 발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다. 책은 니터 교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의문점을 불교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개인적 경험의 고백서인 셈이다.

폴니터 지음 | 정경일 · 이창엽 옮김 | 클리어마인드 | 1만9000원

여류 종교학자의 자기이야기



마음의 진보 영국의 종교학자이자 사상가인 카렌 암스트롱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종교에 귀의하지는 않았다. 1962년, 17살이던 소녀 카렌 암스트롱은 신을 직접 찾고 싶다는 열정으로 수도원에 들어간다. 그러나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하리라 기대했던 수녀원 생활은 어린 수녀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절제와 순종의 고통만 안겨준다. 카렌은 신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절망감을 안고 1969년 환속한다. 7년간의 수녀 생활은 카렌의 마음을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바꾸어놓은 뒤였다.

〈마음의 진보〉는 카렌이 7년간 수녀 생활을 그린 〈좁은 문〉의 두 번째 이야기로 환속한 이후의 생활과 자살을 시도하던 시련의 시기, 새롭게 다시 종교를 만난 이야기 등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카렌 암스트롱 지음 · 이희재 옮김 | 교양인 펴냄 | 1만 8000원

티베트를 엿보다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

지난 해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자살이 잇따라 많은 불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티베트 승려들은 티베트 사회를 철권통치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티베트가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티베트와 중국정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 북서부 다람살라에 티베트망명정부를 설립한 상황이다.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은 그런 티베트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티베트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자연친화적이고 불심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책은 티베트를 단순히 '웰빙관광지' 등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에게 일침을 놓아준다.

폴 인그램 지음 | 홍성녕 역 | 알마 펴냄 | 1만9800원

틱낫한 스님의 '엄마' 이야기



엄마 "엄마의 뱃속에서 머물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틱낫한 스님은 책 〈엄마〉에서 우리에게 묻는다.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한번쯤 지었을 미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평안한 미소였다. 아무 걱정 없었던 자궁(子宮)은 말 그대로 자식들의 궁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벽한 극락 같은 곳이 어딘가에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며 그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열망한다.

틱낫한 스님은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궁궐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엄마와 우리가 하나인 이유, 영원히 변치 않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법, 엄마에 대한 화와 실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법, 엄마를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다.

틱낫한 지음 · 이도흠 역 | 아름다운인연 펴냄 | 9800원

달마도를 한눈에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종교 전문작가 김나미 박사가 펴낸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는 저자가 1992년부터 〈해인〉 지에 '달마를 찾아서'를 타이틀로 5년간 연재했던 원고를 모은 것이다. 저자는 연재를 하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절과 암자를 다니며 달마도에 관한 자료와 글을 수집해 하나로 모아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를 펴내기도 했다.

저자는 "달마도는 선종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인가증명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제자에게 전해주는 일에서 비롯됐다"며 "흔히 그림으로 만나는 달마 스님은 그것을 그린 사람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김나미 지음 | 렛잇비 출판사 | 1만6000원

문광부등록141호 (1994년2월18일인가)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제1차 전국지부 설립

◈법인 등기부 지부명. 종단명 등재 완료 ◈2012년1월까지 전국50개 지부 설립예정.

(제1차 지부설립종단)

3대 실천 목표

1. 대 통합의 한불총으로
   1) 군소종단 단체 등록으로 구성 (전국 50개 종단으로 50개 지부개설)
   2) 전국 불자 거사림회 구성조직화 (한불총 자선사업에 후원으로 구성)
   3) 전국 불자 여 신도회구성 조직화
2. 이타행의 한불총으로
   1) 독고노인돕기(백미.의복.연탄등등)
   2) 소년소녀가장돕기(장학금.생활보조금등)
   3) 불우청소년돕기(장학금.생활보조금등)
   4) 장애인돕기(장학금.생활보조금등)
   5) 수해이재민돕기 · 농어촌일손돕기 · 소외된 노인돕기
3. 의식 개혁의 한불총으로
   1) 식생활 개선 2) 법회 의식 개선
   3) 우리말 경전보급 4) 도심속 생활불교
   5) 복지시설 건립 등

지 부 명	등재일자	종 단 명	총무원장 법 명	속 명	지부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지부	2007.10.10	대한불교불이종	학 운	강호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2. 5층
경기도 지부	2011.12.09	대중불교조계종	개 명	장선영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선유동길 79
부산광역시 서구 지부	2011.12.09	한국불교조계종	자 화	한영수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13번기 16-1
경상남도 창원시 지부	2011.12.09	미륵불교조계종	보 덕	박용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신촌본포로 108
경상남도 김해시 지부	2011.12.09	대한불교삼보종	법 장	송원진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405번길 73-33
충청북도 옥천군 지부	2011.12.09	세계불교세심종	범 홍	류경남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산로 513
경기도 성남시 지부	2011.12.09	대륜불교조계종	도 암	조병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수정북로 40-1
경상북도 상주시 지부	2012.01.02	정법대승불교조계종	고 림	김수영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산 112-2
경기도 의정부시 지부	2012.01.02	대한불교삼학종	일 정	배상덕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9-94
강원도 횡성군 지부	2012.01.02	대한불교유마종	관 봉	이창주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로
경상남도 지부	2012.01.02	세계불교지도자연맹	법 장	송원진	경남 김해시 가야로 405번길 73-33
경상남도 밀양시 지부	2012.01.02	연꽃마을사람들	수 원	최범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산58-4
경기도 동두천시 지부	2012.01.02	용화세계미륵종	금강성	최숙희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503-1
대구광역시 동구 지부	2012.01.02	한국불교미륵천왕종	법 우	석미숙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49-3
서울광역시 관악구 지부	2012.01.02	세계불교 법왕청	무 해	김길수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30-2

한불총 가입 절차 요령

◈ 소정서류 양식참조(한불총 비치)
→ 서류심사후 결정
→ 법인단체등록증발급
→ 지부법인 등기부 등재
→ 지부원장 임명장수여(현판부착)
문의전화 ☎ 051)465-3255

한불총은 18년 전 불교연합단체로 문화관광부에(141호)정식 등록된 불교계에 유일한 단체이며 불가는 물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단체로 오늘날까지 번영하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부터 전국 지부를 50개 이상 설립하고 「 받아서 되 돌려주는 이타행」을 실천하기 위해 각 지부장은 지역 년중 행사로 삼고 「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을 봉행하므로 불국토 건설이 앞 당겨 질 것입니다.

– 다 함께 성불 합시다. –

대혜종고 통한 선 길라잡이



간화선 창시자의 禪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에 의해 간화선을 창시한 대혜종고의 어록 전체가 2011년, 드디어 완역되었다. 상권에서는 법을 보는 안목, 공부에 대한 조언, 잘못된 공부에 대한 경고, 방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본보기가 되는 공부 등 간화선 창시자 대혜 스님이 학인들을 지도하던 방법을 소개한다. 하권에서는 대혜 스님 간화선의 핵심을 밝히며 표준 모델을 구성하고, 스님의 간화선이 무문혜개 · 고봉원묘 · 몽산덕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여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되도록 했다. (상 · 하 全 2권)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4만2000원

한국불교가요가 걸어온 길



한국 고전시가의 불교문화 수용 양상

한국 고전시가가 불교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양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향가의 형성 배경을 불교 게송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데, 각 시대별 불교계 동향을 토대로 고전시가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피고 불교문화를 수용해 창작된 작품들을 내용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불교가요가 지닌 문학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 변화 · 발전 양상을 종교가요의 특이성 측면에서 고찰한다.

조평환 지 | 조율 펴냄 | 1만5000원

명진 스님의 말 · 말 · 말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욕망에 성찰을 촉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현 정부의 거짓과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비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충고한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사회와 주변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며 행복은 욕망을 버릴 때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불교 수행자로서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명진 지음 | 말글빛냄 펴냄 | 1만5000원

동화로 재구성한 '왕오천축국전'



혜초, 실크로드를 왕오천축국전에 담다

〈왕오천축국전〉을 동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혜초의 삶과 업적은 물론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사회상까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체 이야기 전개와 별개로 지리, 언어, 종교, 건축 등에 관한 정보를 따로 정리해 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역사 교육에서 강조하는 교류사의 가치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한 흔적이 엿보이는 책이다.

김대호 지음 | 아카넷주니어 펴냄 | 1만1000원

오대산의 법통 체계적으로 조명

한암문도회, 희찬 스님 가르침 다룬 '오대산의 버팀목' 펴내



오대산의 버팀목

월정사 · 김광식 엮음
오대산 월정사 펴냄
비매품

조계종 종정을 네 차례 역임한 한암 스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민족 비극사인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소된 월정사를 복구시킨 주역 만화 희찬 스님.

오대산 법통의 주역이며 오대산 중창주로까지 추앙받는 만화 희찬 스님의 삶과 수행, 그리고 가르침을 조명하는 움직임이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한암문도회는 〈오대산의 버팀목: 만화 희찬 선사의 수행과 가르침〉을 펴냈다.

책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불자들이 알지 못한 희찬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았다. 특히 희찬 스님의 생전 모습을 40여 명의 증언과 회고를 통해 전한다. 책에서 그들은 희찬 스님을 수행자, 구도자이며 효상좌로 한암 스님의 정신을 구현한 스님이라고 증언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은 선공후사, 헌신 그 자체였다"며 은사인 희찬 스님을 기렸다.

1922년 7월 1일 평안남도 덕천에서 태어나 18세인 1939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희찬 스님은 1939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한암 · 탄허 스님 밑에서 학문과 수행에 매진했다.

1945년 상원사 원주로 1949년부터는 노사인 한암 스님을 시봉한 스님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와중과 1951년 한암 스님 열반 시에도 곁에서 지켰다.

1953년 상원사 주지, 1955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월정사에 주지로 취임하며 은사 탄허 스님을 도와 오대산에 수도원을 개설하는 등 가람일신에 나서는데 특히 월정사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벌목문제로 네 번에 걸쳐 구속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진행한 일화가 유명하다.

당시 "월정사 나무를 베어 월정사 법당을 짓는데 죄가 될 수 있는가? 형무소에 몇십번을 가더라도 법당을 꼭 중건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1969년 결국 대웅전을 준공시켜 월정사 사격의 주춧돌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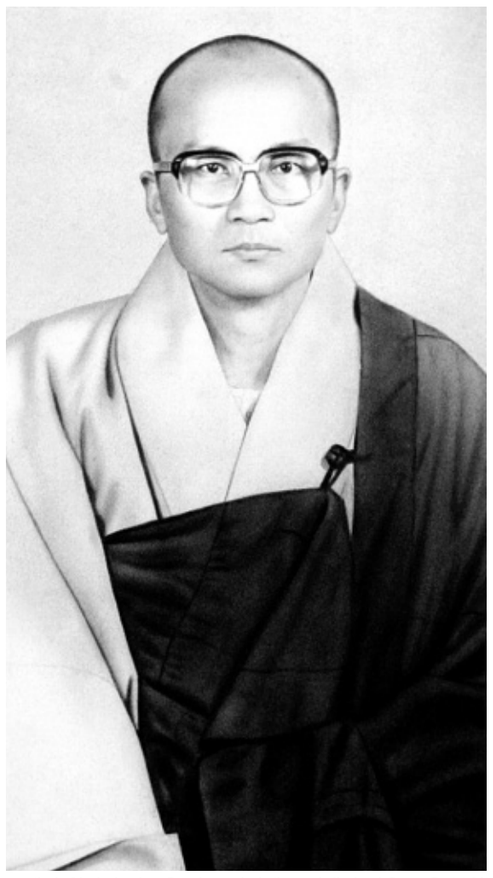
책에서 말하는 희찬 스님은 어떤 스님일까. 책에서 탄허 스님을 시봉한 조계종 원로 도광 스님은 당시 어려운 월정사 재정으로 인한 수도원 운영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도광 스님은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 희찬 스님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양봉을 해서 쌀을 사왔습니다. 항상 스님은 일에 앞장서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희찬 스님이 어려울 때 월정사 복원에 나선 일은 대단히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고 술회했다.

책에서는 이처럼 희찬 스님의 개인사와 함께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을 비롯해 오대산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스님들의 역사까지 함께 다룬다. 희찬 스님의 삶이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 일대의 근현대사와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대산 근현대 불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대산의 버팀목〉은 월정사 중창 과정에서의 불사 정신과 과정, 에피소드 등을 함께 담고 있다. 법어와 어록 중심의 기록인 고승열전을 넘어 불교사 현장에서의 생생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제자들이 회고한 스님과의 인연담을 통해 옛 스님들의 절 생활도 엿볼 수 있다. (033)339-6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 월정사 법통을 잇고 전란에 소실됐던 당우 등을 복원해 오늘날 월정사가 있게 한 선지식 희찬 스님의 진영

석굴암 천개석은 왜 깨어졌을까

석굴암 창건의 비밀 담은 소설 '재상의 꿈'



재상의 꿈

박준수 지음
스타북스 펴냄
1만3000원

석굴암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의 대표 문화재이다. 신라시대 김대성이 창건한 석굴암을 두고 현재까지도 학계에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2석굴암' 건립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석굴암을 소재로 한 소설 〈재상의 꿈〉이 출간됐다. 저자 박준수는 석굴암 창건자 김대성에 관한 〈삼국유사〉 기록을 바탕으로 나름의 상상력을 더해 한 인간의 긴 인생 역정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그려냈다.

책은 노년의 김대성이 꿈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대성이 모벌군에 병부 대감으로 부임한 뒤 옛 백제 유민들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명목으로 잔혹하게 학살됐다. 유민들을 몰살하는 강경파들 앞에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대성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경덕왕은 대성의 힘을 길러주며 외척에 휘둘리지 않는 왕권을 확립하고자 시도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경덕왕도 다른 왕들처럼 진골 귀족들과 타협하기에 이르렀다.

대성은 '속세에서 구하고 행' 하고자 했으나 그 열의는 끝내 좌절됐다. 현실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본 김대성은 20여 년에 걸쳐 불국사와 석굴암 조영 사업에 매진하며 못다 한 꿈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그조차 천개석이 세조각으로 깨어지면서 통일 이후에도 대립하고 있는 삼국민의 모습을 절묘하게 드러냈다.

저자는 "석굴암을 볼 때마다 나는 늘 궁금했다"고 회고한다.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1200년 전에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창건주로 알려진 김대성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석굴암과 비슷한 건축양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본존불 위의 천개석은 언제 어떻게 깨어진 것일까요?"

저자는 "석굴암 창건 동기가 호국이고 국가 주도 조영 사업이었다면 20여 년 동안 공사하면서 어째서 깨어진 천개석을 그대로 올려 덮었겠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삼국유사〉에서 찾아 글로 풀어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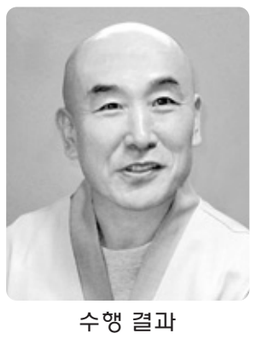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1~12/2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3	엄마수업	법륜	휴
4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5	죽어야 나를 보리라	대행	한마음출판사
6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7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8	지관수행	천태지의	비움과소통
9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사
10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정찬주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생활속의 간화선
불교방송 출연중!! 밤 9시 55분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수행 결과
• 법화경 독송증 법열
• 화엄철야 21일 신중조복
• 만행을 통하여 애착버림
• 낙엽밟는 소리 생각그침
• 우울증 한순간 원인제거
• 금강삼매경(수행론) 출간예정(12)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가 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2차 - 수행론 강의 2월 2일 개강 (접수중)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 ☎ 031)721-2148~9
무아선원 선원장 혜원 합장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아주미디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전화 062)381-8052 / 팩스 062)381-8056 / 010-3624-2321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템플스테이 새해 해맞이

자유명상, 정초기도, 참선
황토방 토굴에서
장기 요양 휴식
(동해안 양양 왕금산 현불사)
033)671-6280
010-8317-2520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렵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숫타니파타 -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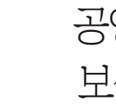
역학 비법전수

고수익 보장
직장 책임알선
010-4735-3232
법 진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11-764-3661

같이 더불어 포교원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분(40~50대 초반)도 모십니다
(진주, 밀양)
055)752-6606
055)356-6605
010-8390-6654

영적 기공치유

각종 난치성,상기증,우울증,
중풍, 파킨슨씨 불면증
의료기공 3주완성
기공사로부터 치유기공을 전수 받으면 누구나 치유사가 될수 있다
부산 안락동 태백정사
051)722-6426
011-9785-642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청담, 경봉 큰스님 묵적 구입하실 분

010-9878-1282

빙의대화 퇴마

다양한 방법의 퇴마비법 전수
사주로 귀신 찾는 법
귀신병, 신병, 대화 및 치료법
전생을 통한 치료 및 빙의 찾는 법
인연되시는 몇분만
저렴한 보시금으로 모십니다
* 귀신병, 신병 치유도 해드립니다
010-5472-5928
031)666-7732 경담 합장

삼혼칠백기도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포교당)
02)338-2158

부전 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 용암사)
02)387-3216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후반~65세미만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사)
한라산 관음기도도량)
010-5219-70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보시는 상담 후 결정)
02)954-9848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문현로타리)
출퇴근 가능하신 스님,
천도재 봉행 하실 수 있는 스님.
010-2104-1253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시는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목불 삼존불이며 주불은 한자반 석가모니부처님, 협시불은 한자 지장, 관음보살님입니다.
불단은 조립식으로 되어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스님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010-4033-5456

봉은불교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천수천안
관음탱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나한탱 오백나한 산신탱
독성탱 먹탱화 홍탱화 무속종합탱
충남 아산시 041)541-3545 / 010-8237-3545
홈페이지 : 봉은불교미술원 www.bongen.pe.kr
가 암 오재택

빙의 · 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30년 빙의치료 대가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응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www.kyksb.co.kr

승복 · 전통복식 31년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 특수 교육강좌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 (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 DVD 발매 〉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대출안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도사
• 법 명 : 월 성(박천옥)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348-8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법당 : 40평
- 요사 : 90평
- 부지 : 23,000평
- 가액 : 50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70평
- 부지 : 2,100평
- 가액 : 8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부지 : 76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부지: 약 650평
- 전통형 와가 법당 약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50평
- 사찰역사 35년 바다전망 최고
- 위치: 대통령 생가, 거가대교 근교
- 가액: 6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안산시 신고잔동 전철역 5분거리
- 부지: 5층건물 중 5층 총 140평 실평수 75평
- 마당 50평 실내 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 법당 별도 20평 법회즉시 가능
- 복도 화장실 남, 여 엘리베이터
-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 3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후 결정

010-9767-4119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6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017-502-9407

영 천 토 굴 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500만원,월1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 종합운동장앞
- 평수 50평
- 4층건물에 4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스님 병환으로 급 양도

010-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양산인접
- 부지 3000평
- 시설 : 대사찰시설완비
- 특징 : 산사음악회,
  큰행사하기 편리함
- 가액: 16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69-227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7140-1204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147평
- 건물 2동 외 부속동
- 삼존불 외 시설집기일체
- 가액 : 5천만원(절충불가)

010-9545-9444

사찰(급)안내

- 위치 : 국립고원 유달산 내
- 평수 : 200여평
- 특징 : 전설과 영험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6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솔내과 안
- 1층건물 사용 총면전 약 50평
- 법당1, 방2, 거실1, 부엌넓음,
- 뒷마당 및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불사 1000만원
- 더 넓은 도량으로 이전

010-4134-4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 , 소답시장 앞
- 평수 : 52평. 2층
- 방3, 주방1, 화장실1
- 보증금 :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약간, 비구니 스님 적합

010-8602-3990
010-8211-8590

도심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39사단 근처)
- 대지 300평 3층 상가 내, 2층 45평.
- 큰 법당, 방1칸, 공양간, 시설완벽.
- 가액 : 양도 1억 9천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 4668 - 6550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풍양면
- 대지 400평
- 답 250평, 전 520평
- 건평 가옥2채(70평),
  임법당1, 방8칸
- 가액: 1억 3천만원

017-534-136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229번지
- 3천평
- 정동향 해돋이 바다 보임
- 전기, 수도시설 완비
- 컨테이너 가건물 합 3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6-554-955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여평
- 삼존불 및 후불탱화(맞춤) 신중탱화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창고 등
-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4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 대지 135평
- 건물 3동
- 법당 14평(삼존불)
- 도로변200m위치
- 주차시설 원만
- 가액 1억1500만원

010-4146-655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밑 밭1800평
- 물좋고,산세수려함
- 가액: 1억1천만원
  (3년전 인수가격임)

010-3540-0196

외 딴 농 가

경북 영양
반듯한 농가주택
건물 18평 2동
대지 124평
가액: 4800만원

010-8899-8899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소불168불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000만원

010-2878-3380

광 진 사 찰 안 내

- 수도권대형사찰부지
- 부지 : 30만평
- 명당터
- 꼭하실분만
- 가액:가격협의

- 위치 : 서울
- 부지 : 350평
- 건평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
- 계곡 있고 대웅전 27평,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토굴
- 아주 완벽한 사찰 옆으로 등산로 끝까지
- 도로 멋지게 놔있음
- 현공풍수학적으로 왕향왕산임(최고좌향)
- 가액 : 7억 9천(절충가능)

010-9335-8487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곤지암IC(경기도 광주시) 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 겨울에도 따뜻한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011-433-4193

들을 때는 들리는 것만 있게 하고,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있게 하라. - 아함경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데 저희 한의원이 꼭 도와 드리겠습니다.



명 지 한 의 원

예약 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의사 원장스님 흥화 (권대일)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www.go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 봉 근 일
회 주 송 암 혜 승
주 지 남 전 호 성
부주지 등 운

총무국장 도 륜 기획국장 지 현
교무국장 성 공 재무국장
사회국장 등 안 호법국장 정 우
포교국장 용 담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 우
안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자 현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 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 하
템 플 스 테 이 연수국장 지 견
안동 청소년방과후센터 센터장 자 명

사 부 대 중 일 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 (구계리 116) ☎ 054) 833-2324 팩스 054) 834-6935
• 템플스테이 ☎ 833-6933 둘째, 넷째주 토~일 (1박 2일)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근본도량 모악산 금산사



회 주 태공 월주
주 지 벽산 원행

부 주 지 성 우
총 무 원 혜
기 획 덕 산
교 무 보 연
재 무 보 승
사 회 응 묵
호 법 원 성
포 교 제 환
신도회장 김백호 외 신도일동

신 도 일 동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 063)548-4440~2 / 팩스 : 063)548-1390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방장 수산 지종
주지 시몽

총림대중 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kr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TEL 061)392-7502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정수 부주지 동산

총무국장 도원 문화원장 호산 종책실장 성일
교무국장 심진 재무국장 도일 문화국장 도일
사회국장 동각 포교국장 지견 호법국장 혜만

■ 부설기관 · 연꽃유치원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시 장자어린이집 ·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 구리시 실버인력뱅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 031) 527-1956 전송 031) 527-1958 www.bongsunsa.net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禪本寺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TEL 053)851-1868 ~ 9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남양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지구살리기’ 불교환경음악회 눈길

니르바나 필하모닉, 1월 25일 예술의 전당서 신년음악회 개최

음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보존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사단법인 미래숲(대표 권병현)과 함께 1월 25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지구살리기 환경음악회’를 개최한다.

강형진 단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에 대해 무신경해왔다. 지구가 처한 현실을 바로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미래숲과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은 공연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미래숲의 ‘사막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공연 당일에는 대중교통 이용, 머그컵 사용 등 미래숲의 지구살리기 실천인증 사진을 미래숲 홈페이지(www.futureforest.org)에 올리면 티켓을 현장에서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일반인들의 환경인식 개선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연의 지휘는 동양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진출하고 KBS교향악단의 악장을 역임한 김의명 음악감독이 맡았다.

공연에는 2006년 대원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한 강형진 단장, 한양대 음대교수 소프라노 박정원, 제3회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를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2009년 몬트리올 국제리코더 콩쿠르 1위를 수상한 리코더 권민석, KBS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했던 트럼펫 임시원 등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유명 연주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공연은 지구환경보호를 테마로 삼았기에 자연과 친숙한 바로크 음악들이 주를 이룬다.

▷헨델의 ‘수상곡’ ▷요한 파헬벨의 캐논변주곡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비발디 사계 등이 선보인다.

강형진 단장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99년 창단 이후 클래식과 한국의 전통적 음색을 온합해 새롭게 창조된 한국적 클래식 음악 보급과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음악을 통한 문명의 순화’를 창단이념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니 이번 공연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단법인 미래숲은…

(사)미래숲은 사막화를 방지하고 환경인재를 양성하는 비정부기구(NGO)이다. 미래숲은 2006년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다라터치 현지 정부와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SK, 대한항공, 경기도, 경상남도, 녹색사업단 등과 함께 함께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56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길이 16㎞, 폭 0.8㎞에 이르는 방풍림을 조성해 오고 있다. 미래숲의 조림 활동은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 받아 미래숲의 권병현 대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초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챔피언 및 녹색대사’로 임명된 바 있다.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 일반인에 공개

2월 5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서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실 도서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의 환수를 기념해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전을 2월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돼 궁내청에 보관돼 있다가 구랍 6일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도서 150종 1205책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부터 최근까지 환수된 대표 문화재와 관련 영상물도 전시돼 국외 유출 문화재 환수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했다.

1월 12일 오후 2시에는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의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재 조선왕실 도서의 환수 과정과 의의〉 특별강연이 열린다.

또한, 어린이 대상 전시 해설과 주말 가족대상 프로그램도 준비해 일반 가족 단위 관람객의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02)3701-7500

이나은 기자

풍경소리, 어린이 찬불가 보급한다

제5대 회장 덕신 스님 취임사로



‘좋은 벗 풍경소리’가 제5대 회장에 덕신 스님(사진)을 선출하고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취임법회 및 붓다콘서트를 개최했다.

덕신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찬불동요를 불러 찬불가가 대중 속에서 힘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며 “불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십시일반 동참해 일반 방송에서도 찬불가가 나와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신 스님은 1969년 출가해, 1987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국장·사회국장·문화국장·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사 장애인포교단체인 원심회를 창설, 회장도 지냈다. 현재 대구 대륜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세연 어린이와 꼬마풍경이 풍경소리가 최근 발표한 창작 찬불동요집 ‘풍경소리 33집’ 수록곡 이 발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나은 기자



〈목련경〉과 〈신곡〉을 모티브로한 ‘목련, 아홉 번째 계단으로’의 한장면

업장소멸 현대무용으로 표현

파사무용단 10주년 기념공연
1월 19~20일, 아르코 극장서

한 아들이 이승의 무거운 업(業)으로 ‘지옥불’에 던져진 어머니를 구하고자 부처님께 애원한다. 부처님은 도력으로 어머니를 무거운 고통을 받는 지옥에서 차차 가벼운 지옥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몇 번의 도력을 베풀어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해 온갖 즐거움을 누리게 했다.

이 이야기는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성을 담은 〈목련경(目蓮經)〉의 이야기이다. 어머니를 구하고자 애쓰는 아들 목련존자의 지옥순례기는 단테의 〈신곡(神曲)〉의 작품과 매우 유사한 전개로 펼쳐진다.

황미숙 파사무용단장은 동·서양의 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가족의 의미와 그 소중함을 되짚기 위해 〈목련경〉과 〈신곡〉을 접목해 현대무용으로 승화시켰다. 창작무용 ‘목련, 아홉 번째 계단으로(이하 목련)’가 그 예이다.

“매체에 기사화되는 사회현상 중 하나는 단연 ‘가족의 위기’였어요. ‘가정의 위기’를 넘어 ‘가족의 해체’를 염려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뭔가 제시해야 할 표본은 없을까 생각해 이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황미숙 단장은 2004년 당시 사회의 이슈였던 ‘가족 해체’를 춤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불자였던 그는 〈목련경〉을 접하고 현대무용으로 탄생시켰다.

작품 ‘목련’에서 황 단장은 〈목련경〉의 한 구절을 무대 배경으로 꾸미고, 〈목련경〉 염불과 서양 악기의 선율을 오버랩 시키는 등 고대·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도록 안무를 짰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 ‘목련’은 2005년 6월 파사무용단이 초연해 2005년 서울무용제 대상을 수상하고 미국 등지에서 초청공연을 갖는 등 호평을 받았다. 장광열 무용평론가는 “작품 ‘목련’은 무용수들의 춤 기량, 음악, 무대미술, 의상, 조명 등 여러 부문의 작업이 작품의 내용과 잘 매치됐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화여대 및 동 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한 황미숙 단장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실기 위주의 테크닉과 창작무용, 현대무용의 조류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및 무용 요법에 대한 번역서를 출간 하는 등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작품을 만드는 대표적 현대무용가다.

황미숙 단장은 1989년 ‘황미숙 현대무용단’을 만들어 이끌다 2002년 ‘파사무용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적인 현대무용 개발과 보급화를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다. 황미숙 단장은 불경을 모티브로 수용하거나 동·서양의 문학을 접목시켰다.

파사무용단은 1월 19~20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10주년 기념공연 ‘소매깃을 날리다’를 개최한다. 30여 레파토리를 보유한 파사무용단의 대표작 네 작품을 한 무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자리다.

파사무용단은 이번 공연에서 전체 2부로 나누어 ‘목련 아홉 번째 계단으로’ ‘변하지 않는…’ ‘각인(imprinting)’ ‘노랑 달팽이’ 1부 첫 번째 작품 ‘변하지 않는…’을 선보인다.

변하지 않는…’은 예술과 매체에 대한 이야기로 무대미술, 조명과 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개념의 종합예술작품이다. ‘노랑 달팽이’는 선입견과 편견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한 통찰을 ‘달팽이’의 시점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황미숙 단장은 “이번 10주년 우수레퍼토리 공연은 구상단계에서부터 무용계는 물론 현 공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스태프들과의 긴밀한 협업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 가는 파사무용단만의 차별화된 제작시스템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272-2152

이나은 기자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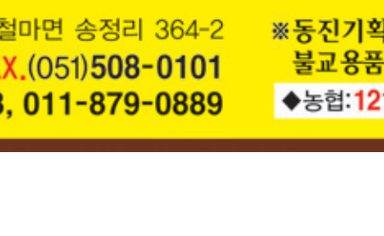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쿠라다케 붓펜 입하



★사경용 금분액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광명진언
할인가 1,200원(100권이상) 정 가 2,000원
• 크 기 : 12×18.5cm
• 내 지 : 80메트지(64p)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 가 25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 가 6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대행 스님

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생활 속의 참선이 될 수 있도록…

문) 스님께서는 늘 생활 속의 참선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은 절에 가기도 쉽지 않은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생활 속의 참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면서 우주 진리가 더불어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건 아시죠?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잘 땐 자고 모두 움죽거리고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죠? 또 우리 살아나가는 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게 전부 생활이죠? 그 생활이 요만큼도 빈틈없이 행선(行禪)입니다, 행선! 생활 자체가 행선이자 진리이자 과학이자, 이게 전체 물리학도 됩니다. 이건 전체입니다. 그러니 그 전체는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전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모든 길, 전체가 직결돼 있는 이 마음을 알 수 있고, 전체가 직결돼 있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요.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어떤 것을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공했죠, 모두가?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두 하는 거니까 일하면서도 똥 누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항상 그대로 여여하면서 참선이며 행선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진리라는 거는 없고 참선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하나, 눈물을 흘리든지 괴롭든지 외롭든지 또 고달프든지 즐겁든지 그 모두가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한테서 나오는 걸 나한테다 되놓는다면, 맡겨 놓는다면 모든 게 유유하게 걸림이 없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자 모든 것이 화목해지고 내 가정이 윤택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갈등이 죄,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업장이 다 녹아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마음 편안하니 와선이고 모든 게, 와선이니 입선이니 참선이니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선이 그대로 참선이고 진리니 그대로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수십억 마리가 같이 돌아가는 자신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을 말입니다. 운전사는 바로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기름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내 마음으로서의 나를 진짜로 믿고, 내 거죽을 믿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거죽을 믿지 말고 너부터 알면 나의 속도 알 수 있느니라." 하고요. 그러니 생활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림 · 최주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문)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보는데 불교의 관점에서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이 뇌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하게 돼 있나. 우주 천하 만물만생이 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는 것은 생각에, 마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바로 요런 거다 하고 모르면, 귀도 먹고 그러면 벌레는 벌레대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가다 보면 벗어나게도 되겠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차원에 따라, 전체가 차원이 크고 작은 관계상 '눈이 뜨여지고 귀가 뜨여지는가.'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도 백지장 하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일체 만법, 생활을 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당신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다. 대신 가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나를 발견하고 감응이 될 때, 그 때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게 되고, 그 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 아는 거, 알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놓으십시오. 우선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뜻을 몰라서 답변을 안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내 동생 같고 자식 같고 형제 같은 겁니다, 모두. 연세가 높으신 분은 내 부모 같고 모두 이렇습니다.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정해 놓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빨리 싹이 날 수도 있고 더 빨리 클 수도 있고 아주 밑에서 싹도 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비유하자면 콩이 아주 잘 익었다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죠. 그런데 덜 익은 거는요, 속껍데기가 짝짝 붙어 가지고는 까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안 까지니까. 까지기는 해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게끔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해 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생각이 나거든 맡겨 놓고, 저 생각이 나거든 또 맡겨 놓고, 울고 싶거든 주인공 붙들고 울고 감사하거든 주인공 붙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일 년 계속 가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모두 겉껍데기로서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내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남이 불을 꺼 주는 게 아니라 제가끔 자기 불 끄느라고 애를 쓰지, 누가 불 꺼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지,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살림살이에서 자기 마음을 떠 보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 주고 저것도 보여 주고 꿈으로도 보여 주고 생시에도 보여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속습니까.

☞ 30면으로 계속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 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남의 잘잘못을 봅니까

☞ 29면에서 계속

그래서 '환상천도 넘어서라. 모든 것에 속지 말라.' 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이라는데…

문) 제가 아는 사람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자리에서 시키는 거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다니는 걸 보면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이해가 안되는 진 모르겠는데 과연 마음공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첫째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그것이 방하착이라면 즉, 모든 잡념과 모든 전자에서부터 얻은 그 습성을 다 녹여버리고 자기의 참 생수 맛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았을 때, 또 이차적으로 자기를 또 다시 한 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배워야 된다. 고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우리가 살림살이에서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놔 버리는 데, 맡겨 놓고 사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생활을, 온갖 작동을 다 하면서도 그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듯이 그 운전수에 차는 달려 있는 거죠, 차가 운전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자기 전자부터의 종문서는 몰락 태워 버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탄생했을 때 엉뚱하게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한,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이 솟아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재해서 거기다 놔야 되는 법입니다. 무조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무조건 들어서는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안팎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면을 다 쥐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갈피를 잡고, 더디게 갈 필요도 없이 자기가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번연히 안다면 이것을 믿고 들어가라. 믿지 않는다면 물론 불평이 나오고, 또한 상대가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고 상대가 없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하는 까닭에, 만약에 이 소릴 들었다 저기에서 저 소릴 들었다, 저걸 봤다 이걸 봤다 했을 때에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다. 믿지 못하는 까닭에 소릴 들었기 때문에 분이 일어난다. 소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말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라면, 둘로 보지 않았다면, 믿는다면 '아, 그렇기도 하겠지. 고정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마디 할 게 없고, 거기에 말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아, 내가 지금 현재에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째 이렇게 될까?' 하고 생각이 됐을 때는, 안에서 굴려서 자기가 자신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지금 세 단계가 없는 세 단계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도리를 거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살림살이처럼 가정에서도 남편이 급하면 급한 대로 나가서 뛰다가 사흘도 못 들어오고 나흘도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은 바빠서 돌아치는데 불평 불만 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제때에 밥도 못 먹고 제때에 잠도 못 자고 제때에 참, 그 몸을, 피로한 몸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들어온 사람더러 말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나는 죽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이건, 당신이 좀더 집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자식들과 모든 것이 이렇게 편편할 거를 왜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맘 변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그게 아니라 남의 속을 일일이, 나가서 일하는 걸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또 만약에 말을 해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는 말이라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을 못하고 나를 믿어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믿어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믿어진다면 아무 말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지혜를 넓힌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을 생각하고 셋을 생각하고 넷을 생각하고 백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그걸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좁게 생각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더 커질 수가 없고 한 발을 한번 뛰어넘을 수가 없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항상 마음을 안으로 굴리면서 지혜를 넓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문) 저는 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 번 조언을 해 봤습니다만 여전히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게 막막할 뿐입니다. 정말 제 남편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답) 모든 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 자기가 하는 것대로 끼리끼리 이렇게 맞상대가 되고 모이게 되고 거론이 되고 전달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업보다 업보다 하는 겁니다. 유전이다,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둘이 너무도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생명에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거를 거저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고만 죽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사람이라고 합시다.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항상 믿고 열쇠를 맡기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쪼끔도 깔축은 없는데 융통성이 조금 없어요. 지혜가 있고 좀 더 하면은 좋을 걸….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너무나 착하니까. 모든 각 우주의 법망에 어디든지 통과가 안되는 게 없거든요. 이것이 인간에게도, 이 지구에도, 어떠한 물체에도, 어떠한 별성에도 통신이 되는 겁니다. 전체 통신이 가능하죠.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어디서 돌보든지 돌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한테 뭐든, 이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봅니까. 네? 왜 거길 봅니까?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만날 그 그릇에서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습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해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더 이렇게 해서 내면은 좋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를, 이거는 "이 접시에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이겁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이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거든요.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됩니다.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서 '아, 그때는 이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고정되게만 보지 마라 이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을 다른 거를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정되게만 보지 마시고 둘이 아니게 마음을 내면서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되다가…

문) 놓고 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참 잘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편안한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 의정도 안 나고 뭔가 마음의 채찍이 필요한데 안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갑갑해집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답) 아니, 왜 그렇게 요량이 없습니까? 그것이 잘되는 것만 알았지, 내리고 타는 거를 몰라서 그래요. 타면 내리고 내리면 타는 걸 몰라서, 걸림 없이 돌아갈 줄 몰라서 그래요. 50% 물질세계의 그 되는 것만 알았지, 물질세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그 보이지 않는 데서 걸림 없이 돌아가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되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그냥 맡겨 버리고 놓으면 되지, 뭐가 답답합니까, 그렇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빨리빨리 현실로 나오게 하는 작업도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 건데 그렇게 그냥 급한 마음을 가져서 되겠어요? 좀 느직하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되게 하는 거라면, 안되게 해서 좋은 일이라면 안되게 하고, 또 되게 해서 좋은 일이라면 되게 해라 하고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것도 남의 돈을 부쩍 얻어 가지고는 아니, 하게 해 가지곤 망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라면 못하게 하고, 되게 하려면 되게 하고, 이걸 양단간에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러고 해결을 봐야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지, 그저 아무거라도 해서 웅둥거려서 하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양단간에 점을 찍으려면 그렇게 해서 놓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 믿질 못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굴어요? 어련히 자연적으로 생길까 봐. 안 그래요?



열반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비유하자면 콩이 아주 잘 익었다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죠.
그런데 덜 익은 거는 속껍데기가 짝짝 불어가지고는 까도 안 까집니다.
그래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게끔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임진년에도 더 힘차게 군 포교에 매진하겠습니다.
임진년에도 청년 불자 교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임진년에도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임자광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합장
국군불교총신도회·국군불교후원회

논산훈련소 신축불사 후원계좌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농협 301-0063-3042-71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현재(2011.12.26) 모연금은 83억 원이며 2012년 4월까지 5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02)749-8646, 797-7266 www.gunindra.com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현장
2011.12.26 현재 공정율 85%

창사 19주년 기념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 얀 마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7일, 2월 23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유류할증료 포함)

▣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 바간 | 헤오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신년휘호





동성 스님은 …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동진 출가해 1964년 정덕 스님을 은사로 승려가 됐다. 통도사,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조계종 중앙교육원, 동국대 선학과, 동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수학했다.
부처님 가르침과 화두가 있는 선화를 창작하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19차례의 선화전을 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불교를 전하는 문화포교에 정진해왔다.
스님은 경남향승(군종담당관)위원장,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선미술인회 대표, 창원 봉국사 주지이다.

새 아침 칼럼

'부적' 못 알아보는 도깨비가 필요하다



조 성 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자성 쇄신 결사에 불교 미래 달려
그 분기점이 임진년 대중공사
우리 각자가 개혁 주체·대상 돼야

새해 인사드립니다.

흐르는 세월에 끝과 시작의 새 마디를 엮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에는 시종(始終)이 없을지 몰라도 일에는 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심(發心)의 전후가 다르듯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일 년은 돌아보고 점검하는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불교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26일 자승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포하셨습니다. "뭇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뒤 처진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새로운 불교를 만들고자하는 실천적 결단이었습니다. 결사 선언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탓'을 말하자면 건국 이래 권력자들의 친미 기독교 성향,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기독교 편향 정책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자성의 바탕위에 결사가 지향하는 새로운 한국불교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불교의 사회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불교
- 외부 의존적 관행을 탈피하여 우리 스스로 종단을 운영하는 자주불교
- 종단 및 사찰 운영에 있어 대중공의를 실천하는 불교
- 생명평화의 실천을 통해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는 불교

한마디로 한국불교의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어왔던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 시작을 선포한 지 꼭 일 년 되었습니다. 결사 선언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만큼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도법스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결사본부가 만들어졌으며, 결사본부 산하에 크고 작은 여러 위원회가 결사의 이념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이번 결사가 '대중공사'라고 하는 불교전통의 개혁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공사'란 말 그대로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불교 전통의 민주적 공의절차입니다. 결사본부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중공사를 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자료집과 누리집을 만드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준비를 바탕으로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대중공사가 올해 초부터 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불교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1년의 '자성과 쇄신' 결사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슬그머니 '뱀 꼬리'가 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올 임진년(壬辰年) 시작되는 대중공사의 성패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중공사가 성공적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부대중의 참여의식입니다. 여기에서 침묵은 미덕일 수 없습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은 물론이며, 불꽃 튀는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야단법석'과 '아사리판'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속(僧俗), 노소(老少), 승니(僧尼)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 불교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부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동안 불교계에는 개혁을 가로막는 많은 '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직(聖職)이라는 부적, 원로라는 부적, 전통이라는 부적, 관행이라는 부적 등 구태(舊態)를 상징하는 많은 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적이 부적일 수 있는 것은 도깨비가 부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도깨비가 몰라본다면 부적은 더 이상 부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부적을 몰라보는 용기와 부적을 무시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의 원천은 부처님의 정법에 대한 확신이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입니다.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중의 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유신(維新)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자손이다. 파괴란 무엇인가, 유신의 어머니다. 세상에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개 말들을 할 줄 알지만 파괴 없는 유신이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저는 만해의 이 말씀이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대중공사에서 우리가 지녀야할 중요한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해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파괴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한 파괴는 파괴가 아니라 유신이며, 개혁일 것입니다. 요즘말로 한다면 '창조적 파괴'(de-creation) 정도가 될 것이고, 불교 표현으로 하자면 파사현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파괴와 창조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위에 집을 지을 수 없고, 딛고 선 땅을 박차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개혁은 자기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긍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성과 쇄신 또한 그러합니다. 자성의 그 지점이 바로 쇄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면서 개혁의 주체가 될 때 한국불교는 21세기 새로운 불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그간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작동해오던 각종의 '부적'들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우선 저 자신부터 개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 새해인사를 마칩니다.

社說

세상 변화의 주인공 되자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어느 해 보다 경건하고 비장하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안보 상황마저 뒤숭숭한데다가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이 주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안정과 화합을 비탕으로 순항하는 한 해가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말 할 것 없이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인들 진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마는, 무지갯빛 꿈에 부풀어 있을 한가한 시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상처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그 시끄러움과 상처를 약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지 않았는가? 〈보왕삼매론〉에서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살이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다. 병도 곤란도 장애도 모두 바른 삶을 개척하는데 약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혼란을 질서로, 두려움을 용기로, 분열을 통합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는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불자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세찬 격동의 바람이 불어도 불자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진심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진실한 마음, 진리에 계합한 마음, 진실을 숭상하는 마음이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동사섭의 도리로 살아가는 것이 진심의 삶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여 큰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심이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도 던지는 용기도 진심이다. 진심은 선과 악의 개념도 초월한 절대선의 자리에서 삶의 숭고한 에너지를 분출시켜 준다. 진심은 불심인 것이다.

진심을 잃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른 안보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총선과 대선에서도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진심이 빛을 바랜 탓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폐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편견과 독선이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탓이다. 물론 편견과 독선은 진심을 잃어버린 곳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진심을 잃지 않으면,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 모든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나와 남을 따로 보는데서 비롯된다. 나는 언제까지 나이고 너는 언제까지 너인가? 어제의 네가 오늘의 나임을 자각하고 원융과 화합의 길을 밝힐 때 세상은 정토가 된다.

진심을 잃지 않으면, 그야말로 곳곳이 부처님 땅이고 일마다 부처님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올 한해 불자들은 진심이라는 두 글자를 뼈에 새기고 살기를 당부 한다. 진심이 모든 불자들에게 공통의 화두가 되길 제안한다. 그래야 불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결사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빛바래지 않는 진심으로 항상 맑고 향기로운 삶을 열어가는 불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그 주변에 불자를 닮으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것이 불법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다. 불자가 부처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불자를 닮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17교구 본사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 보현사
화엄불교대학 · 부설 룸비니 어린이집
주 지 일원
상임지도법사 제환
ttp://www.jbbulgyo.org/
법회 안내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신도신행연합법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청년회 법회 - 매월 2 · 4주 수요일 오후 7시
* 화엄불교대학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대불련 연합법회 - 매월 1 · 3주 금요일 오후 7시
* 운전자 불자 연합회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 합창단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 (063)277-3497 / Fax (063)275-0108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운문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학 장 명성
주 지 일진
율원장 흥륜
대중일동
■ 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www.halla.co.kr


파주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금강대교


상해경은대하빌딩

HALLA


시그마타워


옥계항만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웨스턴돔

'풍요로운 미래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한라건설

한라건설은 국내외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환경사업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한라건설이 움직이는 곳, 한라건설이 도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라건설

사홍서원 四弘誓願

현대불교
2012년 1월 1일 일요일 / 불기 2556년 제 869호 B1

불교신행의 지남…자기완성과 이웃구제 맹세



불교는 서원(誓願=pranidhana)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이란 불교도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이웃을 구제할 것을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다짐하고 실천해간다는 뜻에서 서원은 발원(發願)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또한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祈願)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절대자의 권능에 기대려는 것은 유신종교적인 발상이다.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 어디에서도 수행과 교리체계를 설명하면서 기원이나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혹시 불교를 내세우면서도 기도나 기원을 강조한다면 용어의 족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서원이나 발원이라는 말은 넘치게 나타난다. 특히 대승경전이면 어디에든 불보살의 서원이 제시되지 않는 곳이 없다. 아미타불은 법장이란 이름의 수행자였을 때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48가지의 서원을 세운다.(아미타경) 약사여래는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해 12가지의 서원을 실천한다.(약사본원경) 보현보살은 불도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10가지 행원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화엄경)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손톱만큼의 이익이라도 챙기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원의 철학'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사홍서원은 '한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노라(衆生無邊誓願度) 한없는 번뇌를 다 끊겠노라(煩惱無盡誓願斷)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노라(法門無量誓願學)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노라(佛道無上誓願成)'는 참으로 거룩한 다짐이다. 이 다짐에는 불교 신행의 두 가지 중심가치인 '지혜'와 '자비'가 잘 나타나 있다.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자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생을 다 제도하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것은 교화를 통해 온 세상을 정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실천이며 불교적 이상의 구현인 수행(지혜)과 교화(자비)의 완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의식은 그 실천을 다짐하는 사홍서원의 합송으로 끝난다.

불교적 서원의 최고형태인 사홍서원의 원형은 〈법화경(法華經)〉 약초유품에 근거한 것이다. 〈법화경〉은 여기서 가섭에게 '여래가 출현한 것은 비유하면 거대한 구름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윤회의 세계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불사를 한다고 설명한다.

"해탈하지 못한 사람을 해탈케 하며(未度者令度),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게 하며(未解者令解), 안락을 얻지 못한 사람을 안락하게 하며(未安者令安),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열반을 얻게 할 것이다(未涅槃者令得涅槃)."

'법화경'에 근거 · 천태지의 명명

부처님의 이 같은 자비를 '사홍서원(四弘誓願)'으로 명명한 사람은 중국 수나라 때의 고승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였다. 대사는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蜜次第法門)〉이라는 글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리심이란 보살이 중도를 실천하며, 올바른 지혜로써 제법의 실상을 관하며, 일체중생을 연민하는 대비심을 일으키며, 사홍서원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사홍서원이란 첫째, 아직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무변이지만 맹세코 제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뇌가 무수히 많지만 맹세코 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평안을 얻지 못한 중생을 평안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맹세코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넷째,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중생을 열반을 체득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상의 불도를 맹세코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사홍서원은 부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고자 하는 불자가 종교적 실천을 다짐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서원은 다분히 대승불교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불교의 뿌리가 부처님 그분에게 있다면 서원의 철학도 당연히 부처님에게서 비롯을 찾는 것이 옳다. 그 증거의 하나가 〈불본행집경〉 27권 향보리수품의 기사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를 마련하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고 정각을 얻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부처님은 이 서원대로 보리수 아래서 모든 고난과



홍 사 성
불교평론 주간

불교의식의 사홍서원 합송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다짐
서원보다 기원 넘쳐나는 현실
아름다운 서원 하나씩 세워보자

번뇌를 극복하고 무상정등각을 성취했다. 실로 부처님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금강불괴의 서원력(誓願力) 때문이었다. 그래서 뒷날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외에 서원과 방편 등 네 가지를 더 추가해 십바라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불교가 얼마나 서원을 중요시하는 종교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과거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수행자는 반드시 서원을 세우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중아함 26권 〈원경(願經)〉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부처님과 이웃의 은혜를 갚기 위해, 친족이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내게 음식과 의복과 모든 생활도구를 보시하는 사람에게 큰 공덕이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하여 성취하려는 원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모기와 등에의 욕설과 매질을 참으며 몸에 병이 들어 목숨이 끊어지려 한다 하더라도 즐겁지 않은 일을 견디고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끝내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만약 욕심과 분노 해침의 생각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모든 번뇌를 끊고 수다원과와 사다함과와 아나함과와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하여 성취하려는 원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은 불자가 서원을 왜 세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불자가 서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

된다. 여기에는 이미 대승불교의 이상인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수행은 '부처님과 친족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다는 점에서 하화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온갖 어려움을 참고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원과 같은 거룩하고 멋진 신행의 지남(指南)을 가진 불교가 현실에서도 그 이상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유보된다. 불자를 자처하면서도 불교가 지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삼독의 극복은커녕 욕심을 확대하는 무한경쟁을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보다는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기원만이 넘쳐난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부처님보다는 외도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 신행의 현주소라면 부처님 뵙기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는 입으로만 사홍서원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신행을 할 때가 됐다. 고려 때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화상은 발원문을 지어 아침저녁 이런 다짐을 했다.

"이 세상 곳곳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행복을 얻게 하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온갖 고통 면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생사고해 해탈하며 오래도록 이와 같이 교화하여 마침내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게 하겠노라(十方世界無不現 普令衆生入無爲 文我名者免三途 見我形者得解脫 如是教化恒沙劫 畢境無佛及衆生)"

우리도 올해부터는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서원을 하나씩 세워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는지.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www.hanmaum.org

〈국내 · 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9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FAX:(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i,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 Bom Retiro-Sao Paulo-
CEP: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壬辰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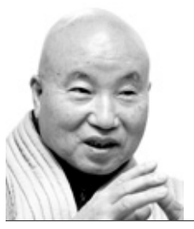
원장 대 행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자성의 중생심 먼저 제도해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衆生無邊誓願度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대승보살의 네 가지 큰 서원 가운데 첫째는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다.

이 세상에 생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지만 어느 생명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자기의 지은 습관적 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며 괴로움에 고통 받고 있지만 본성은 하나 같이 맑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성품과 차별이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마음에 덮여 있던 무명의 어리석은 옷을 벗어버리는 깨달음의 순간 모든 생명이 가진 본래의 성품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밝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일체 중생은 모두가 평등하게 반야의 밝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만 각자의 청정한 마음이 대상인 여러 가지 환경에 물들어 밝은 지혜의 체성을 가리고 번뇌 망상이 되어 잘 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잘 못된 판단으로 갖가지 행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서 어리석음의 업으로 잘 못된 과보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의 괴로움을 보고 측은한 마음 즉 대자대비의 마음을 일으켜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다 건져내겠다는 서원이다. 이 서원은 곧 부처님의 원력이요,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는 보살과 모든 불제자의 서원이다.

부처님은 본래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큰 원력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출가를 단행하였고, 극기의 고행을 수행하여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고 즐거움의 세계를 증득하는 길을 터득하고 80평생을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의 말씀은 모두가 괴로움의 번민에서 벗어나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즉 열반 · 해탈의 길이다. 이것은 모두가 중생의 병을 치료하여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처방전이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환자가 믿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의 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에 합당한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중생무변서원도 즉 '중생을 다 건지 오리다.' 하는 것은 먼저 서원을 세우는 신행적 다짐이며 대승적 사회정화의 원력이다. 그러나 자성중생서원도 즉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하는 것은 자기 자성의 개혁적 실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어 수행하신 것은 먼저 자성의 개혁이었다. 자성의 개혁은 곧 전식득지(轉識得智) 즉 인식의 전환을 통한 지혜의 체득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이상 남을 제도한다는 것은 삿된 허상이요 망언일 따름이다.

남을 도운다고 할 때 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있어야 한다. 내 스스로도 나의 마음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고집과 아만 그리고 탐욕과 성냄에 자유롭지 못한 어리석음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무엇으로 남을 제도하겠다는 것인가? 먼저 참회하는 수행을 실천하면서 사홍서원의 원력을 다져보자.

〈육조단경〉에 혜능조사가 대중들에게 참회를 하게 한 후 사홍서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중생무변서원도' 는 곧 '자심중생무변서원(自心?生無邊誓願度)도' 라는 것을 간절히 밝히고 있다.

"선지식들이여! 중생이 무변하지만 서원코 제도하리라 하는 것은 혜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속의 중생이란, 말하자면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 미치거나 망령된 마음, 착하지 않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이 다 중생이니라. 각자가 반드시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제도해야 한다. 어떤 것을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느냐? 즉 자기 마음 가운데 삿된 견해와 번뇌가 어리석은 중생이니 바른(正見)을 가지고 제도해야 한다. 이미 정견이 있으니 반야의 지혜를 사용하여 어리석은 미망의 중생을 타파하여 각자가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삿된 것에는 정견으로 제도하고, 미혹에는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제도하고, 악은 선으로 제도하여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이 참된 제도라 이름하느니라."

지혜 체득한 밝은 마음이라야
정견으로 자비실천 사회정화 가능

여기에서 내 마음의 중생심이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행심인 번뇌와 망상을 스스로 제거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남을 제거하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제도하지 못하는 중생의 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중생무변서원도의 서원은 자기 자성의 중생을 반드시 제도하겠다는 견고한 신념이다. 이 신심이 견고하지 못하면 나머지 세 서원을 성취할 수 없다. 자성의 반야의 지혜로써 헛된 생각을 제거하고, 반드시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 항상 정법을 실천하고, 항상 하심(下心)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실현하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불자의 염원인 사홍서원의 실현은 각자의 수행을 통한 습관적 업식의 전환에서 체득되는 반야지혜의 밝은 마음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업 아닌 번뇌 제거가 열반의 길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煩惱無盡誓願斷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어느 불교법회에서나 불자들은 네 가지 큰 서원을 되새기며 법회를 마친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서원이 '번뇌무진서원단' 이다. 그 의미는 다할 수 없이 많은 번뇌를 영원히 소멸시키기를 서원한다는 것이리라. 아마 불자라면 이 서원을 암송하면서 번뇌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번뇌를 소멸시켜야 하는지를 자문했을 것이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상세히 다루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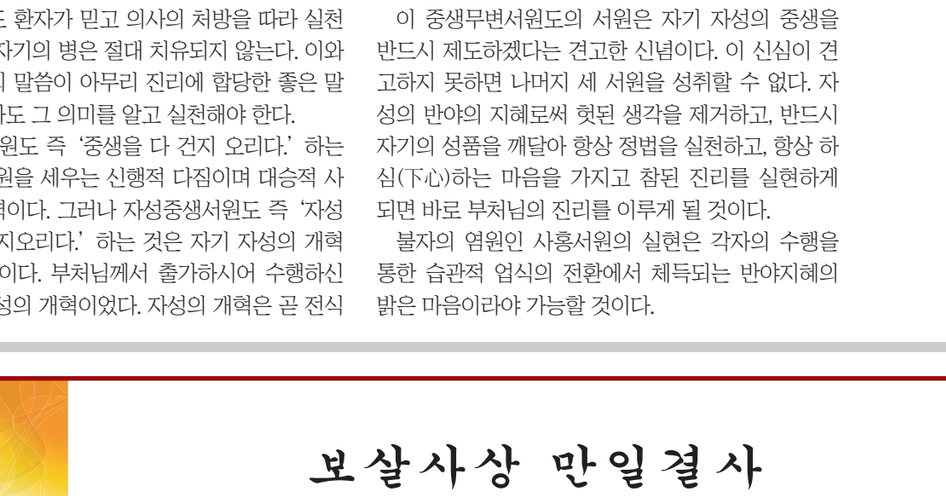
먼저 번뇌란 무엇이기에 다른 것에 앞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지를 보자. 번뇌란 단적으로 말해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이다. 우리는 매 찰나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고, 지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심리적 과정에서 마음을 염오시키는 모든 부정적인 심리적인 의식작용들을 총괄해서 '번뇌' 라고 부른다. 따라서 번뇌에는 인지적 요소뿐 아니라 정서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붓다의 최초의 설법으로 여겨지는 〈초전법륜경〉에서 이미 번뇌가 핵심적인 윤회의 원인으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본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설인 사성제에서 갈애가 고통의 원인으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12지 연기설에서도 무명은 모든 것의 일차적 원인으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서 갈애란 '탐' 의 동의어이며, 무명이란 '치' 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번뇌가 불교에서 일차적인 윤회의 원인으로서 간주된 것일까?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다른 핵심적인 요소들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생노병사가 고통이라면 우리를 생노병사로 이끄는 업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보다 관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길 것이다.

통찰 수행으로 탐진치 백팔번뇌 극복
아라한 된 앙굴리말라의 해탈이 모델

하지만 나는 고통의 소멸로서의 열반의 증득이 업의 제거가 아니라 번뇌의 제거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했다는 점에 바로 불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존께서 활동하셨던 무렵 당시 인도의 바라문이나 비불교 사문들은 의례나 고행을 통해서 무수한 전생을 거쳐 축적된 업이 정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열반의 성취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무한한 과거세에서 축적된 업의 전적인 정화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심스러울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유명한 앙굴리말라의 스토리일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세존의 제자가 된 후에 마침내 번뇌가 제거된 아라한이 되었던 인물이다. 만일 업의 정화를 통해서 열반의 증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앙굴리말라와 같은 살인자에게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함에 의해 고통과 재생으로부터 해탈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불교에서는 현재의 심작용의 관찰과 컨트롤에 핵심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업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형성시킨 힘이고, 또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있어서도 울타리를 치고 조건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선악과 같은 현재의 심작용의 도덕적 성질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결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 발사된 첫 번째 화살을 모두 피해 갈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함으로써 욕망과 증오, 무지에 의해 투사된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수행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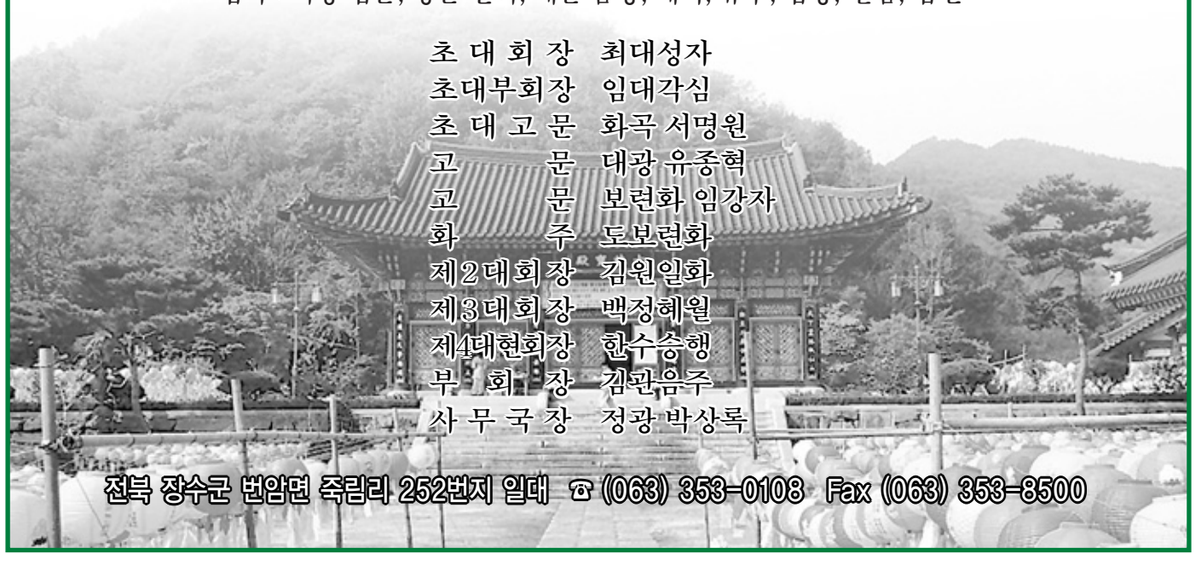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번뇌를 제거해야 하는지를 보자. 초기불교 이래 번뇌의 다양한 측면을 탐 · 진 · 치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번뇌가 가진 중요성 때문에 이를 세분해서 분류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08 번뇌설인데, 여기서 유신견과 변집견, 邪見, 견취, 계금취, 탐욕, 미움, 무명, 자만, 의심이라는 10종의 근본번뇌가 사성제 및 삼계와 함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삼계로 윤회하는 것은 이들 10종 번뇌에 의해 사성제에 대해 미혹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 번뇌는 앞의 5종의 인지적 번뇌와 뒤의 5종의 정서적 번뇌로서 다시 구분되는데, 이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인지적 방식과 정서적 방식 모두의 측면에서 미혹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의식(=有身見)이다. 자아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언제나 자아를 설정할 것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아중심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무아의 반대로서 공성의 통찰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근본주의와 관련하여 견취에 대한 불교의 분석도 흥미로울 것이다. 불교는 자신의 견해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관점에 대한 취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도그마이든 간에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관념의 절대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년에 들어 부디 이런 자기비판적 성찰이 모두에게 공유되어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한결 성숙해지길 바라는 것이 단지 나의 헛된 꿈일까?

보살사상 만일결사
大韓佛教 曹溪宗 金剛禪院
선 원 장 혜 거


〈 제1회 금강경 강송대회 〉

법회일정안내
· 금강경 수요경전법회
· 화엄경 금요경전법회
· 선하불교대학
· 성인기초참선
· 청소년기초참선

www.geumgang.org , cafe.daum.net/sunmoontemple/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용성진종 조사 탄생성지·백두대간중심지
장안산하 죽림정사
(竹林精舍)
조 실 불심 도문 주 지 지광 법륜
총 감 월암 총 무 법장
교 무 법현 사무국장 김규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회
지도법사 불심 도문
법사 : 지광 법륜, 향운 환희, 혜운 금장, 혜력, 유수, 법장, 월암, 법현
초 대 회 장 최대성자
초대부회장 임대각심
초 대 고 문 화곡 서명원
고 문 대광 유종혁
고 문 보련화 임강자
화 주 도보련화
제2대회장 김원일화
제3대회장 백정혜월
제4대현회장 한수승행
부 회 장 김관음주
사 무 국 장 정광 박상록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일대 ☎ (063) 353-0108 Fax (063) 353-8500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法門無量誓願學



배광식
국제포교사회장

새해 설날(음력 납월 8일)이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며 깨치신 성도절이다.

2500 여 년 전, 싣달타는 왕궁의 쾌락을 버리고 극단의 고행을 했으나 깨달을 수 없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즈음,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마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한 후, 우유죽을 담았던 금바루를 강물에 던지며, "내가 부처가 될 것이면 이 바루가 강물을 거스를지어다"라고 하니 과연 바루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갔다.

"내 몸이 다 닳아 없어지고, 피가 마를지라도,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보드가야의 피팔라 나무 아래 동쪽을 향해 좌정한 태자는 샛별이 뜨는 새벽에 깨달음을 얻었다. "수많은 윤회를 겪으며,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맸고, 드디어 윤회고통에 빠뜨린 집 짓는 자 너를 보았다. 서까래와 대들보는 산산이 부서져 이제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한다. 갈애를 멈추었고 마음은 생멸을 벗어났다." 실로 성을 넘어 출가한지 6년만이다.

이 후 7주간 깊은 선정에서, 무명으로 인하여 생노사에 이르는 고집(苦集)의 유전연기를 순관(順觀)하고, 밝은 지혜로 생노사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멸도(滅道)의 환멸연기를 역관(逆觀)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고집멸도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를 투철했다.

부처님 최초설법은 기원 전 528년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콘다냐 등 5비구에게 행해졌다. 이른바 〈초전법륜경〉으로, 유익하지 않은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여의고, 여래가 실현한 중도 곧 8정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음과 사성제를 말씀하셨다.

이보다 앞서, 5비구를 찾아 가는 중 마주친 아지비카(사명외도) '우파카'가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대는 무엇을 발견했소?' 라고 물었고, 부처님은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며 부처요' 라고 답했다. 적확한 답변이었지만 번뇌에 가린 아만이 건드려져, '정말 깨달았을라고? 아니겠지!' 라는 마음이 일어난 그는 씨익 비웃으며 지나가 버렸다. 법문을 이해할 사람이 없을까봐 설법을 망설였던 부처님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젊은 야사 등을 더해 60인의 비구승단이 된 때에 '뭇 생명의 안심과 행복을 위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법문' 을 하도록 전도선언을 하고, 부처님께서 우루벨라로 향하신 후 45년간 길에서 길을 보이신 경율과, 후대에 혜명을 이은 조사들의 논(論)이 경율론 삼장이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이를 담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회의하며,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다가도, 이내 일상 속에 이정표 없이 떠밀려 다닌다.

불타는 벌판 성난 코끼리에 쫓기다가 겨우 매달린 낭떠러지의 칡넝쿨을 흰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쏠고 있다.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에 취해, 칡넝쿨이 끊어지면 곧 바닥에 도사린 독사와 독룡의 밥이 될 것을 잊고 사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다행하다. 인생이 고인지 알고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이미 앞서 부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쉬이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근기와 상황에 따라 많은 법문을 설하셨고, 역대조사께서 또 많은 부연(敷衍)을 하였다. 한 권의 책에 모든 것이 담길 정도의 단순한 이웃종교와 달리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에서 근원하는 것, 뿌리만 잡고 있으면 모든 갈래가 한줄기로 꿰어진다.

'사성제에 전념하라' 부처님도 당부
팔만대장경에 의지 깨달음 이뤄야

서원 크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거워
설산동자의 구법서원을 본받자

그 뿌리가 사성제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숲에 비유한다면, 초전법륜의 내용인 중도와 사성제는 숲속 한 나무 가지를 훑어 주먹 안에 들어온 나뭇잎 정도의 적은 량이다.

이를 설한 이유는 이익과 성스러운 삶의 향상을 가져오고, 열망(번뇌)을 잠재워 그치게 하며, 고요함(寂靜)과 직접적인 지식(證智)과 깨달음(等覺)과 열반(涅槃)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성제에 전념하도록 당부하셨다.

사홍서원은 사성제를 전념하는 것이니, 맹세코, 고의 진리를 전념해 고통 중생을 건지고, 집의 진리를 전념해 번뇌를 끊고, 멸의 진리를 전념해 부처 되고, 도의 진리 곧 계정혜를 전념해 법문을 다 배워야 한다.

사람보다 부처님 가르침, 말보다 뜻, 지식보다 지혜에 의지하고, 궁극에 이르는 경전에 의지해야 한다.

〈법화경〉 제14 안락행품에 서원안락행이라는 말이 있다. 서원이 크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게 하게 된다. 맹세코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되 그 근본은 사성제로 그 안에 연기와 중도와 삼법인 나아가 팔만대장경이 모두 들어 있다. 한글세대에게 한문경전이 어렵다면 영어경전을 보면 훨씬 명쾌하고 쉽다.

설산동자의 몸을 버려 법을 구하는 서원을 본받을 일이다.





장님에게는 눈이 되어 주시고…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佛道無上誓願成



김광하
작은손길(삼륜의집) 대표

12월 초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러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 된 것이다. 지난 1974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40여 년이 지나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경제는 압축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불과 100년 전에는 왕조국가의 유산을 안고 일체식민통치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거의 선진국 수준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그늘 또한 깊게 깔려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인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2009년 한 해에 자살한 한국인은 모두 1만 5413명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08년(1만2858명)에 비해 약20% 늘어난 숫자이다. 하루 평균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지난 10년 간 해마다 평균 230여 명의 대학생들이 가난과 취업고로 자살을 하고 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자살을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끊임없이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극단적인 길을 택하고 마는 것이다. 무역규모 1조 달러, 세계정상을 누비는 스포츠와 음악, 그리고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종교시설, 활발한 NGO활동 등 눈부신 모습과는 달리 중산층이 무너지고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율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민의 58%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절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 양극단의 현상을 깊이 걱정하지 않으면, 분열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비정상적인 인격이 자라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총기사고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노숙자 독거노인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에 다가가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기도 하다.

"병자를 찾아가 간병한 일 있는가"
외로운 비구 "간병한 일 없습니다"

병자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
이웃 고통에 동참 진리 알게해

오늘 부처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경책을 받을까? 경전에 나오는 한 비구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한 비구가 병이 걸려 누웠다. 그 비구는 아파도 곁에서 간호해주는 비구가 없었다. 이윽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비구는 큰 소리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소문을 들은 부처님이 이 비구를 찾았다. "간호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누가 와서 돌보아 주지 않는가?" 비구는 대답했다.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도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날 병들기 전에 그대는 병자를 찾아가 문병한 일이 있는가?" 그러자 비구는 대답했다. "병자들을 찾아가 문병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바른 법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문병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든 비구는 평소 이웃 비구가 아파도 문병을 가지 않는 그야말로 남에게는 인색하고 제 몸의 안락만을 추구했던 것이다. 마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윽고 일의 전말을 짐작하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비구여, 그대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접 그대를 공양하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부처님은 병든 비구를 손수 간호하셨다. 경전은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손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다시 좌구를 까셨다. 또 그의 옷을 빨고 병든 비구를 부축해 앉히고, 깨끗한 물로 목욕시켰다. 그 비구를 목욕시킨 뒤에 평상 위에 앉히고 손수 밥을 먹여주셨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밥을 다 먹은 것을 살피시고는 발우를 치우고 곧 그에게 생노병사의 괴로움과 12연기 등 해탈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비구들을 불러 모아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였다.(〈증일아함경〉 제40권 구중생거품 요약)

아픈 비구를 보살피는 부처님을 보면 스승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낸 친구와 같다. 부처님은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사람의 벗이 되어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마침내 생노병사에서 벗어나는 진리에 눈을 뜨게 해 주었던 것이다. 스승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다녔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분은 건너지 못한 이를 건네주시며,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하도록 길을 알려 주시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사람을 보살펴 주시며, 장님에게는 눈이 되어 주십니다."(〈증일아함경〉 제13권 24 고당품 요약) 절망에 빠진 이웃은 끊임없이 주위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마침내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 곧 위없는 불도를 이루는 길이 아닌가.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책하실 것 같다. "그대는 바른 법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문병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법만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번지 전화 063)561-1422
홈페이지 http://www.seonunsa.org

선운사 템플스테이
■ TEL 063)561-1375

선운사 성보박물관
■ TEL 063)561-1422

선운사 백파사상연구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TEL 063)561-1422

선운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도완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14-4 TEL 063)563-1111

도 솔 암
감원 종고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TEL 063)564-2861

참 당 암
감원 을광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05 TEL 063)563-3440

석 상 암
감원 보원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94 TEL 063)563-4091

동 운 암
감원 무공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29 TEL 063)562-1608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원장 재연
■ TEL 063)561-1419

선운사 참당선원

내소사 봉래선원
선원장 철산
■ TEL 063)561-1419

월명암 사성선원

각 화 사
주지 법성
■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332 TEL 063)563-4964

상 원 사
주지 대륜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산1 TEL 063)563-2594

문 수 사
주지 선법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48 TEL 063)562-0502

홍 연 암
주지 재석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73 TEL 063)563-3787

미 소 사
주지 종범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176-2 TEL 063)564-6232

성 불 암
주지 상운
■ 전북 정읍시 쌍암동 463 TEL 063)536-4247

내 장 사
주지 지선
■ 전북 정읍시 내장동 590 TEL 063)538-8741~3

옥 천 사
주지 인철
■ 전북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산14 TEL 063)534-4488

보 림 사
주지 석우
■ 전북 정읍시 북면 보림리 938 TEL 063)535-6800

정 토 사
주지 원공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상북리 28 TEL 063)537-9222

유 선 사
주지 성수
■ 전북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산1 TEL 063)536-0583

미 륵 암
주지 자윤
■ 전북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산6 TEL 063)536-3949

운 주 암
주지 성락
■ 전북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산296-1 TEL 063)536-3949

내 소 사
주지 진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3 TEL 063)583-7280~3

개 암 사
주지 혜오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TEL 063)581-0080

성 황 사
주지 시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401 TEL 063)582-5844

월 명 암
주지 천곡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7-1 TEL 063)582-7890

실 상 사
주지 한우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164 TEL 063)584-0108

내 원 암
주지 현효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361 TEL 063)581-3283

혜 원 사
주지 정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39-4 TEL 063)584-5710

신 흥 사
주지 법지
■ 전북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360 TEL 063)643-2178

죽 림 암
주지 재정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525 TEL 063)642-3270

해 월 암
주지 정오
■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725 TEL 063)642-6161

도 통 암
주지 문수
■ 전북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산43 TEL 063)642-7798

상 이 암
주지 동효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86 TEL 063)642-6263

구 암 사
주지 지공
■ 전북 순창군 복흥면 봉덕리 374 TEL 063)653-7641

강 천 사
주지 법연
■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997 TEL 063)652-5420

대 용 화 사
주지 혜산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75-4 TEL 063)836-8703

지 장 암
주지 서경
■ 광주시 북구 본촌동 산 14-1 TEL 062)571-2651

덕 림 사
주지 대선
■ 광주 남구 월산 1동 304-7 TEL 062)361-8413

대 안 사
주지 보각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8 TEL 017-287-7294

만 일 사
주지 적광
■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337 TEL 063)653-5283

실 상 암
주지 병호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671 TEL 063)653-3384

죽 림 정 사
주지 정허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42-2 TEL 032)679-3490

약 천 사
주지 정안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41-5 TEL 031)532-2847

성 곡 사
주지 계진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8-150 TEL 031)563-4282

법 계 사
주지 재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306 TEL 031)443-8540

대 모 암
주지 동산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361 TEL 063)653-3549

동 국 사
주지 종명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TEL 063)462-5366

국 청 사
주지 혜성
■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803 TEL 031)743-6801

전 등 사
주지 동명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46-3 TEL 02)762-0643

불교문학포교원
주지 혜관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8 TEL 02)308-9520

서 호 정 사
주지 종원
■ 부산시 진구 범천2동 1269-15 TEL 051)644-7100

관 음 사
주지 도천
■ 전북 군산시 나운동 755-1 TEL 063)471-0198

성 불 사
주지 종걸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15-11 TEL 063)445-3266

금 선 사
주지 도수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산22-2 TEL 051)727-4964

좋 은 절
주지 법경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 TEL 031)263-4361

부루나포교원
주지 선일
■ 인천시 서구 가좌3동 81-78 TEL 032)577-5108

미 륵 암
주지 정각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552-8 TEL 033)631-6123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반 룡 사

주지 혜 해

경산시 용성면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 문무왕(66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설총 선생이 유학했던 곳으로
고려 문종때 화엄 천태종 고승 원흥국사가
이곳에서 대중창을 하였다!

*원효불교대학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경북 경산시 용성면 용전동 118-2
TEL 053)852-1919
FAX 053)852-1950

대한불교조계종

충 효 사

회주 원감 해공

신 도 일 동

■ 충효사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TEL 054)338-8196 FAX 054)338-6006
■ 자비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706
TEL 054)338-1152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혜 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조계종

파 계 사

조실 청운 도원

주지 운봉 법광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TEL 053)984-4550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신도회장 윤수현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도 광
총무국장 일 우
사회국장 보 현
재무국장 덕 원

外 임직원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TEL 053)766-7232

경북 성주군 사암 연합회

회	장	천불사 법원
총	무	지안사 지안
기획실	장	수국사 지원
포교부	장	길조암 보현
조직부	장	자은사 지형
감	사	성화사 지현
		약사암 홍제
회	원	보광사 지영
		대승정사 묘덕
		북지장사 묘련
		관음사 지마
		문수사 담현
		청매암 정도
		소원사 현우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TEL 054)932-844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구교구종무원

팔공산 덕 안 사

종무원장
주 지 종 범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577
TEL 053)656-414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밀양 지 원 사

원로의장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지 공 대종사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회곡리 61
TEL 055)351-1137
FAX 055)351-2698
H·P 011-9332-8810

대한불교관정종

극 락 사

주 지 김도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476
TEL 053)851-8405
H·P 010-5126-0018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 종 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 053)945-0007 / 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주) 高靈 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 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954-8000(代)
FAX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gr@rooftile.co.kr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희 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고 방 사

주 지 성 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485
TEL 054)431-6822,6823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각운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 2리 865
TEL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대덕암
주지 혜송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0
TEL 053)763-7164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
주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대해사
"도(道)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싫어 할 뿐이로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신심명 중에서-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전화 053)818-4055 팩스 053)294-0408
www.dae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문수포교당
주지 효신
대구 · 경북지역전법단
(경찰 · 교정포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주지 실상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
TEL 053)766-3747 9088
FAX 053)767-6095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주지 보각
http://bomunsa.co.kr
(네이버 : 「앞산 보문사」 클릭!)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6동 산 221-10
(앞산 대덕식당 건너편 산쪽으로 100m)
TEL 053)652-3219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암
주지 선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일승회, 하루헌 카페, 영남불교문화연구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1-534-8950

동화사 직할 포교당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사
주지 지우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상락선원
주지 혜문
사부대중일동
BBS 불교방송 강좌 출연
'알기쉬운 불교이야기'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장2길 16-1호 (파동 23-63)
TEL 053)765-3322

대한불교조계종
송향사
[부설] 통일신라시대 미륵부처님 운암사
주지 정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103-1
TEL 053)312-5689
khn5689@yahoo.co.kr

대한불교조계종
서봉사
주지 경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석가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주지 혜성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아미사
주지 덕현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원만사
약사여래대불
주지 법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사부대중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홈페이지 www.okche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용암사
주지 보일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홍계리 177-1
TEL 054)285-0308

대한불교조계종
월인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지 허주
신도회장 권정행성
합창단장 김일심행
봉사단장 배정광해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정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대한불교조계종
장암사
주지 도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지 정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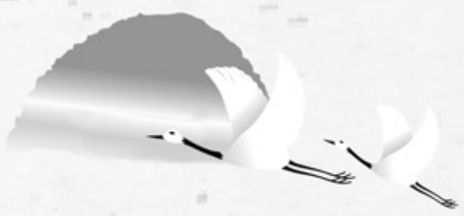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회주 무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청수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청수유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TEL 053)753-2561
[청수유치원] TEL 053)753-2563

대한불교조계종
성주취운향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주지 정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개원사 심녕총림
개 원 사
주지 문 공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96
TEL 053)981-0995

대한불교원효종
고 왕 사
주지 상 묵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흑해읍 옥성2리 367-3
TEL 054)262-0991

한국불교 구화종 총무원
총본산 구 화 사
총무원장 석 혜성
부 원 장 석 현진
총무부장 석 지법
재무국장 석 지함
대 중 일 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TEL 054)977-9733 / FAX 054)976-6454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謹賀新年
만불산 만 불 사
회주 학 성
■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산 46
TEL 54)331-0101
www.manbulsa.org

한국불교태고종
무 학 사
주지 법 등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511-1
TEL 054)243-1751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대한불교삼론종
법 천 사
주지 지 법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청하면 미남리 564
H·P 010)7130-5055

한국불교태고종
불 종 사
주지 현 진
「미륵천불전 건립도량」
■ 경북 경산시 점촌동 630-2
TEL 053)802-4043

한국불교태고종
천도도량 보 광 사
주지 지 영
■ 경북 성주군 가천며 화죽 1리 115
TEL 054)931-4281~2
H·P 010-3558-9711

古佛 전법도량
비슬산 보성선원
주지 한 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

대한불교법화종
서 남 사
주지 현 담
■ 경북 영덕읍 화계리 452
TEL 054)734-3281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대구 교구 종무원
성 불 사
종무원장 법 성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32-4
TEL 053)322-0567

대한불교태고종
성 불 사
주지 무 여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22-25
H·P 010)2426-2296

대한불교법화종
인연의 世界 수 참 사
주지 영 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하늘이 내려준 복을 누리는 도량!
월산 안 향 사
주지 조 향
■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289번지
TEL 054)232-9988 FAX 054)261-8000

은공조계종
안 평 사
주지 조평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147-14
TEL 053)801-0304

대한불교지장회
원 진 사
주지 자 신
스님의 원력과 정성으로 국내 최초
8개 자갈 돌탑조성
'萬年이 가도 변화지 않는 물처럼 살아라'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산집리 1-2
TEL 054)274-9443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대한불교법화종
용 화 사
주지 혜 각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740
TEL 054)332-0235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주석사찰
부처골 지 장 선 원
주지 혜봉 대종사
<다음카페 : 부처골 풍경소리>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
TEL 054)383-8553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 원
(성주사암연합 회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 룡 정 사
'탄생불, 다보탑, 5층석탑, 포대화상'
주지 지 덕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265
TEL 054)336-0052, 0051
FAX 054)336-00531

대한불교법화종
해 운 정 사
주지 청 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 3리 838
TEL 054)636-2201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 선 사
주지 휴 정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분양
2012년 3월 완공예정」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
TEL 054)772-7171

대한불교조계종
개 운 사
주지 진 원
■ 경북 김천시 황금동 196-3
TEL 054)434-3204
suok32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환 성 사
"흥덕왕 10년(835년)에
심지 왕사가 창건"
주지 성 담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TEL 053) 852-6561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 향 적
중 교 장 이종서
고 교 장 양근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5(지산동 800)
TEL 053)764-0807

한국불교의 원류 알려거든 경주 남산을 가라

"신라를 알고프면 경주에 가 살아라. 겨레의 혼을 알고 싶으면 서라벌의 흙냄새를 맡으라.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가 우현 고유섭 선생이 그가 아끼던 제자 윤경렬에게 한 말이다. 우현 선생은 〈경주 기행의 일절〉이라는 글에서 조선의 학고와 문화인과 백성에게 힘주어 강조했다.

선구적 문화사가요, 미학자요, 미술사가였던 우현 선생은 경주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민족에 대한 자랑과 사랑, 민족정신을 소신껏 갈파시킨 분이었다. 멀리 송도(개성)에 머물면서 우현 선생은 경주와 경주의 문화유적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이 취할 바를 지남하려 했다.

경주 남산은 옛 신라의 도읍이던 서라벌 남쪽에 솟아 있는 산이다. 경주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높은 봉우리는 468m 높이의 금오봉이고, 그 남쪽에 높이 494m 되는 고위봉이 솟아 있다. 이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계곡과 뻗어 내린 산줄기들을 모두 합쳐 경주 남산이라고 부른다.

남산에는 신라시대의 수많은 불상과 탑 등 불교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종의 문화재가 아울러 밀집·분포하고 있다. 또한 건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천년 동안의 신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자료와 유물과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다. '남산'은 하나의 단위문화재로서 단일지역에 670여 개소(건)의 문화재가 서로 어우러져 집중된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요 우리 민족의 성소이다. 산 전체가 야외법당이요 성지인 셈이다.

남산에서는 국보 제312호 칠불암마애불상군을 비롯해 보물 제63호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제124호 남산리삼층석탑 제136호 미륵곡석조여래좌상 제186호 용장사곡삼층석탑 제187호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제198호 불곡마애여래좌상 제199호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제201호 탑곡마애불상군 제666호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제909호 남간사지당간지주 제913호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제1188호 천룡사지삼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사적으로는 제1호 포석정지 제22호 남산성 제138호 서출지 제172호 오릉 제173호 일성왕릉 제186호 정강왕릉 등 14개소를 제19호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등 지방유형문화재 11점이 모여 있다.

골짜기마다 불상이 130여 기 탑이 100여 개 등이 있는 경주 남산은 민중의 손에 의해 바위마다 새겨지고 솟아난 문화재와 수려한 경관으로 2000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경주 남산을 오르는 여러 코스 가운데 신라 시대 유적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코스는 삼불사에서 바둑바위까지 이르는 길이다. 어귀에 3개의 왕릉이 있어 삼릉계라고도 불린다. **조동섭 기자**



경주 남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야외성지이다. 골짜기마다 불보살을 향한 민중의 서원이 깃들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원·정진 설화 산 전체가 야외법당이며 성지

경주 남산의 그 많은 유적들의 흔적은 누구나 찾으면 볼 수 있음은 물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갖는다면 남산에 흩어져 깃들고 있는 많은 노래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향가도 있고 기막힌 설화들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모르고 넘으면 단지 경주 남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일뿐이다. 그러나 알고 넘으면 구구절절 마음을 두드리는 사연들이 남산자락 곳곳에 서려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박대성 화백이 그린 모란꽃 모양의 '남산(2010년 作)'

수행하는 처자 만물이 보호한 열반골

옛날 신라의 고관집 외동딸이 꽃다운 나이에 이르자 뭇남자들이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유혹하며 성가시게 굴었다. 마침내 처녀는 아무도 모르게 삭발한 채 속세를 떠나 부처님 세계인 열반에 살 것을 발원했다. 갱의암에 이르러 처녀가 화려한 옷을 벗고 잿빛 먹물옷으로 갈아입자 산짐승들이 길을 막고 살쾡이가 등을 구부린 채 위협했다. 간사스런 여우, 심술궂은 산돼지, 무서운 귀신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물리친 처녀는 계곡 암자에 이르러 정진에 열중했다. 계곡에서 처녀가 목욕을 하자 이무기가 덮칠 듯 산 위에서 위협했다. 그러나 큰곰이 부처님을 동경하여 정진하는 처녀를 보살펴 주었다. 거북이도 눈을 부릅뜬 채 엎드려 처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드디어 정진을 마친 처녀가 부처님 세계로 향하는 산등성이로 올라서자 똥무더기가 처녀를 가로막았지만 진리의 마음을 깨친 처녀는 더러움도 포용한 채 열반의 세계로 향했다. 멀리 산마루에서 할머니가 성도한 처녀를 반가이 맞이하고 있었다. 처녀는 할머니를 따라 열반의 세계인 수미산으로 들어갔다. 이 골은 이 같은 전설이 깃든 열반골로 불린다. 이 골엔 인공 조각품이 하나도 없다. 하늘이 만든 갖가지 조형물이 너무나 기묘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한다. 바위에 열반의 신앙을 조화시킨 신라인의 지혜가 걸작이다.

500여m 두 봉우리 사이 40여 계곡
사이사이 곳곳 산재한 문화재마다
천년세월 비바람속 간직한 설화있어

현처 덕에 두 거사 서방정토가다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 살았다.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은 아주 막역한 친구로서 "먼저 극락으로 간 사람이 알려 주어야 한다"는 맹세를 하고 지냈다.

"나는 이미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네. 빨리 나를 쫓아오게."

어느 날 엄장은 광덕의 소리를 꿈속에 듣고 달려가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낸 뒤 엄장은 광덕의 아내를 유혹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자기와 함께 살자고 하니 광덕의 아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 때부터 소위 동거생활에 들어갔는데, 밤이 되어 부부관계를 갖기를 청하면 광덕의 아내는 "당신이 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고기를 구하는 격"이라면서 나무랬다. 이 나무람을 듣고 엄장은 광덕이 도를 닦아 정진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용맹정진했고, 결국 서방정토에 갈 수 있었다. 광덕의 처가 두 사람을 서방정토에 보낼 수 있었던 원력을 가진 것 만큼이나, 그를 통해 깨달음을 갖고 정진했던 광덕과 엄장 또한 큰 인물이라 하겠다. 그들이 정진했던 터가 바로 남산이었으니 남산의 정기 또한 대단하다.

충담이 차 올리던 불상

삼화령은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낭만적인 곳이다. 경덕왕 때 충담이란 스님이 해어져 누빈 옷을 입고 망태기를 지고 길을 가다가 임금님 앞에 불려 나간다. 어디에서 오는 중인가를 묻는 임금님에게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드립니다. 지금도 차를 올리고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차를 달여 차 공양을 드린다는 바로 그 삼화령이 남산에 있고, 지금은 경주박물관으로 옮겨다 놓은 삼화령 삼존석불이 바로 그 때 충담 스님으로부터 차 공양을 받던 그 석불이라고 추정된다. 충담 스님은 향가를 잘 짓기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임금의 청을 들어 '안민가' 한 수를 읊고 갔다.

원왕생가

광덕의 처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시어서
무량수 부처님 앞에
말씀 이르시다가 사뢰어 주소서.
다짐 깊으신 부처님께 우러러
두 손 모두옵고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사뢰어 주소서.
아으! 이몸 버려두고
사십팔 대원이 이룩될까 저어라.





“남산은 경전이고 화두”

경주남산연구소 소장 김구석



‘남산 알리기는 곧 전법’ 30년
숨쉬는 성보에 교계 관심 절실

“새긴 게 아니라, 찾아낸 거죠.”

그는 남산에 있는 모든 마애불이 그렇다고 했다. 바위에 부처님을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낸 것이라고.

경주남산연구소 소장 김구석 거사(57). 그는 오늘도 남산에 다녀왔다. ‘경주 남산’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연구소에서 만난 그의 첫인상은 평범했다. 백발이 섞인 머리와 주름이 지나간 얼굴, 살아온 만큼의 목소리와 살아야 할 만큼의 눈빛을 가진 초로의 남자였다. 하지만 ‘남산’을 시작하자 그의 표정과 말 모습은 달라졌다. 그는 남산과 남산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산에 처음 올라간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동네 뒷산에 놀러간 거였어요. 놀이터 같은 거였죠.” 그는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냈다. 중학교 때 지역불교학생회인 ‘경주학생불교회’ 활동을 하며 중학교 시절을 보낸 그는 남산을 오르내리며 고등학교를 다녔다.

“근데 머릿속에는 온통 남산인 거예요. 부서진 불상과 떨어져 나간 석탑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는 경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머릿속엔 남산이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남산. 그 남산이 그의 가슴을 흔들기 시작했다. 18년의 공직생활을 그는 미련 없이 접었다. 접어야 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궁을 나선 부처님처럼, 그는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남산을 받아들여야 했다.

경주 남산은 지금까지 150여 절터와 130여 구의 불상, 100여 기의 탑 등 700여 점의 성보가 발견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와 신앙의 산이다. 그러기에 남산은 그냥 솟아 있는 흙의 높이가 아니며, 그저 산과 산을 잇는 숲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아직도 역사가 흐르고, 신앙이 숨 쉬는, 살아있는 산인 것이다. 산에 발을 디디면 산은 역사를 읽어주기 시작하고, 한 발 한 발 산과 가까워질수록 신앙이 되어가는, 남산은 그런 산이다.

“남산 보러 온 사람들하고 함께 산을 오르면서 남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공무원시절 학창시절 보았던 남산의 풍경을 떠올리며 남산에 다시 올랐다. 남산 곳곳에 널린 불상과 탑, 사라져간 절터를 다시 찾아다니며 남산을 공부했다. 부서진 불상과 깨진 석탑을 카메라에 담았고 길을 기억하고 그 길에 깃든 전설들을 들었다. 그리고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남산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카메라에 담았던 마애불의 이름, 석탑의 이름, 절터의 이름, 절터와 절터를 잇는 길, 그 길에 전해오는 전설들. 그는 하루에도 몇 번 씩 천년을 드나들었다. 남산을 찾은 사람들이 ‘김구석’을 찾기 시작했다. 직장보다 남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그는 1984년 ‘남산사랑모임’을 만들게 된다.

“마흔 넘어 시작한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죠.” 그는 1997년 경주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에 입학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작고하신 스승 윤경렬(사학자) 선생을 보고 마음을 먹었죠. 50년 동안 신라 연구만 하시다 돌아가셨죠.” 그는 학부를 졸업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공부에 목이 말랐다. 이때 18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동국대 대학원(미술사)에 진학했다. 이때부터 그는 경주와 서울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남산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경주남산연구소’를 열었다. 그리고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된다. 남산을 알리는 책 두 권이 나오는데 대원사가 출간한 〈빛깔 있는 책들-남산(하나), 남산(둘)〉이다.



부인 임희숙씨(좌)는 열암곡에서 불두를 발견한 남산 전문가다.

“결국 남산을 이야기 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 부처님 얘기해야 안 합니까? 남산을 알리는 일이 결국은 부처님 알리는 일입니다. 남산에 있는 불상과 탑들은 문화재가 아니라 ‘성보’입니다.” 그랬다. 그는 ‘불자’다. 단순히 남산에 미쳐 사는 것이 아니라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부인 임희숙씨도 그에 못지않은 남산 전문가다. 2005년 그녀는 열암곡에서 불두 한 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경북유형문화재 제113호인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의 불두로 밝혀진다. 그리고 2007년 남산은 불자들을 놀라게 한다. 높이 6m의 대형 마애불인 열암곡 삼릉계석불좌상이 발견되는데, 임희숙 씨가 발견했던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불자들과 불교계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남산은 산 자체가 성보예요. 그 산에 묻혀있는 불상과 석탑은 당연히 성보입니다. 그런 유래 없는 산을 보존하고 그 속에 묻혀있는 성보들을 찾아내서 복원하는 일에 불자들과 주요 종단, 불교계 단체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남산의 불상과 석탑, 사라진 절터의 흔적이 단순히 문화재로만 인식되는 것이 그는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불자와 불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남산을 보살필 때 비로소 남산은 불자들의 성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불교계 언론사 기자들과 불교계 단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을 위한 펨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남산사 석탑 앞에 섰다. 30년 넘게 오르고 내린 산, 남산. 그에게 남산은 읽어야 할 경전이고, 넘어야 할 화두다. 쉬지 않고, 놓지 않았던 남산. 지난 30년이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았다. 그는 서원했다. 어제 걸었던 길을 다시 걷겠다고. 어제 보았던 석탑을 다시 보겠다고. 앞으로도 남산을 열심히 알리겠다고. 부처님을 열심히 알리겠다고.

그는 주 2회 강좌와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120여 회의 무료 안내, 매월 보름에 하는 ‘달빛기행’ 등을 진행하며 연간 150~200회 남산을 찾는다. 그는 요즘 엽서 만드는 재미에 빠져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엽서를 기자에게 건넸다. 그 엽서 속엔 그의 가슴을 흔들었던 ‘남산’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남산을 알리며 사는 남자 김구석. 그는 내일도 남산 구석구석을 누빌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남산은 불모…그 혼을 ‘성철 수묵화’에

경주와 남산 40년째 그리는 수묵화가 박대성 화백



“남산은 신라의 불모(佛母)입니다. 그곳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노천박물관이죠. 용장사곡 삼층석탑, 마애보살반가상, 칠불암, 부처바위도 있고 세계 유일무이 신성산입니다.”

수묵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66 · 사진)은 경주 남산자락에 한옥을 지어놓고 신라를 그린다.

서울을 떠나 경주에 안착한지 10년이 넘은 박대성 화백은 온전히 신라사람이다. 운문사가 있는 경북 청도가 그의 고향이니 신라시대 행적구역으로 보면 날 때부터 신라인이다. 그래서 박 화백은 자연스레 1960년대 중반부터 40년 넘게 경주를 그려왔다.

박대성 화백은 제도권 정규교육을 받거나 특별히 사사 받은 스승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1970년대 국전에 8번 수상하고, 197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동양화단에서 이변을 일으켰던 작가다.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6 · 25 발발로 부모님과 왼쪽 손마저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림이 좋았던 작가는 10살에 붓을 들어 묵화부터 고서(古書)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살아있는 교본들을 몸으로 느끼고 내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리는 고된 독학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겸재와 변관식, 이상범에 이어 실경산수의 맥을 잇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미국과 대만 등 세계 미술계의 호평을 받아온 박 화백은 모두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갈 때 경주로 돌아왔다.

서구적인 것이 곧 현대적인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뒤로하고, 한국화의 기본을 꾸준히 탐구하는 가운데 변화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박대성 화백은 경주의 자연과 문화역사의 본질에 대한 사색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낸다.

“경주박물관과 분황사가 있는 곳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모란꽃을 피운 모양 같습니다. 꽃잎이 있는 자리에는 신라 유물들이 있지요.”

그래서인지 박대성 화백이 그린 남산은 모란꽃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림 속에서 경주와 남산은 왜곡, 과장되거나 비현실적 구도로 구성되는 등 자유롭게 표현된다.

현재 박대성 화백은 2012년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수묵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2월 12일~3월 4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도를 듣다(聞道)-김생과 권창륜 · 박대성 1300년의 대화’ 특별전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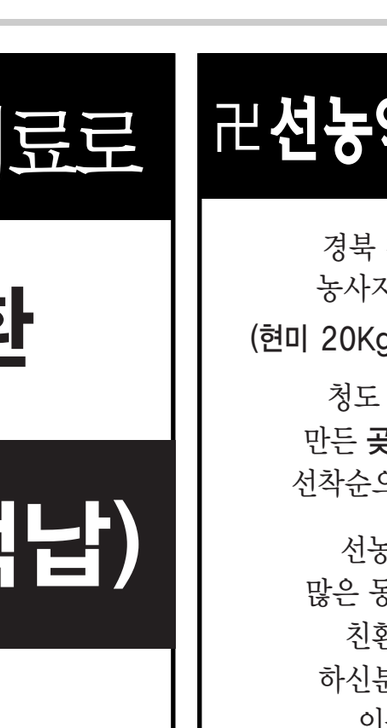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정신과 혼을 담고 있는 경주의 자연과 문화 사랑이 남산의 소나무 처럼 자리 잡고 있다.

박대성 화가는 “나의 그림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시각화한 것”이라며 “신라 천 년의 잠을 깨우는 뇌관(雷管)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국토 지향한 신라인 염원 카메라에

매월 달빛기행 김세원 울산대 교수



인류학자 토인비는 터키 이스탄불을 두고 ‘인류문명이 살아있는 거대한 야외박물관’이라고 말했다. 김세원 울산대 디자인대학 교수(사진)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주가 오랜 세월을 두고 장황한 역사의 흔적을 남긴 대표적인 도시”라고 밝혔다.

특히 경주 남산은 신라 천 년의 흥망성쇠를 간직하고 있는 산으로, 불상 · 불탑 등을 비롯한 불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김세원 교수는 경주 남산을 사진으로 기록해 지난 2010년 5월 ‘천년의 시간 · 신라의 숨결 경주남산전’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1995년 산악회를 통해 경주 남산과 첫 인연을 맺게 됐다. 김 교수는 “처음에는 야간 산행을 하느라 돌탑과 돌부처에는 눈길조차 줄 수 없었지만, 매월 음력보름에 도반들과 남산을 찾으면서 점차 남산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고 회고했다.

김세원 교수는 “한 때 故 윤경렬 선생의 저서 〈겨레의 산 부처님 산〉을 옆에 끼고 골짜기를 찾아다니며 책의 내용을 현장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했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김세원 교수는 2009년부터 1년 남짓 동안 미술사를 전공한 아내와 의기투합해 경주 남산의 유물 · 유적을 본격적으로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불교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불교에 관한 지식은 더욱 초라하다. 심지어 불자도 아니지만 조상들의 신앙과 예술이 녹아든 남산의 문화와 대화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 남산은 불국토를 지향한 신라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신앙의 산이며, 우리나라 불교유적의 보고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야외박물관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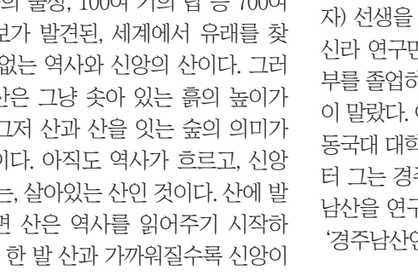
김세원 교수는 “상선암 마애대좌불과 용장사지 삼층석탑에서 바라본 남산은 정말 아름답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남산에 오르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매력적인 산”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직도 남산에 발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가 많다. 지속적으로 남산을 찾아 더 많은 남산의 모습들을 발굴하고 싶다”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호 · 보존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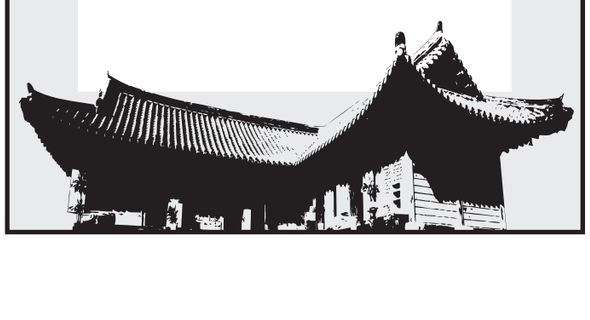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반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卍 선농약사 기도도량 卍

경북 청도에서 스님이 직접
농사지은 친환경 우렁이 쌀
(현미 20Kg7만원.일반미 20kg 6만원)

청도 반시로 자연건조해서
만든 곶감(30개포장 3만원)을
선착순으로 우선공급 판매합니다.

선농 약사여래불 모연에
많은 동참바라며, 30만원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를
하신분은 약사여래불 봉안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 농협 계좌번호 : 351-0416-0800-73
(예금주 성불사)
▣ 전 화 : 054)373-5830
010-6437-5830

삼성산 성불사 혜동 합장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조동종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신 년 사

몸은 보리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으면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으리라.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의주를 문 용처럼 올 한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종 정 : **덕찬당 지명** 부종정 : **덕룡당 법공** 승정원장 : **덕담당 심월**

총무원장 : **덕우당 대은** 중앙감찰원장 : **행성당 덕성** 중앙종회의장 : **행봉당 해륜**

승정위원 **원봉**	선 원 장 **원봉**	남해종무원장 **청운**	사회부장 **혜산**
승정위원 **혜공**	중앙호법원장 **혜천**	경북종무원장 **혜법**	포교부장 **청정**
승정위원 **법광**	중앙문화원장 **보경**	경남종무원장 **무일**	문화부장 **송담**
중앙종회부의장 **운성**	중앙교육원장 **광혜**	영동종무원장 **혜공**	규정부장 **소담**
중앙종회부의장 **혜광**	중앙율원장 **우담**	강원종무원장 **혜각**	총무국장 **시권**
부 원 장 **법화**	중앙포교원장 **해권**	경기종무원장 **법화**	교무국장 **월광**
	부산종무원장 **정민**	총 무 부 장 **고우**	사회국장 **법문**
	영남종무원장 **혜오**	재 무 부 장 **소원**	문화국장 **평담**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 4동 154번지 도선사 전화 : 02)2091-0408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보 리 사

주지 지명 덕찬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27-2
전화 031)829-4882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주지 대은 덕우

신도회장 금정웅

신도일동

■ 서울시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02)938-1405

대한불교조동종 부산종무원장 주석사찰
해운팔경 최초가람
장산 폭포사

주지 정민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우일동 산 2-1번지
전화 051)701-3838

대한불교조동종 재무부장 주석사찰
석 민 사

주지 소원 행오

신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387-4번지
전화 031)321-9694

대한불교조동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자 비 암

주지 청정

신도회장 : 김정순
총 무 : 김경주
관음회장 : 박춘옥
부 회 장 : 주숙자
연꽃회장 : 최진욱
홍보부장 : 김상곤
사 무 장 : 정 욱
재 무 : 박정은

신도일동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추산동 81-3번지
전화 055)241-1176

대한국불교 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

회 장 호산 성보
고 문 동원
고 문 종천
이 사 지상 보득
보광 진성
지유
감 사 보명
감 사 법행
재 무 현봉

승가회 회원스님 일동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60-21번지 3F
TEL 055)245-8209, 010-8540-8209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 암 사

주지 덕성 행성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대한불교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 덕 사

주지 해륜 행봉

신 도 일 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55번지 2반
TEL 033)432-7345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위원 주석사찰
천 일 사

주지 혜공

신 도 일 동

■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4리 1010
TEL 033)374-0012, 011-868-5506

대한불교조동종 중앙포교원장 주석사찰
덕 수 사

주지 해권

신 도 일 동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60번지
TEL 031)636-2360 / 011-364-6239

대한불교조동종 남해종무원장 주석사찰
금산 미 륵 암

주지 청운

신 도 일 동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
TEL 055)867-0776 / 070-8838-3776

대한불교조동종 경기종무원장 주석사찰
행 운 정 사

주지 법화

신 도 일 동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68번지
TEL 010-6866-7175

대한불교조계종
흑응산 연 방 사

주지 일봉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전화 054)654-2464

대한불교조동종 중앙호법원장 주석사찰
성 문 사

주지 혜천

신 도 일 동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2리 330번지
TEL033)378-8254 / 011-9705-8254

대한불교조동종 경남종무원장 주석사찰
나 눔 사

주지 무일

신 도 일 동

■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109번지
TEL055-253-8340

대한불교조동종 사회부장 주석사찰
소백산 보 림 사

주지 혜산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35-1번지
TEL 043)422-5527

보림사포교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9-2번지
TEL 031)487-2226

대한불교조동종 문화부장 주석사찰
송 암 사

주지 송담

신 도 일 동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1동 303-1번지
TEL 02)969-6742

부산여성불자회

총 재 혜 총
자문위원 백명숙.이경순 천양자
회 장 왕선자
부 회 장 정정자.이미춘.박종남
총 무 박정림.김명자
재 무 서점례.손하영
감 사 엄점선.이명희
운 영 전길자.전위미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4층)
TEL 051)817-3166, 3168(FAX겸용)

‘흑룡의 해’ 용이 큰 바다를 만나다

용의 해 불교 소사

680년 무상 스님 출생
860년 장흥보림사 창건
1520년 서산 대사 탄생

■680(신라 문무왕 19년) ▷우리나라 스님 중 최초로 중국에서 선을 배워 중국인을 교화한 송계 무상 스님 출생
■740(신라 효성왕 4년) ▷심상 스님이 처음으로 일본 금종도량에서 〈화엄경〉강의 ▷진표율사 정계(淨戒)받음
■800(신라 애장왕 1년) ▷성주산문을 개산한 무열 스님 출생 ▷백율사 청동약사여래입상 조성 ▷경주 입실역 양각보살좌상 조성
■860(신라 헌안왕 4년) ▷전남 장흥 보림사 창건
■920(고려 태조 3년) ▷왕경과 세경의 탑수리
■1220(고종 7년) ▷고종 대전관에서 보살계 받음
■1340(충혜왕 1년) ▷고려 최후의 유식학자 혜원 스님 입적 ▷중국 원나라 고려불경 요청
■1400(조선 정종 2년) ▷송광사(수선사) 중창 ▷화장사 석가모니부처님과 오백나한상 조성
■1460(세조 6년) ▷매월당 김시습 〈탕유관동록후지〉지음 ▷간경도감 신설, 〈석보상절〉 간행
■1520(중종 15년) ▷지리산 벽송사 창건 ▷해인사 대장경 1부 인출 ▷청허 휴정 스님 출생 ▷〈선종영가집〉간행
■1940 ▷2월 24일 용성 스님 입적 ▷4월 8일 영천 은해사에서 오산불교학교 개교식 ▷5월 강화 전등사에서 목각판 묘법연화경 발견 ▷5월 30일 중앙불교교무원 이사회 개최, 중앙불교전문학교를 혜화전문학교로 교명 변경, 흥아과(興亞科)신설 ▷7월 선학원 창씨개명 상담소 설치 ▷7월 7일 조선불교선교양종총본산, 총본사 대웅전에서 불교위령대법회 개최 ▷9월 5일 영등포경찰서 관내 스님초청 시국간담회 개최 ▷9월 16일 종교단체법과 관련 ‘종교가 간담회’ 개최 ▷9월 17일 석왕사, 전몰장병위령 및 황군무운장구기원 대법회 개최 ▷11월 9일 철원 심원사 불교강연회 개최 ▷11월 28일 ‘불교의식체제와 불교중흥’을 위한 31본산 주지회의 개최, 총본사 설립 협의 ▷12월 2일 마곡사에서 승려대회 개최
■2000 ▷1월 고려대장경 전산화 완성

용은 우리곁에 늘 가까이 있는 존재

2012 임진(壬辰)년 새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라 불리는 올해를 상서로운 해라며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들이 많다. 기업들은 ‘흑룡의 해’를 이용한 대대적인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올해가 ‘흑룡’이라는 범상치 않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된다. 임진년 천간(天干)의 임(壬)은 오행으로 수(水)에 해당하며 색깔로는 검은 색을 의미한다. 임은 거대한 대해(大海)를 가리킨다. 대해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검게 보인다. 용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이기도 했다. 즉, 물과 관련이 깊다. 임진년은 용이 드넓은 바다를 만난 해이니, 물고기가 물을 만나고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에 비할 바가 아닌 좋은 해이다.

용은 반신족 뜻했다

용은 불교와도 관련이 깊다. 불가에서 부처님 밥그릇을 항용발(降龍鉢)이라 칭하고, 큰스님을 용상(龍象)으로 일컫고, 선방의 소임을 적어 붙이는 방을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하는 등 용을 비유한 용어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전에도 용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에 앞서 서양의 드래건(Dragon)을 동양에서 ‘용’이라고 번역했듯이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 어떤 단어를 중국인들이 용이라고 번역했는지를 염두에 둬야한다.

불교 경전의 용은 본래 산스크리트어 나가(nāga)의 번역어로 사람의 얼굴을 했으나 몸은 뱀의 형상을 한 전설 속의 반신족(半神族)을 뜻한다. 이 ‘나가’를 용·용신·용왕 등으로 한역했다.

용왕이 수호하는 것들 중에는 바다와 연못, 냇가 등 물과 관련된 장소가 많다. 또 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용왕들의 일이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일장분송사품’(日藏分送使品)에는 “세상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용왕이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전한다. 사가라(娑伽羅) 바루나(婆婁那) 덕차가(德叉迦) 보호대행(寶護大行) 구사라(瞿娑羅) 바소바(婆蘇婆) 호로구차(呼嚧 俱叉) 바사무구차(婆私無俱叉)의 여덟 용왕은 바다 속을 지키고, 대해(大海)의 물을 늘이거나 줄이는 역할을 한다.


수려한 조형미를 뽐내고 있는 오어사 범종의 용뉴

불법승 삼보 지키는 수호신장
경전과 불교문화재 곳곳 등장

성자가 머무르는 장소를 수호하는 용왕도 있다. 흔히 불교에서 불·법·승 삼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도 등장하는 용왕을 말한다. 특히 〈법화경(法華經)〉에 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먼저 〈법화경〉 ‘서품(序品)’에는 불법을 지키는 선신(善神)으로 존경받는 난타(難陀) 발난타(跋難陀) 사가라(娑伽羅) 화수길(和修吉) 덕차가(德叉伽) 아나바달다(阿那婆達多) 마나사(摩那斯) 우발라(優鉢羅)의 여덟 용왕이 등장한다.

뛰어난 인물 일컬어 용이라 칭하기도

용은 불법과 물을 수호하는 역할 외에도 제왕을 상징하거나 뛰어난 인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이 인도·중국의 용이 한반도로 전래되는 과정 속에 용의 긍정적 이미지들을 모두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진흥왕 때 짓기 시작했다는 황룡사 창건설화나, 죽은 후에 나라를 지키는 용이 돼 불교와 신라를 수호하겠다는 문무왕의 이야기 등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신라 문무왕은 ‘용’ 되기를 서원
호국불교와도 관련깊은 영물

용은 범종 등 문화재에도 많이 사용돼 왔다. 거대한 범종을 지탱하는 용뉴와 중생들에게 불음(佛音)을 전한다는 운판에는 어김없이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용의 모습 가운데에는 물고기 몸에 용의 얼굴을 하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목어(木魚)도 있다. 이는 어변성룡(魚變成龍) 즉, 물고기가 변해 용이 되는 것을, 깨달음을 얻어 해탈한 것에 비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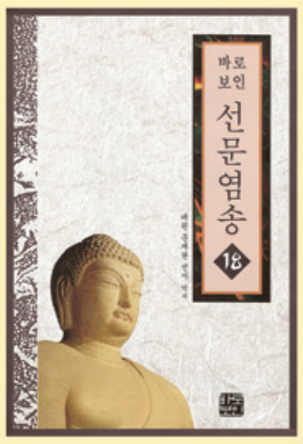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운사 내소사 수덕사 신륵사 전등사 파계사 화엄사 용문사 봉정암 부석사 삼막사 등의 목어가 그렇다. 이와는 달리 몸통 전체가 물고기인 목어도 있는데 이는 물고기가 늘 눈을 뜨고 있는 데에 착안해 태만과 졸음을 쫓는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상의 목어는 마곡사 용주사 월정사 은해사 통도사 등에서 보여 진다.

용은 문화적으로 인도-중국-한국을 어우르는 광범위한 상징물이자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존재였다. 2012년 새해 용이 비상하듯 제반 문제들이 원만히 풀리고 행복한 한해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특히 사부대중 각자가 불법을 수호하는 용의 역할처럼,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중생들을 수호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하는 이들의 바램이 많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제왕을 상징하는 용은 불법의 수호신장 역할도 수행한다. 통도사 십이지번(十二支幡)중 ‘용(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칫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사주대학 상,하
석삼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만에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분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체와 의식 이분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목초수액시트
잠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몸 속 노폐물 등 제거, 아침이 상쾌! 가뿐!
new


▶ 발바닥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전 발바닥에 붙였다 떼어내면 불필요한 수분이 갈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가능
불필요한 수분 흡수 갈색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 팔,다리,무릎이 안 좋으신분 · 어깨,허리때문에 고생 하시는분.
· 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 몸이 무겁거나 항상 피로 하신분.
· 오랜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 가사에 지친 주부님.
· 공부하는 수험생. · 연로하신 노인분.
주문 및 상담 02)4444-595 / 010-7255-6668
주문즉시배달(1~2일) www.BB21.com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 12


만고의 진리인 법성게에 ‘파동에너지 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법성게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종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 미국 의료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 수선회

선원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수선회	선 감	도경스님
김해포교원	주 지	도명스님
여여선원	총 무	효산스님
관음 낙가사	주 지	효원스님
울산여여선원	주 지	효안스님
명 예 회 장		김 경 환
신도회장		오 미 희

신도회.총동문회.복지회,선림회,지장회
삼천일기도회,여여산악회,여여선원카페
청년회,여여불교대학,불교대학원

■ 여 여 선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 여 정 사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고 문	김재운 김재진 박민식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흥대
직전회장(고문)	박수관
회 장	허인구
수석부회장	박순곤
부 회 장	김수현 김종백 신재철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장인화 최삼섭
감 사	김동열 박영근
사 무 총 장	신상해
재 무 총 장	김선일
총 무 이 사	박차수
기 획 이 사	최대경
친 목 이 사	공정근
섭 외 이 사	허성하
홍 보 이 사	이학우

■ 주소 : 부산 진구 부전동 512-3번지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해운대 백병원 불교법당

<부설> 대광명 불교대학
<부설> 참마음 노인방문요양센터
참마음 간병사회
참마음 간병사교육원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 1동
해운대로데오아울렛 B동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회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다도회
원효청년회
선암사 문화교육관
(추모관 개관)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TEL 051)803-7573,6196 / FAX 803-7521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임정웅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안인성, 지호경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6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부산불교대학

회 수 정각
법 사 범진
주 지 청명
신도회장 김동열(광운)
합창단장 이정회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TEL 051)404-4300, 403-4848
FAX 051)403-4860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조실 고산
주지 원허

신도일동
[재]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재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113-1번지
☎ 종무소 051)866-7771~3
FAX 051)866-7777

200만 부산불자 한마음 하나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 외
회원일동

불기 2556년 부산불교 신년하례대법회
- 일시 : 2012년 1월 6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그랜드 볼룸

■ 주소 : 부산 진구 양정 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861-8800 FAX 051)861-8802
홈페이지 www.baob.k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동 림 동 문 회

고 문 유진
자 문 신풍. 학산
명예회장 송월. 달오 심산. 무상
회 장 광진
수석부회장 범안
부회장 도암. 효신. 고담. 단도. 법산. 지원. 대광

회원스님일동

■ 사무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900-3606
E-mail:donglimdongm@naver.com

謹 賀 新 年

새해에는 우리 사는 지구행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하며,
인류가 전쟁과 살생을 멈추고 사랑으로
공존할 수 있길 축원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신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아침

불교성지순례 및 문화탐방

◇ 인도, 스리랑카, 부탄, 네팔 지역 (6~15일)
◇ 중국지역 불교문화 및 실크로드탐방 (4일~7일)
◇ 티베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지역
◇ 일본 간사이 지역 우리불교문화 답사 (4일~5일)
◇ 큐슈 온천 및 사찰탐방 (3일~4일)
◇ 해외명산 트래킹

* 요금, 일정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 5명 이상 단체는 인솔자 동반 합니다.

■ 문의 : 파초여행(주) 051-808-7370,
010-8817-0162

문화탐방 & 명산 트레킹 전문여행사
芭蕉旅行株式會社
PACHO SEON TOUR CO., LTD.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 실 진제 대선사
주 지 지 성
명예회장 서석인
신도회장 정대원행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TEL 051)746-2256, 4812
www.seon.or.kr

전통불교조계종

종 정 공해 경호
총무원장 혜성 원산

종도일동

(사)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사)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무형문화재 영산재 연수

영 축 사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TEL 051)635-8975, 010-2563-5550

대한불교조계종

홍 법 사

주 지 深 山

國際佛光會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22번길 202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www.홍법사.com

삼천배 참회기도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기초/경전과정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 051)809-0926 FAX 803-0188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 서부노인전문기관

- 용호재기복지봉사센터
- 용호치매노인주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400여명)
- 노인대학(매일200여명)

이사장 혜총 관장 이춘성
소장 김영곤 부장 서은해

사부대중일동

☎ 051)628-6737 FAX 628-656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희망금융 "신협"

"행복드림 예금 특판"

15개월 **5.37%**

◈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장
◈ 비과세로 훨씬 높은 수익률
- 1인당 4000만원 비과세
- 같은 예금 금리라도 14% 절세효과!!

◈ 2011년도 출자배당 연5.3%
◈ 빠르고 편리한 신협대출
◈ 신협화재 신협생명
- 더 낮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주는 실속보험
- 다양한 맞춤식 연금보험

◈ 대형병원과 의료협약체결로 의료비 할인까지!!

부산성의신협
연지 / 양정 / 초읍 / 불교지점

부산협의회장 최송홍
이 사 장

전화 051)633-9120~3

가족이 함께 읽는 '현우경' 이야기 (1)

아름다운 외모로 변한 공주

공양은 커녕 부처님 비방 추녀로 태어나

옛날 한 왕궁에 프라세나짓이라는 왕과 말리라는 왕비가 살았다. 어느 날 왕과 왕비 사이에서 파사라라는 공주가 태어났다. 공주의 얼굴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프라세나짓 왕은 공주의 모습을 보고 근심에 잠겼다. 결국 왕은 파사라 공주를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 곳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주의 모습을 들키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다.

세월이 흘러, 공주는 어느 덧 성인이 됐다. 왕은 공주가 성인이 되자 걱정이 더 커졌다. 왕은 신하를 불러 몰락한 가문의 자제로, 현재는 가난하고 고아인 잘생긴 젊은이를 데리고 오라고 명했다. 신하는 왕의 분부대로 좋은 집안 출신인 가난한 젊은이를 찾아내 왕에게 데려갔다.

"나에게는 딸이 한 명 있다. 하지만 공주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없을 정도로 추하게 생겼다. 그대가 내 딸과 혼인을 해 준다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젊은 남자는 결국 결혼을 승낙했다. 왕은 젊은 남자에게 자물쇠를 주며 절대로 공주를 밖으로 내보지지 말라고 말했다. 남자는 결혼 승낙의 대가로 부와 명예, 권력을 얻게 됐다. 남자는 매일 같이 연회에 나가 귀족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연회에 나오는 귀족들이 공주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저 사람은 연회에 부인인 공주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거지? 아마 공주가 엄청 미인이거나 추녀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걸 거야."

사람들은 연회가 열리는 날, 남자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 취하게 하고 그가 가진 열쇠를 훔쳐 공주가 있는 성안으로 몰래 침입하기로 했다. 그때, 공주는 남자가 연회에 나간 뒤, 혼자 슬피 울고 있었다.



삽화 · 강병호

"나는 대체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부모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어두운 방에 갇혀 지내는 걸까. 만일 부처님이 계시다면 제 앞에 오셔서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공주는 어두운 방안에서 부처님께 정성껏 참회를 했다. 그러자 그 뜻을 아신 부처님이 땅에서 솟아올라 공주의 앞에 나타났다. 공주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보자 추악했던 얼굴이 선녀처럼 변했다.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변해 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자취를 감추셨다. 이때 공주의 방안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공주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역시 공주의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연회에 같이 나오지 못했던 거였군."

뒤 늦게 자신의 열쇠가 없어진 사실을 안 남자는 헐레벌떡 공주의 방으로 뛰어왔다. 그런데 그 방안에는 자신이 알던 추녀의 공주는 온데간데 없고, 선녀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다. 놀란 남자는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공주의 모습을 본 왕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아니, 어떻게 너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이냐?"

공주가 대답했다.

"제가 부처님께 업장소멸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시니 제 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왕은 크게 놀라하며, 왕비와 공주의 남편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왕은 부처님께 물었다.

"제 아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길래 왕가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추녀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옛날 바라나시라는 나라에 부자인 장자가 있었다. 장자의 가족들은 프라데카 부처에게 늘 공양을 올렸는데, 유독 그의 딸만이 프라데카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 때의 딸이 지금의 공주다. 부처를 비방한 죄업으로 추녀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왕과 왕비, 공주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앞으로는 남을 업신여기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이 모습에 크게 기뻐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현우경은… 〈현우경〉은 불교설화로, 착한 일을 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지는 가족이 함께 읽고 지혜를 키울 수 있는 〈현우경〉이야기를 연재합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 륜 사
명상수련
주지 정각 합장
신도일동
■ 경남 양산시 동명 사송리 1036-1
TEL 055)383-7009, 011-556-5830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96
☎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불 광 사
회주 인산 지준
주지 보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25번지
TEL 051)809-1420 (초연중학교 뒤)

황령산 홍제사
주지 성문
· 매월 초하루 법회 · 매월 초하루-3일 신중기도
· 매주 월요일 다라니 독송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림원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485-31번지
TEL 051)802-0130 / FAX 051)804-1037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도량 원오사
꿈나무가꾸기 명정 장학재단
회주 고원 명정
주지 정관
신도회장 박대건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TEL 051)542-7949,545-7949

진 여 원
회주 혜총
주지 무성
원장 남보타원
진여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전주전북포교사단
단장 : 주정기
사무국장 : 강석춘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영 선 사

주지 월공(月空)

(사)사람과 희망
등용(登龍)청소년공부방

■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전화 063) 636-2195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미타도량 성불사

회주 종명
주지 종걸

신도회장 : 최옥순 정각행
부 회 장 : 김인옥 견성화
총 무 : 김경애 자성심
교 무 : 유은순 월광심
재 무 : 박은미 관음정
홍 보 : 박경임 금강지
섭 외 : 이춘례 성불심
봉 사 : 전순자 무량심
감 사 : 김영숙 수월심
칠성회장 : 박경애 공덕심
지장회장 : 김정순 관음심

성불사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15-1번지(서래내길 34)
전화 063) 445-3266
http://www.seungbulsa.com

대한불교조계종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명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전화 063) 462-5366
http://www.do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810번지
전화 063) 857-1918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 박중근
명예회장 : 이의식
고 문 : 김동확 김진수
수석부회장 : 이근영
부 회 장 : 고태용 임문규 김영배 강권술
이수원 심송자 최용호 윤광채
모순영 문순복 김한철
사무국장 : 오창록
감 사 : 송동기 전정순
포교사단 능인회장 : 고태용
마 한 거 사 림 회 장 : 이근영
천천마한클럽 장학회 사무국장 : 김한철
대원회(봉사단)회장 : 모순영
가릉빈가 합창단 단장 : 문순복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익불련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전화 063) 862-6394
http://www.sunglimsa.com

대한불교조계종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 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전화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천호산 백운사

주 지 : 우 성
신도회장 : 이수원
사 무 장 : 박문재

신도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전화 063)836-8047. 836-5984
http://www.baekwoonsa.com

대한불교조계종

종남산 송광사

주지 도영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g

사회복지 법인 송광 정심원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
전화 063)243-1212

익산시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지광(숭림사)
수석부회장 혜안(태봉사)
부회장 덕림(관음사)
부회장 도진(관행심인당)
총무(재무) 일행(정각사)
간 사 정수(금강 관음사)

사부대중 일동

■ 전화 063)862-6394.854-1578

대한불교조계종

금 선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TEL 062)942-3260

대한불교조계종

대 광 사

〔부설〕
사단법인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

주지 정선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35번지
TEL 062)222-4613
다음카페 ttp://cafe.daum.net/rs211

美親 FTA반대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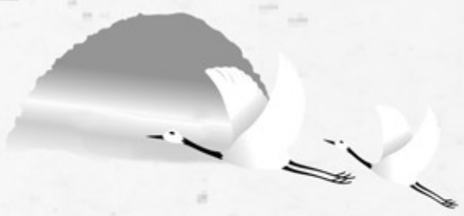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1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 조 사(암)
주지 현 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 (FAX겸용)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이대웅
교 감 장정익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다기류일절
홍 백 원
"진솔한 향기가 있는곳"
이화숙 (법률행)
■ 전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76-1
TEL 053)256-5847 / FAX 053)254-8183

茶 仙 家
주지 도 상
보이차 · 전통차 · 차탁
차도구 일체
야생화 · 산야초
■ 대구광역시 동구 미곡동 784-1
TEL 053)983-8032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여불교
대구·경북재가연대
대표 김주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536번지 동아빌딩 4층
TEL 053)427-0108 / FAX 053)254-9348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 明 錫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운불련 호출택시
회 장 김주본
부회장 마종구
사무국장 김병관
호출국장 조신제
■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 말사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 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전화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포 교 당
금강불교대학.거사림회.
연꽃회.신도회 일동
■ 경북 영주시 영주2동 411-2
전화 054)632-3767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지 도기
사부대중 일동
* 관음유치원운영.군포교활동.재소자포교활동 *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전화 054)633-1138

나의 체질이 궁금
하시면 연락주세요?
무 료 상 담
수십년간 체질에대하여
연구공부.사람을 보면
체질을 64형으로 구분하여
모든병의 원인을
체질한약차로 다스림
3일복용시
본인이 느낄수 있음
나의체질.맞는음식.맞는과일
맞는차가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 연락처 010-9373-3778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지 무 여
· 문수선원.시민선원
·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합창단
· 바라밀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전화 054)672-7579

한국불교 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 련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전화 02)701-7488

금 풍 인 견
천연펄프(나무)로 만든 옷
* 침구류(혼수품)이불. 남성옷. 여성옷.
아동복. 승복(몸배. 조끼. 상하복)
* 천연섬유 인견원단도 판매
* 나무원료라서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아토피에 좋음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58
전화 054)636-3552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서 악 사
주지 세관
사부대중 일동
*룸비니유치원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3
전화 054)655-100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
☎ 051)403-7077 FAX 403-1077
홈페이지 www.hanmaum.org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1884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법화경반 · 우담바라합창단
헌다회 (다도반)
주지 만제 혜수
사 부 대 중
■ 주소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511-10번지
대명빌딩 201호
전화 : 055)333-8202 전송 055)333-8203

전등사 · 보타선원
(구. 보타원)
회 주 석성 보광
주 지 수인
관음회장 안 보광화
거사림회장 안 덕 우
신도일동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8
TEL 051)243-0048~9 / FAX 242-4109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 수 사
주지 향 운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6동 843번지
종무소 051)467-3316
팩 스 051)467-3338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 산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11교구 영축산 영축사
영축산 영 축 사
새해맞이 타종 법회 및
선도재일선차와 함께 참선과
108배 철야기도
12월31일 "토" 밤9시 입제
장소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108 통도사옆
주지 각문 합장

천 운 사
주지 령산 김해봉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양정 2동 135-4
TEL 051)852-1810
FAX 051)867-5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부설] 마애뜨리아 불교대학
주지 운 암 (석현엽)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번지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문수용, 이경순
감 사 심산, 박분희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계수 홍보이사 성림, 김성수
이사일동
부산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 3층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회주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전화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전화 02)3411-8103-4 전송 02)3411-8108
www.kbiguni.org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동학사승가대학
동학사화엄승가대학원

주지 견성
학장 법성

대중일동

www.donghaksa.or.kr

■ 충남 공주시 반포동 학봉리 789
(반포면 동학1로 462번지)
전화 042)825-2570
팩스 042)825-6068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주 화담
주지 화응
부주지 대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06호
전화 02)730-0798 / 팩스 730-0799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주지 태진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주지 일관

송산노인복지문화센터 관장 법일
교무 법종
불일야구단 회장 최상균
감독 이광은
최정기
유종겸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불암산로 190
전화 031)527-8345

한국불교태고종
무량사

주지 무공무상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2호
전화 02)904-0016,0081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룡정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청동대불봉안도량.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각원사불교대학

조실 경해법인
주지 대원

각원사 신도회
불교대학총동문회
www.gakwonsa.or.kr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1-3번지
TEL 041)561-3545 / FAX 041)556-1425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547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포교원 보현정사,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타
불광노인복지센터,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회주 대궁종상
주지 성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염불사

회주 성직 스님
주지 지우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17번지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첫소년수련원 신흥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72-11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지 현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5-3
TE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수안사

회주 세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재단법인선학원
인과선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657-2
TEL 02)907-3706

화중생연 육신등공도량 호명산
감로사 · 승가사

우.477-81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5
청평면 우무내길 210(새주소) 청평검문소 남쪽 2키로
전화 031)584-0117, 02)2292-3418 / FAX 031)585-5747
카페:http://cafe.naver.com/kamrosa.cafe

서울 승가사

우.131-833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92-2 나동용마산길 113
(농협 용마지점 옆) 지하철7호선 용마산역3번. 사가정역 4번
전화 02)2292-3418,2282-3418 이메일 ljk3418@naver.com

한국불교태고종 서울교구 동부종무원장

주지 이지성 합장 H·P 010-3722-3418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대종사 무진장
이사장 이상우
동산회원 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런던올림픽 우승 위해 정진 또 정진

국가대표 불자선수들, '金' 메달 발원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는 스포츠계의 화려한 빅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다. 2014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을 비롯해 해외파 스타들이 복귀한 프로야구전은 벌써부터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7월 27일~8월 12일 지구촌 최대 축제인 '제30회 런던 올림픽'이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2008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금메달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불자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종목에 따라 최종 대표선발전을 앞둔 선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이자 용띠 스타이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이효정 선수와 혼합복식을 제패했던 이용대 선수는, 런던에서 정재성 선수와 남자복식으로 세계 정상을 노리고 있다.

이용대 선수는 불자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 이 선수는 평소 부모님이 주신 경전을 읽고, 찬불가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연습에 몰두한다. 2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이용대 선수는 "좋은 결과로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체조의 희망'으로 불리며 스포츠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양학선 선수 또한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체조 세계선수권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 선수의 가장 큰 라이벌로 꼽히는 프랑스 토마 부엘 선수가 최근 연습 도중 왼쪽 무릎 인대를 다쳐 양학선 선수의 활약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양학선 선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2012년 7~8월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글을 남겨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양 선수는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봉행하는 법회에 참가하며 신심을 다지고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또 양학선 선수는 체육인불자연합회를 통해 미래의 국가대표가 될 꿈나무 선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펜싱의 여왕'으로 불리는 남현희 선수 또한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현희 선수는 평소 법정 스님의 '하루하루 어떤 법을 일으키는 게 누구인가'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합에 나간다고 했다. 남현희 선수는 "부모님 역시 독실한 불자로 시합에 출전할 때마다 부상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신다"고 말했다. 남 선수는 "법정 스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기도 덕에 시합에서 큰 힘을 받는다"고 전했다.

얼마 전 사이클의 공효석 선수와 백년가약을 올린 남현희 선수는 올림픽출전을 위해 2세 계획도 미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현희 선수는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선수


남현희 선수


양학선 선수

양궁 한경희, 선수촌 모범 불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만심 극복
힘들 때마다 '관세음보살' 염송

체조계의 기대주 양학선
첫 금메달 걸고 올림픽 각오 다져
꿈나무 선수들에게 장학금 지원

레슬링 김현우, 대표 선발전에 집중
선수촌 법당에서 불심 키워
차세대 레슬링 대표주자로 기대

레슬링은 아직까지 최종 대표선발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민철 · 김현우 선수의 활약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우 선수는 올해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66kg급에서 동메달을, 레슬링 프레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민철 선수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아쉽게도 메달획득엔 실패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의 행보는 기대할만 하다. 이 두 선수 역시 신심이 돈독하다. 이들은 태릉선수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봉행되는 법회에 시간이 날 때 마다 참여하며 불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양궁에서 특히 많은 도움을 준다. 양궁 국가대표 한경희 선수는 선수촌에서 가장 모범 불자 선수로 소문나 있다. 한 선수는 양궁 팀 막내이지만 실력은 선배 선수들 못지않게 뛰어나다. 올해 프레올림픽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 선수는 최종 대표선발권을 앞두고 집중 훈련 중이다.

굵직한 대회에서 메달을 석권한 한경희 선수는 "힘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말하며 집중력 훈련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선수는 선수촌 법당에서 매주 진행되는 법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스님들이 해주는 법문을 새겨듣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했다.

한경희 선수는 "어린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다. 특히 남들보다 정상에 빨리 오르니 자만심이 생겨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효자종목인 양궁은 올림픽 출전보다 대표선발전이 훨씬 더 치열하다. 한 선수는 "앞으로 선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올림픽 출전이 허락 된다면, 꼭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어린나이에 대표선수에 발탁됐다는 자만심을 극복하려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는 한경희 선수

"양궁이 바로 선禪이다"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
런던올림픽서 "금메달 4개 목표"

"이번 런던올림픽이 제 생에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 양궁은 그야말로 올림픽의 꽃이다. 양궁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서향순이 첫 금메달을 목에 건 후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매번 금메달을 따낸 효자종목이다.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사진)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

장영술 감독은 "7월에 열린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의 결과를 두고 항간에서는 한국 양궁이 꺾였다고 걱정을 한다. 그래도 한국양궁은 여전한 세계 최고"라고 단언하며 대표 팀의 기록들을 공개했다.

양궁팀 금메달로 올림픽 선전할 것
선수들에게 마음 수행 강조
선수들과 함께 템플스테이 하고파

장 감독은 그간 많은 올림픽 출전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올림픽에서 일어날 법한 돌발 상황들을 선수들에게 훈련들 시키고 있다.

장 감독은 "양궁 팀은 런던올림픽 첫날인 7월 27일부터 예선 경기가 치러져 지금부터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감독은 "올림픽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양궁 팀의 경기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이번 양궁팀 총감독을 맡으면서 남녀 개인전 및 단체전까지 금메달 4개를 목표로 잡고 있다. 지금까지 양궁팀은 매번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4개 모두를 획득한 적은 전무하다.

장 감독은 올림픽과 더불어 4월에 치러질 세계양궁월드컵 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마음수행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장영술 감독은 "불교와 양궁은 많이 닮아 있다. 양궁은 굉장히 선(禪)적인 운동"이라며 "만약 기회가 되면 조용한 사찰에서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등을 훈련에 접목시켜 보고 싶다.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수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감독은 "현재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훈련 중에 있다"며 "불자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진실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헛된 삶이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호 국 사
주지 본묵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68번지
TEL 061)383-6200

대한불교조계종
성 거 사
범전 혜공 합장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유 유 암
주지 종오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대원기도대학
대원불교대학
대 원 정 사
주지 일화
기도하는 사람마다
꿈, 소망이 성취되는
한 번은 꼭 친견해야 할
세계 유일
부처님 화현 수기도량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27번지
TEL 062)571-6789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지 시각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232
TEL 062)652-4920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但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관절의 염증을 삭히는 토종참옻

風寒濕痺(풍한습비) : 뼈가 저리고 수시고 쓰림.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골속을 채워줌.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관절내 어혈이 쌓여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는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생리통 효과없다면 100% 환불!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한달에 1번 그날이 오면 진통제 5~6정 복용하던 분들도 최소 1~2정이면 지나가고, 월경때 피가 잘 나오지 않고 배꼽노리가 차면서 몹시 아픈것과 몸푼뒤에 혈기가 고르지 않아 배에 징가가 생긴것을 풀어준다.

옻가네 참옻대보를 이용한 옻닭요리

우리의 전통식품인 옻닭은 모든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옻닭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옻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참옻의 원조 옻가네참옻진액은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참옻진액입니다.

※옻닭은 이런분께 특히 좋습니다.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나, 시장이나, 건설현장,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몸살 없는 건강한 겨울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옻닭)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을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녀를 통하여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케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은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급수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서울에까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시길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 양으로 음용해보시고, 나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준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갈도 갈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시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1)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 뮬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 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ISO 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5th Anniversary 옻가네15주년기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5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 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 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5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